

칼리오스트로의 복수

La Cagliostro se veng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35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a Cagliostro se venge » (1935)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a Cagliostro se veng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웁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
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일월의 아름다운 아침은 이미 따뜻해진 햇살이 선선한 공기를 적셔 줄 때, 가장 상쾌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원천 중 하나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봄바람의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오후는 당신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길게 늘어뜨린다. 한 해의 청춘이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든다.

물론 이 느낌을 아르센 뤼팽도 느꼈다. 그날 오전 열한 시쯤, 그는 부두를 거닐고 있었다.

그는 탄력 있는 발걸음으로 걸었다. 필요 이상으로 발끝에 체중을 실으며 몸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마치 체조를 하는 듯한 동작이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왼쪽 발을 디딜 때마다 가슴을 깊게 들이마셨고, 그 동작은 이미 놀라울 정도로 넓은 그의 흉곽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듯했다.

머리는 살짝 뒤로 젖혀졌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코트는 입지 않았다. 한여름용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팔 아래로 부드러운 모자를 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예쁜 여성들에게는 미소 짓는 듯 보였다. 나이가 마흔다섯을 향해 가볍게 걸어가는, 아니 이미 그 선을 넘은 듯한 신사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나 멀리서 보면 사정이 달랐다. 날씬한 체격에 유행을 잘 따르는 그 신사는, 스물다섯 살도 안 되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면 억울해할 자격이 충분했다.

‘그래도 돼!’ 그가 거울 속의 우아한 자신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전히 청소년들조차 부러워할 만하잖아!’

무엇보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은, 그에게서 풍기던 힘과 확신이었다. 그는 육체의 균형, 도덕적 건강함, 그리고 좋은 위장과 신중하게 작동하는 장, 그리고 흠 없는 양심을 누리는 세 가지 만족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이런 자존감만 있으면, 누구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머리를 높게 들고 다닐 수 있다.

그의 지갑은 두둑했다. 권총 주머니에는 서로 다른 은행과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된 수표장 네 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곳곳, 그리고 강바닥이나 알려지지 않은 동굴, 오를 수 없는 절벽 구멍 같은 안전한 숨겨진 곳에는 금괴와 보석 주머니를 숨겨 두고 있었다.

그가 ‘라울 드 리메지’, ‘라울 다베나크’, ‘라울 드네리스’, ‘라울 다베르니’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모두 ‘라울’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이어진, 소박하고 겸손한 지방 귀족가의 이름들이다.

그때 마침 그는 프로방스 은행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라울 다베르니 명의의 큰 수표 한 장을 예금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절차를 마친 뒤, 지하로 내려가 사서에게 서명하고 자신의 금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그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내고 있을 때, 근처에 한 노신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고향의 옛 공증인처럼 낡고 구식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근처의 상자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여러 뭉치를 꺼내어 끈을 자르고, 핀으로 묶은 천 프랑짜 지폐 한 뭉치에서 지폐를 하나씩 꺼내 세기 시작했다.

노신은 심한 근시였으며, 가끔 불안한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아르센 뤼팽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따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계속 일을 해나갔고, 마침내 마로퀀 가죽 서류가방에 지폐 뭉치 여든에서 아흔 개쯤을 챙겨 넣었다. 이는 곧 80만에서 90만 프랑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뤼팽도 동시에 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대체 그 존경받는 연금 생활자는 무슨 꾀를 부리는 걸까? 징수원인가, 아니면 지출 담당관인가? 아니면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양심 없는 자들 중 하나인가? 나는 그런 녀석들이 정말 싫어… 국가를 속이다니, 정말 추잡한 짓이지.”

그 인물은 작업을 마치고 가죽 서류가방을 단았다. 끈을 꼼꼼하게 잠그는 손놀림이 정확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뤼팽은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아무리 깨끗한 양심이라도, 백만 프랑이라는 현금을 든 남자를 뒤쫓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대한 금액은, 좋은 사냥개들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냄새를 풍긴다. 그리고 뤼팽은 훌륭한 사냥개였다. 그는 결코 잘못된 발자취를 쫓지 않는 날카로운 후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뒤쫓아 나섰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걸음걸이는 다소 위축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숨은 뜻 따위 없었다.

깨끗한 양심과 손에 꿈을 만큼의 보물을 가진 자에게, 지폐 한 다발이 무엇이겠는가.

그 남자는 르아브르 거리에 있는 제과점에 들러 과자 꾸러미를 사 들고 상테르자르 역으로 향했다.

“크레블뤼! 이 녀석이 기차를 타면, 나를 완전히 속이는 건가?” 뤼팽이 중얼거렸다.

그는 정말 기차에 올랐다. 뤼팽도 불평하면서도 함께 탔다. 승객들로 북적이는 긴 객차 안, 두 사람은 생제르맹 선을 따라 함께 달렸다. 그 남자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듯, 마로킨 가죽 서류가방을 가슴에 단단히 안고 있었다.

그는 샤투 작은 도시를 지나 비제네 역에서 내렸다. 뤼팽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곳이 그에게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곳, 센강이 감싸고 도는 고리 안쪽에 위치한 베지네. 적어도 이 동네는 개발과 건축에 있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나무들이 잠들어 있는 호수 주변에는 넓은 거리와 정원이 어우러진 부유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다.

그날 아침, 나뭇가지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땅은 단단하고 발소리가 울렸다. 남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걱정 없이 걷다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첫 번째 연못가에는 예쁜 집들이 늘어서 있다. 이 연못은 외곽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좀 더 작고 은밀한 연못이다. 이 연못의 제방은 주변 저택들의 소유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장미원 앞을 지나 오렌지나무 온실 앞을 지나, ‘클레마티스’라는 이름의 집 앞에서 멈췄다. 그 남자가 집 문을 두드렸다.

뤼팽은 눈에 띄지 않도록 옆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두 젊은이가 신나며 뛰어나왔다.

“늦었네요, 삼촌! 점심 준비됐어요. 뭐 좋은 거 사오셨어요?”

뤼팽은 기분이 좋아졌다. ‘케이크 삼촌’을 맞이하듯 다정한 응대, 두 조카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낮고 약간 넓아 보이는 집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매우 정겹게 느껴졌다. 따듯한 가족애가 흐르는 이곳에 들어갈 숨을 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다.

다섯백 미터쯤 더 나아가자 넓은 호수가 나타났다. 나무 다리로 섬과 연결된 그 호수는 풍광이 일품이었다. 뤼팽은 호수 옆의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정성껏 즐겼다.

그 후 그는 호수를 돌아보며 걸었다. 도로 바깥쪽에는 사랑스러운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다. 겨울이라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중 한 집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순히 예쁘고 정원이 잘 가꾸져서라기보다는, 철문에 붙은 안내판 때문이었다.

“클레르로지. 매물입니다. 견학은 여기서, 문의는 클레마티트 빌라에서.”

클레마티스! 정확히 ‘내 삼촌’이 점심을 먹던 빌라였다. 정말 운명이 라곤 할까, 그다지 장난기 어린 장난을 치는군. 가죽 서류가방과 클레르로지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입구 철문 양쪽에는 작은 별채 두 채가 있었다. 오른쪽 별채에 정원사가 살고 있었다. 뤼팽이 초인종을 눌렀다. 곧이어 집안 구경을 시켜 주었고, 그는 곧바로 매료되었다. 이 집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이다. 조금은 낡고, 어떤 곳은 심지어 폐허처럼 보였지만,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어 손만 대면 우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집이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 파리를 벗어나 가끔씩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 마련해 둔 작은 별장이 필요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군.’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운명은 그에게 이상적인 집 한 채를 내어주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을 값도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마로킨 가죽 여행 가방이 acquisition을 위한 자금원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이토록 잘 돌아가다니.

다섯 분 뒤, 뤼팽은 명함을 건넸고, 라울 드 아베르니 씨는 지하실의 살롱 스튜디오에서 필립 가베르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두 명의 예쁜 조카들이 있었는데, 삼촌이 그들을 소개해 주었다.

가베르 씨는 마로킨 가죽 여행 가방을 팔에 끼고 있었다. 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였다. 그는 아마도 가방을 풀지 않은 채로 점심을 먹었을 것이다.

뤼팽은 방문 목적을 밝혔다. 클레르 로지 저택을 매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필립 가베르 씨는 조건을 제시했다.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두 자매를 바라보던 그는, 언니를 쫓아다니던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언니가 직접 그 남자를 약혼자라고 소개했을 때였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다. 뤼팽은 당황했다. 그는 언제나 신중했다. 저가 매입 계획이 두 자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칠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다.

“좋습니다.” 가베르엘이 답했다. “다만 계약은 제 공증인과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곧 남부로 떠납니다.”

그는 8개월 전 과부가 되었으며, 아들이 니스에서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젊은 부부와 함께 지내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나는 여기, 조카들 집에 사는 게 아니야. 저기 옆에 있는 내 빌라, 오랑제리 쪽을 봐. 우리 두 정원은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어. 집은 꽤 괜찮은데, 문이 꿈꿈 닫혀 있고 창문판도 모두 내려가서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지.”

뤼팽은 한 시간 더 머물렀다. 젊은 여자와 수다를 떨며 농담을 던졌고, 그녀들을 즐겁게 할 여러 모험담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쪽 눈으로 가베렐 씨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클레마티드 정원과 오랑제리 정원을 거닐었다. 필리프 가베렐은 가죽 서류가방을 팔에 끼고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인은 이미 트럭에 짐상자와 가방을 싣고 리옹 역으로 먼저 떠난 뒤였다.

“오빠, 서류가방도 가져가요?” 누나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이건 제가 파리에서 가져온 사업 서류일 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 집에다 정리해 둘 생각이예요.”

사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스무 분쯤 지나서야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의 팔 아래에는 서류 가방이 없었다. 주머니도 볼록 튀어 오르지 않아, 지폐 뭉치가 그 안에 들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집에 숨겨둔 모양이군. 그는 그 장소가 절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확실히 그는 아내의 상속 재산 청산 과정에서 세금을 속인 구두쇠야. 이런 인간들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

뤼팽은 그를 따로 불러내며 말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이 집을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베르엘 씨는 자신의 빌라 열쇠를 조카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틀 후, 뤼팽은 수표를 끊었다. 클레르로지 저택의 가격은 오랑제리 저택에 숨겨둔 지폐 뭉치로 여러 번 담보가 잡혀 있었기에, 그건 단지 판매자에게 미리 내준 선불금에 불과했다.

그는 필요한 수색을 서둘러 하지 않았다. 지폐를 보관한 곳이 그토록 신뢰를 받던 곳이라면, 그보다 더 안전한 숨겨진 곳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물상자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하지만 뤼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만약 가능하시다면,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젊은 페르시아양사를 양반을 맡아 주시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는 자격을 갖춘 건축가이며, 재능이 있습니다…… 등등.

뤼팽은 그 젊은이를 불러들였다. 그는 수줍고 소극적이었으나,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외모는 나이가 스물일곱에서 스물여덟쯤 되어 보였으나 꽤 잘생겼고, 지능도 뛰어어나며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잘 이해했다. 심지어 ‘라지’의 모든 장식을 맡아 치르고, 정원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왼쪽의 별채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뤼팽은 그다지 자주 오지 않았다. 연중 삼사 차례 정도였다. 그는 페리시앙 샤를을 두 자매에게 소개했고,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했다. 물론 그 자신도 그들을 방문하는 것을 즐겼다.

언니는 기관지염으로 꽤 심각한 병에 걸려 결혼이 늦어졌다.

결국 결혼식은 7월 9일로 확정되었다. 고모부 가베르가 참석해야 했기에, 네덜란드에서 여행 중이던 뤼팽은 8일 전에 귀국해 지폐를 훔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는 두 벽 사이의 통로 끝, 연못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이웃 집의 보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방법을 쓰면, 어느 밤 그는 오랑제리 정원에 숨어들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폐 뭉치를 손에 넣은 뒤, 그는 다시 한 번 그 뭉치를 묶어 원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살릴 생각이었다.

필리프 가베르는 그 이틀 밤을 오랑제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자매의 집에서 보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소포가 제자리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테고, 속을 뒤져볼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도난 사건은 10월이 되어야 비로소 발견될 것이다.

제2장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클레마티트 저택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열두 시간의 비극 직전, 두 젊은이와 두 젊은 여자가 나눴던 점심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동과 다정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앞날을 위협하는 재앙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가볍고 경쾌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모든 폭풍이 다가온다는 징조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비극은 맑고 고요한 하늘 아래 갑자기 터져 나왔다. 그날의 희생자가 될 두 젊은 이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예감도, 불길한 징후도 스치지 않았다.

그들은 웃으며, 당장 내일, 그다음 주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볍게 이야기했다.

가베렐 자매 때문이다. 부모가 죽은 지 칠 년, 여 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클레마티스 저택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돌보는 이는, 두 자매의 탄생부터 지켜본 노모 아멜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하인 에두아르도 함께했다.

두 자매 중 언니인 엘리자베트는 키가 크고 금발의 소녀였다. 회복기 환자처럼 얼굴이 다소 창백했지만, 순수한 매력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주로 약혼자 제롬 헬마스와 이야기를 나눴다.

제롬은 당당한 외모의 청년이었다. 솔직한 인상에 지금은 직업이 없었다. 고아였던 그는 어머니가 살던 작은 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파리로 이어지는 국도변에 자리한 베지네 마을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다.

제롬은 엘리자베트의 약혼자가 되기 전부터 그녀의 친구였다. 그래서 막내 로랑드도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로랑드에게 반말을 썼다. 또한 그는 클레마티트에서 식사를 했다.

로랑드는 언니 엘리자베트보다 훨씬 어려서 더 표정이 풍부했고, 진짜 아름다움도 더 빛났다. 무엇보다 그녀의 매력은 더 열정적이고 더 신비로웠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다른 젊은이, 페리시앙 샤를의 시선을 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꾸만 그녀를 몰래 지켜보았다.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을까? 로랑드 자신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런 유형에 속했다. 얼굴 표정만으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인지 결코 제대로 보여 주지 않는 사람.

식사 후, 네 사람은 모두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지만, 가구와 잡동사니, 책들의 배치가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안글레식 창문은 매우 넓게 열려 있었다. 창밖에는 좁은 잔디밭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빌라와 연못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연못물은 고요했다. 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두꺼운 나무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쳤다. 길게 늘어져 내린 가지들은 물속에 비친 가지들과 만나듯 이어졌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약 육십 미터 떨어진 곳에 다른 집이 보였다. 오랑제리라는 그 집에는 필리프 삼촌이 살고 있었다.

두 정원의 경계는 매우 낮은 울타리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연못을 따라 길게 뻗은 잔디띠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엘리자베트와 롤랑드는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끝없이 아끼는 듯했다. 특히 롤랑드는 자신을 바치려는 열의가 강했고, 동시에 끊임없는 걱정도 안고 있었다. 엘리자베트의 건강은 병을 앓은 뒤였기에,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롤랑드는 약혼자와 함께 있는 엘리자베트를 남긴 채 피아노 앞으로 갔다. 그리고 Félicien Charles를 불러들였다. 그는 처음에는 피하려 했다.

“실례합니다, 마들모아젤. 오늘 우리는 점심을 늦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나요?”

“정확히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엄격해야 합니다. 더구나 아베르니 백작님이 내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는 밤새 차를 몰고 오실 테니까요.”

“다시 만나니 운이 좋네요. 그분 참 매력적이고 재미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를 기쁘게 하려던 마음을 이해하시겠군요.”

“그래도 잠시 앉으세요. 반분 정도만요.”

그는 말없이 따라 앉았다.

“말해 주세요.”

“제가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들어주어야 하나요?”

“둘 다요.”

“그럼 당장 연주하지 않을 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피아노를 쳤다. 몇 마디의 선율이 흘러나왔는데, 너무도 부드럽고 깊게 빠져드는 듯해 듣는 이가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그녀가 그에게 비밀을 암시하려던 걸까, 아니면 그의 마음을 더 열고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려던 걸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가세요.”

“왜요?”

“오늘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소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자 곧장 자리를 떠났다.

로랑드는 어깨를 살짝 으쓱거리며 다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낮게 속삭이는 에리자베트와 제롬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흐르는 음악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렇게 스무 분이 흘렀다.

마침내 에리자베트가 일어나 말했다.

“제롬, 이제 우리 매일 산책할 시간이에요. 가지 사이로 물살을 가르며 배를 저어가는 건 정말 좋잖아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에리자베트? 아직 완전히 나으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휴식이 되고 제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제롬. 제가 배를 가져다 풀밭 앞에 대기할게요. 제롬, 제자리만 지켜주세요.”

제롬이 왠지 초점이 흐려진 듯, 딴생각에 잠겨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제가 잘못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그는 더 이상 확신 없는 어조로 같은 대답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엘리자베트. 나 괜찮아.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 곧 결혼하게 될 테고, 거의 일 년 동안 품어 온 내 꿈이 곧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나 가끔 미래가 걱정되곤 해. 알다시피 나는 부자가 아니야. 서른이다 되어가는데, 아직 내 자리도 없지.”

나는 웃으며 그의 입에 내 손을 얹었다.

“하지만 나는 부자잖아. 물론 큰일 같은 건 못 하겠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엘리자베트. 나 자신에게는 별다른 욕구가 없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제롬! 난 뭐든 다 원하지 않아. 행복하면 그게 다야. 내가 웃으며 말했지. 자, 우리 여기서 평범하게 살다가, 착한 요정

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보물을 가져다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

“아, 그는 말했다. 난 보물 따위에는 별로 믿음을 두지 않네.”

“뭐라고? 우리도 있어, 제롬…… 나한테 해준 말 기억나? 우리 부모님의 옛 친구, 먼 친척이지. 몇 해째 연락도 없었지만, 우리 둘을 잘 아껴주던 사람이었어……”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준 가정교사 아멜리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

“엘리자베트 양,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오래된 사촌인 조르주 뒤그리발이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거라고요. 네, 바로 당신, 엘리자베트에게요. 게다가 그는 병에 걸린 것 같아.”

“보잖아, 제롬……”

제롬이 속삭였다.

“돈…… 돈은 괜찮아. 하지만 나는 일하고 싶어. 엘리자베트, 내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는 남편이야.”

제롬은 엘리자베트가 떠난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롤랑드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연주를 멈춘 롤랑드가 그를 향해 말했다.

“제롬, 정말 기뻐요.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그렇죠? 엘리자베트는 정말 걸작이에요. 당신의 장차 아내가 될 그 여자의 자비로움과 고결함을 당신은 정말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롬.”

그녀는 다시 피아노 의자로 돌아서서 초인적인 행복을 표현하기 위한 승리의 행진곡을 힘차게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다시금 그녀는 갑자기 연주를 멈췄다.

“무언가 비명이 들렸어… 제롬, 들렸지?”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바깥에서 고요함이 밀려들었다. 잔디밭은 차분했고, 연못은 평화로웠다. 로랑드가 실수한 게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금 승리와 기쁨의 화음을 가득 담아 연주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무언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확신했다.

“에리자베트…….”

그녀는 창가로 달려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와줘!”

제롬은 이미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강가, 계단 근처를 내려다보았다. 한 남자가 에리자베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에리자베트는 다리를 물속에 담근 채 쓰러져 있었다. 제롬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 로랑드를 따라 잔디밭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남자가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섰다. 그는 곧바로 피해자를 놓아주고, 무엇인가를 주워 들더니 오랑제리 정원으로 도망쳐 갔다.

제롬은 마음을 바꿨다. 그는 옆방으로 들어가, 두 자매가 자주 연습 하곤 하고 자신이 장전된 줄 알고 있던 소총을 벽에서 내려 받았다. 그리고 정원을 내려다보는 현관 계단에 멈춰 섰다.

남자는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집 앞마당에 서 있었고, 분명히 오랑제리의 채소밭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그곳은 원형 도로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는 곳이었다.

제롬이 총을 어깨에 메고 조준했다. 총성이 울렸다. 남자는 머리를 땅에 박고 꽃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몇 번 몸을 떨더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롬이 앞으로 돌진했다.

“살아 있습니까?”

롤랑드 곁에 다다르며 그가 외쳤다. 롤랑드는 무릎을 꿇고 누운 채 여동생을 꼭 안고 있었다.

“심장이 멈췄어요.” 롤랑드가 흐느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절대 있을 수 없어! 살릴 수 있어…” 제롬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시체 위에 몸을 던졌다. 생명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경직된 눈으로 더듬거렸다.

“그 목걸이가… 없어졌어. 그 남자가 진주를 빼앗으려고 목을 조랐지. 세상에, 끔찍해! 그녀는 죽었어.”

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노종종 에두아르드가 뒤를 따랐다. 롤랑드와 가정교사 아멜리는 희생자 곁에 남아 있었다.

제롬은 꽃밭에 엎드린 남자를 발견했다. 어깨뼈 사이로 맞은 총알이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다.

에두아르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뒤집었다. 나이는 서른다섯에서 마흔다섯쯤 되어 보였다. 옷차림은 초라했고, 더러운 모자를 쓰고 있었다. 회색 수염이 엉켜 있는 얼굴은 창백했다.

제롬이 시신을 뒤졌다. 지저분한 지갑이 나왔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두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손으로 ‘바르텔레미’라고 적혀 있었다.

재킷 주머니를 뒤지자, 에리자베트에게서 훔쳤던 진주 목걸이가 나왔다. 알록달록한 커다란 진주가 한 줄로 이어진 목걸이었다.

비명 소리와 총성이 두 빌라 근처에서 들렸다. 사람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철문을 열어젖히며, 클레마티스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샤투 경찰서와 군대에 전화가 갔다. 질서 유지팀이 꾸러졌다. 구경꾼들을 쫓아내고, 현장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제롬 헬마스는 죽은 약혼자 곁에 쓰러져, 굳게 쥔 주먹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엘리자베트를 집으로 옮길 때 그는 꿈틀도 하지 않았다. 롤랑드가 불러보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롤랑드는 비장한 에너지로 고통을 이겨내고, 엘리자베트를 자신의 신부 드레스를 입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의 모습을,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상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과거가 남긴 눈부신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나쁜 모습으로 말이다.

드라마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클라마티스로 돌아온 펠리시앙 샤투는 롤랑드에게 접견을 거절당했다. 그는 제롬을 조사에 끌어 들여 시선을 돌리려 했다.

경찰이 시체 위에 올려둔 살해자의 시신을 제롬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사람을 본 적 없나요?” 또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롬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깊은 몽롱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끝내 경찰들이 질문으로 그를 괴롭히자, 제롬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엘리자베트를 보았던 스튜디오로 숨어들어갔다.

저녁이 되자 롤랑드는 언니 방을 떠나지 않았다. 에두아르라는 하인이 가져다준 음식을 몇 가지 먹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삼켰다. 그후 그는 지친 몸으로 무겁게 잠들었다.

나중에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을 따라 산보하다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 잠이 들었다. 꽃들과 젖은 풀잎 사이에서였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계단 밑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내려오던 롤랑드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그들만의 고통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롤랑드는 엘리자베트의 방으로 올라가 가정교사와 함께 다시 명복을 빌며 밤을 새웠다.

촛불이 눈물을 흘렸다. 연못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공기가 그 불꽃을 흔들었다.

비가 꽤 많이 내렸다. 그러다 하늘이 밝아졌다. 옅은 파란 하늘에는 아직 몇몇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구름들은 해뜨는 첫 빛을 받아 서서금 빛났다.

바로 그 순간, 샤투 마을로 이어지는 지름길에서 한 도로 관리인이 한 남자를 발견했다. 제롬 헬마스라는 그 남자는 비에 흠뻑 젖은 도랑 가장자리에 쓰러져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옷깃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잠시 후, 아침 일찍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다른 길에서 한 젖소 농부가 또 다른 부상자를 발견했다. 가슴을 칼에 찔린 듯했다.

젊은 남자는 검은 벨벳 바지와 같은 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하얀 점박이 무늬의 라발리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화가나 음악가 같은 분위기였다.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해 보였다.

제3장

오전 내내, 평화로운 베지네에서는 오가는 사람들, 제방경관과 평복 차림의 형사들, 제복을 입은 순경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교통 체증이 빚어졌으며, 기자들과 사진기사들이 쫓아다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부딪쳤다. 가장 기이하고 서로 모순되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돌았다.

오직 한 곳만이 고요했다. 클레마티스 가의 정원과 집이었다. 그곳에는 엄격한 금지령이 내려졌다. 경찰이 아닌 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구경꾼은 물론 기자들도 허용되지 않았다. 죽은 이를 위한 존중과 롤랑드의 슬픔을 고려해,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말을 나눴다.

롤랑드에게 제롬 헬마스가 당한 습격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는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불쌍한 언니… 불쌍한 엘리자베스…”

그녀는 그를 가까운 클리닉에서 치료받도록 명령했다. 같은 클리닉이 다른 부상자도 받아들였다.

젊은 여자를 목졸라 죽인 바르텔레미의 시체는 화장실로 옮겨지기 전까지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열한 시가 조금 넘은 무렵, 루셀랭 판사가 공소청원인의 곁에 앉아 편안한 정원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는 잠과 싸우면서도 고위 검사 구소트가 베지네에서 벌어진 네 건의 비극에 대해 자랑스러운 듯 상세히 설명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루셀랭 씨는 배와 허벅지가 통통한 작은 남자가 있었다. 소화기가 좀 약한 편이라, 가끔은 소화 문제로 고생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에서 15년 동안 심리판사를 지냈다. 나태했고 야심도 없었다. 낚시에 대한 열정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그 어느 곳으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오르삭 성 사건이 그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그 사건에서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예리함을 보여줬다. 덕분에 루셀랭 씨는 주목을 받게 되었고, 큰 아쉬움을 남긴 채 파리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검은 알파카 재킷과 구겨진 회색 면바지를 입고 다녔다. 옷차림에 대한 그의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는 날카로운 정신과 세련된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행동이 매우 독립적이었고, 때로는 다소 기발하기도 했다.

주임 형사 구소도 역시 실력보다는 명성이 더 큰 인물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 루셀랭 씨가 정신을 차렸다.

요약하자면, 가베렐 부인은 보트를 묶고 있던 사슬을 들어 올리려 몸을 굽혔을 때 공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워낙 세어서 물가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 세 개가 모두 부러졌다.

사실 가베렐 부인은 허리 위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직후 제방 위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주 목걸이가 흠쳐진 뒤 범인은 도망쳤다. 범인의 다리도 둘 다 젖어 있었다.

의사들이 검사한 뒤 차고에 누워 있는 이 범인에 대해서는 바르텔레미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얼굴과 옷차림은 모두 노숙자 같았다. 그는 흠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른다.

주사형 가소 형사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는 말을 고르느라 애쓰지 않는, 그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머지 두 명은 어떻습니까?”

제롬 헬마스 씨가 총으로 살인자를 제압했습니다. 그要不是, 살인자는 도망치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모호합니다. 헬마스 씨는 고통스러운 침상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한 말들이 전부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우선 그는 약혼자를 죽인 살인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밤에 자신을 습격한 자도 알아보지 못했고, 왜 공격을 받았는지 이유도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부상자의 신원이나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습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가해자가 동일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경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주형사님, 오늘 밤 세 남자 사이의 비극, 즉 한 명의 가해자와 두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을까요? 오히려 두 남자 사이의 비극이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제롬 헬마스 씨가 한 남자에게 습격을 받았고, 헬마스 씨에게 부상을 입힌 그 남자가 피를 흘린 채 300~400미터를 기어 다니다가 오늘 밤 쓰러진 장소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가설은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 가설을 내놓은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그가 클라미티아스 가의 저택에서 나온 점, 그리고 구소 형사의 결론을 경청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인가?

주inspecteur는 자신의 가설을 다른 사람의 추측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울 다베르니입니다. 제 소유지는 여기 근처, 큰 호수 맞은편에 있습니다.”

“파리를 몇 주 동안 비웠다가 오늘 아침 돌아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젊은 건축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빌라를 장식하는 작업을 하느라 말입니다.”

“펠리시앙 샤를은 가베렐 자매들의 친구였습니다. 어제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죠. 한 시간 전, 제가 그를 롤란드 부인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례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잠시 정원을 거닐며, 주inspecteur님의 놀라운 추론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추리력이 느껴지더군요.”

라울 드 아베르니는 어딘지 모를 신비로운 미소와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주경철 가니마르 형사가 아닌 다른 이라면 자신이 조롱당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주경철 형사는 자신의 중요성에 푹 빠져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너무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마

지막 칭찬에 기분이 좋았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친절한 아마추어 수집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그건 제가 놓치지 않고 제기한 가설입니다, 선생님.”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 가설을 엘마스 씨에게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내가 어떤 무기로 때렸겠는가?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방어했을 뿐이다.’”

“헬마스 씨가 내 얼굴에 주먹을 내리쳐서,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답변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지만 나는 두 번째 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이나 다른 곳에는 타박상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라울 다르베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논리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흥미를 느꼈던 심판관 루셀랭 씨가 그에게 물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monsieur?”

“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장황해지면…”

“말하십시오, 부디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매우 난해한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소한 진전 하나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울 드 아베르니가 말했다. “엘리자베트 가브레가 습격을 받았을 때 물속으로 빠져든 원인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나무 계단의 붕괴였죠. 저는 무너진 계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단은 연못 속에 박힌 두 개의 튼튼한 말뚝으로 지탱되고 있었는데, 그 말뚝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말뚝 모두 최근 삼사 분의 일 정도가 잘려 나갔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롤랑드는 펠리시앙 샤를의 팔을 짚고 스튜디오를 빠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비틀거리며, 드 아베르니 씨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녀가 헛간거렸다.

구소 형사가 계단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아베르니 씨가 강독으로 끌어올린 말뚝 중 하나를 주워 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틀림없습니다. 베인 자국이 아주 또렷하고, 아직 생생하군요.”

롤랑드가 지적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언니가 보트를 가져갔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뒀다는 뜻인가요?”

라울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담. 살인자가 목걸이를 빼앗으려면 물에 던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 강둑에서 몇 초간의 몸싸움, 그리고 도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수사 판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끔찍한 함정은 다른 사람이 설치한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죠? 그리고 왜 함정을 파놓았죠?”

“저도 모릅니다.”

루셀랭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살인자가 두 명이라는 뜻이군요. 한 명은 의도적으로, 다른 한 명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후자는 단순히 기회를 타서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후자는 어떻게 재산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었죠?”

라울은 손가락으로 필리프 가베⁴³ 오빠의 오렌지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요.”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보세요. 1층의 모든 창문과 문은 닫혀 있고, 밀폐형 shutters로 막혀 있잖아요.”

라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모두 밀폐형 shutters가 달려 있지만, 다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오른쪽 끝에 있는 발코니 도어 중 하나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문이 안쪽에서 열렸고, 서로 마주 붙어 있습니다. 가니마르 형사,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인물은 어떻게 집에 들어온 거요?” 루셀랭이 물었다.

“아마도 외부로 통하는 메인 정문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짜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베렐 경을 감시하고 습격할 장소를 그쪽으로 정했다니. 정말 이상하군.”

“이건 제 생각이 있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가베르르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롤란드 씨로부터 어제 전보를 받아서요. 그는 아들과 함께 바캉스를 보내던 칸에서 곧 도착할 겁니다. 곧 올 텐데, 맞죠, 롤란드 양?”

“이미 도착해야 합니다.” 롤란드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다브르니 씨의 위엄이 그를 들은 모든 이에게 스며들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설득력 있어 보였다. 모순되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구소 형사는 오랑제리 앞에 서서, 실제로 닫혀 있지 않은 유리문을 주시했다. 법관들은 낮게 수군거렸다. 롤란드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페실랭은 롤란드를 보다가 다브르니 씨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복잡하다고요. 맞습니다. 그 복잡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과 제가 파악한 사실들을 의심합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려 하죠. 왜냐하면 현실은 대체로 일관된 선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엉킨 실타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운명도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연달아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열두 시간 동안, 한 번의 매복, 한 번의 의사, 한 번의 질식사, 한 번의 절도, 그리고 한 번의 죽음. 그리고 두 번의 또 다른 매복. 그것들이 두 번의 또 다른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었고, 그래야만 했죠.

이 모든 것이 일관성 없고,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하며,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너무해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얽힌 실타래 속에 사실들을 분리하는 선이 보이지 않는지, 어떤 것은 오른쪽에, 어떤 것은 왼쪽에 나누어 놓을 수 없는지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너무 복잡하게 엉킨 사건 하나 대신, 우연히 한 지점에서 만나 엉킨 두 개의 정상적인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실이 엉키기 시작한 점점만 찾아내면 어느 정도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호.” 루셀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상상의 영역에 들어가는군요.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라울 다베르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증명은 때로 논리만큼 설득력이 없는 법이죠.”

그는 말을 멈췄다. 모두 침묵에 잠겨 생각에 빠졌다.

그때, ‘클라마티스’ 집 뒤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롤랑 드가 달려나가 삼촌 가베렐을 맞았다.

그들은 함께 묘실로 올라갔고, 가베렐 씨는 다시 법관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에게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라울 드 아베르니는 자신의 빌라 문이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다.

“선생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베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도둑질하기 위해서요. 귀중품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을 남기셨나요?”

롤랑드의 삼촌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귀중품? 유가증권?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게다가 어떻게 그걸 알았던 말인가? 아니야, 아니,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오랑제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며 외쳤다.

“아니요! … 오지 마세요. …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는 오랑제리 건물의 1층으로 곧장 향했다. 살짝 열려 있던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이내 모습을 감췄다.

두 분이 흘렀다. 누군가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다. 잠시 후, 그가 나타났다.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문턱의 계단으로 쓰러져 내렸다. 그곳에서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네… 맞아요… 제가 도둑맞았어요… 은닉처가 발견됐어요… 끔찍해요… 저는 파산했어요… 은닉처가 발견됐어요… 믿을 수 있나요? 다 가져갔어요…”

“중요한 도난 사건인가요?” 재판관이 물었다.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가베르엘 씨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자신의 고백에 스스로도 놀란 듯했다.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건 제 문제일 뿐입니다. 사법 기관은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제가 도둑맞았다는 사실요. 범인을 찾아내고, 내 것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라울 드아베르니와 가니마르 형사가 들어왔다. 현관에 올라선 그들은, 드아베르니가 예상했던 대로, 거리로 통하는 현관문의 자물쇠가 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은 안쪽에서 밀어 올린 안전 잠금장치로만 닫혀 있었다.

그들은 정원으로 돌아갔다. 라울은 소녀에게 물었다.

“어제 아틀리에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 자매를 죽인 범인을 보셨다고 하셨죠. 범인이 도망가면서 무언가를 줍는 모습을요.”

“네… 맞아요.”

“그 물건이 어떤 것이었나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소포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기도 작은 소포였죠. 그가 달아나는 도중 재킷 아래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소포는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 불려온 하인 에두아르에게 물었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시신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모두에게 물었지만, 어제나 오늘 아침부터 단 한 개의 소포도 주워 든 사람은 없었다.

필리프 가베를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경찰이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 소포를 찾으려면, 먼저 그 소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루셀랭 씨가 반박했다.

“회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가베를 씨는 격분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 문제죠.”

가베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다.

“중요한 지폐나 문서들을 안전하게 치워둔 건 제 자유가 아닙니까?”

“결국 은행권 지폐가 있었던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런 말 제가 했나요?”

가베렐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쏘아붙였다.

“왜 갑자기 지폐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서들이요.”

“요약해 보시죠.”

“간단히 말해, 회색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 하나를 돌려받길 원합니다. 법원은 그 회색 천 주머니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라울이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증거는 이미 입증됐소. 그제저녁, 노파 바르텔레미라는 도둑이 이 집에 침입했지. 그는 끝까지 조사 끝에 그 자루를 손에 넣었어.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현관

과 외부 대로 쪽 문을 통해? 아니, 낮에는 들킬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그는 이 발코니 문을 열었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정원이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리고 채소밭 쪽 출구를 이용하려 했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자베트 가브렐이 클레마티스 저택에서 도착한 거야. 뜻밖의 조우였지. 소녀는 비명을 지르었고, 그 소리는 클레마티스 저택에서 희미하게 들렸어.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도둑이 그녀를 향해 돌진했지. 소녀는 도망치려 했고, 두 사람은 계단에서 부딪쳤어.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지.”

가니마르 형사가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였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저도요.”

“그렇다면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바르텔레미 씨가 가브렐 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테러를 스스로策划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울이 시인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보좌 검사관은 파리로 돌아가야 했고, 루셀랭 씨의 배도 고프 때였다. 그는 조용히 하인을 불렀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을까?

“판사님.” 라울 다베르니가 말했다. “만약 저의 초대를 받아주신다면, 제 집에서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수석 형사도 초대할 데다, 형사는 성내며 거절했다. 수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롤랑드는 라울 드 아베르니를 따로 불러,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제 자매가 복수받을 수 있겠죠?
…그녀를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라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자매는 반드시 복수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특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말했다.

제4장

라울이 대접한 점심 식사에는 페리시앙 샤를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루셀랭 판사는 기분이 좋았는지, 칭찬과 감탄사를 멈추지 않았다.

“아, 이 랍스터는! 그리고 이 소테른 와인은! 더구나 이 닭고기는!”

“판사님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울 다베르니가 말했다.

“오? 어떻게 알았지?”

“저의 친구인 부아제네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오르삭 성 사건, 즉 판사님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그 유명한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나? 나는 그냥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뒀을 뿐이야.”

“네, 그 이론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비극이 일어났을 때는, 그 비극의 주연 배우들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킴으로써 서서히 어둠을 걷어낸다는 말씀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더 아쉽죠. 돈이나 목걸이를 훔치는 건 별 볼일 없는 일이에요.”

“모르죠. 엘리자베트 가브레에게 함정이 깔렸을 수도 있고.”

“맞아요. 끊어진 계단이라는 함정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믿으시나요?”

“특히 재판장님, 저를 자타가 공인하는 작은 재능에 도취한 아마추어 탐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추리 소설은 아닙니다. 그건 지루하거든요. 대신 『법정 가제트』와 실제 범죄 기록들은요. 그리고 저는 그 읽은 것들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통찰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때로는 완전히 틀린 통찰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때로 제가 막연하게 수다를 떨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클래스 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착한 구소 형사 같은 사람이요.

사실 모든 것은 매우 어둡고 불분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명확합니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필리프 가베르엘 씨가 지폐를 숨겼다는 의심을 받길 원치 않는다는 점 말입니다. 하지만 가정해 봅시다. 회색 천 가방이 발견된다 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루셀랭 씨가 말했다. “도둑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머니를 뜯어 내용물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 지폐를 다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펠리시엔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식사 내내 그는 라울 드 아베르니의 말을 경청했지만, 대화에 끼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후 세 시쯤, 루셀랭 씨는 두 동료들을 데리고 클라미티스 정원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석 형사를 다시 만났다.

“자, 형사님.进展은?”

구소트는 가장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별로 아는 건 없어. 제롬 헬마스 씨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안부를 물었고, 의사들과도 이야기했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너무 깊게 캐묻지는 못했어. 할 수 있는 한 말한 게, 자신을 쫓아와 습격한 남자가 연못으로 이어지는 골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범행에 사용된 칼은?”

“찾아내지 못했어.”

“다른 부상자는?”

“상태가 여전히 위중해. 아직 예후를 단정 짓기는 이르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

수사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인물과 관련해 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혀냈지.”

“무슨 말이야?”

“그 남자는 밤에 습격당할 예정이었지만, 사실 어제 이 정원에 들어와 있었어.”

“뭐라고요? 그 정원에서?”

“바로 그곳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단 페리시앙 샷을 쏘가 들어가던 틈을 타서 빌라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여사가 살해당한 뒤, 자신의 누이 롤랑드를 만나러 가려던 때였죠.”

“그리고 나서?”

“폭발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서가 잡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그중 한 명이 바로 그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저가 클리닉에서 조사한 증인들 모두 단호하게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우연이었겠죠, 페리시앙 씨.” 판사가 말을 이었다. “그가 당선과 동시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라고요?”

“별다른 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앙이 말했다.

“눈치채지 못했다니요?” 구소트가 되물었다.

“이상하군요. 그런데 당신과 그가交談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군요.” 젊은이는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 곧 경관들과 구경꾼들을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큰 키의 남자, 그러니까 화가 같은 차림새에 흰색 무늬가 있는 라발리에 넥타이를 맨 사람은 보지 못했나요?”

“아니요… 아니면 알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가니마르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 씨 소유 부지에 딸린 작은 별장에 살고 있죠?”

“정원사는 알고 계신가요?”

“물론이지.”

“그런데 그 정원사가 말하길, 어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밖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앉아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미 두 세 차례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하지. 바로 그 남자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인이야. 방금 병원에서 정원사가 그 남자를 확실히 알아 봤거든.”

펠리시앙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내며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반박했다.

“그가 그분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제 클라마티스 가에 함께 왔는지, 아니면 군중 속에 함께 있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요?”

“친구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대라구요.”

“시몽 로리앙입니다. 어느 날 큰 호수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자신도 화가라고, 하지만 작품을 팔 곳을 모르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베르니 백작께 소개해 달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주 만났나요?”

“네, 다섯 번 정도.”

“주소를 아나요?”

“파리에 산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젊은 남자는 이미 당당함을 되찾은 듯했다. 조사 판사는 중얼거렸다.

“이건 아주 그럴듯하군.”

하지만 구소로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럼, 어제 그 남자를 본 거야?”

“네. 제가 사는 별장 근처에서요. 당시에는 아베르니 백작께서 돌아 오실 줄 알았고, 시몽 로리앙이 백작께 소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원을 비운 이후로는?”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 근처를 배회했어. 연못가 집들 사이로 말이야. 그는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어제 밤 이곳 바로 옆에서 그를 본 사람이 거의 확실해. 그는 그림자에 몸을 숨겼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 별장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일처럼 아베르니 백작의 하인이 차려주더군요.”

“그 이후로는?”

“그 뒤로는 책을 읽다가 곧장 잠자리에 들었어요.”

“몇 시쯤?”

“열한 시쯤 됐을 때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하지요.”

“확실합니까?”

“물론이죠.”

가니마르 형사는 이미 심문했던 네 명으로 구성된 무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중 한 명, 나이가 지긋한 한 신사가 앞으로 나섰다.

가니마르 형사가 물었다.

“당신은 근처 빌라 중 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필립 가베르엘 씨의 채소밭 너머에 있는 집에 살아요.”

“그 빌라 옆으로는 공중 통로가 지나가죠. 그 길을 통해 누구나 연못까지 갈 수 있다고요?”

“자, 당신은 자정이 조금 지나서, 창문 밖에서 공기를 쐬고 있을 때 연못 위를 노를 저어 오는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통로 끝까지 와서 배를 세웠죠. 그리고 배를 당신의 땅 쪽으로 끌어당겨, 평소 묶어 두던 말뚝에 단단히 매어 놓았습니다. 그 배는 당신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 산책객을 알아보았죠?”

“네. 구름이 조금 비껴나면서 달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어두운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람은 페리앙 샤를 씨였습니다. 그는 통로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은 모릅니다. 저는 침대에 올라가 잠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페리앙 샤를 씨라고 단언하십니까?”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니마르 형사가 페리시앙에게 물었다.

“결국, 당신은 침대가 아닌 밖에서 밤을 새웠다는 말ियो?”

페리시앙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전 제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배에서 내려 골목에 숨어 있다는 게 설명되오? 그리고 헬마스 씨가 자신을 습격한 자가 바로 그 골목에서 나왔다고 확신했다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

페리시앙은 또 한 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전 제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셀랭 씨는 침묵을 지켰다.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창피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라울 다르베니를 바라보았다. 라울 역시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페리시앙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라울이 즉시 입을 열었다.

“일단 기다려 주시죠, 가니마르 형사. 이 모든 소문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그 진의를 밝혀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형사는 페리시앙 샤를에 대해 대체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겁니까?”

구소트가 반박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실을 향한 단서들뿐입니다.”

“형사님, 단서는 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실’이라는 틀에 맞춰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따위 없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당신의 진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은 주로 두 번째 사건, 즉 지폐 도난과 두 번의 야간 습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페실리앙이 그날 밤 밖에서 배를 이용해 오랑제리 정원에 침입해 회색 천가방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방에는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시쯤, 그는 그림자에 숨어 피해자의 약혼자, 제롬 헬마스 씨를 뒤쫓아 습격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속으로는, 그가 다른 부상자, 시몽 로리앙을 습격한 자도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궁금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구소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남의 추측에 답하는 게 습관이 아닙니다.”

라울 드아베르니가 말을 이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군요. 형사님의 의심은 페리시앙 샤를과 시몽 로랑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공모 관계라면, 페리시앙 샤를이 어떻게 시몽 로랑의 동시 다발적인 가해자이자 공범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소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런 추측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침묵은 대화를 끝내기에 충분했다.

검은 상의를 입은 로랑드가 매우 단정하게 현관 계단에 서서 이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녀는 숙부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제롬 헬마스가 있는 클리닉으로 향했다.

라울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페리시앙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길 내내 라울 드아베르니는 말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빌라에 도착하자, 그는 젊은이를 거실 뒤편에 있는 작은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은 울타리에 둘러싸인 한쪽 정원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이를 앉게 한 뒤 말했다.

“당신이 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썼는지 묻지 않았군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시다, 각하.”

“그렇다면 당신이 이 빌라를 꾸미고 살게 된 이유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오?”

“각하를 궁금해할 수 없었나요?”

“불쾌하게 여길까 봐 두려웠소. 당신도 나를 묻지 않았으니까.”

“네. 당신의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당신에게 삶은 가혹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깊은 거리낌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시다.

그 후로 당신과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시다. 결국, 저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잠시 멈추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아마 당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주저 없이 저에게 털어놓겠습니까?”

펠리시앙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길 일은 없습니다.”

“그 대답은 나쁘지 않군, 라울이 말했다. 네 나이라면,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잘 해결해야 해. 만약 네가 뭔가를 저질렀다면 불운할 뿐이야. 하지만 네가 무죄라면, 삶이 너를 보상해 줄 거야.”

페리시앙이 자리에서 일어나 라울 다베르니에게 다가섰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울은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젊은이의 눈이 흔들리고, 얼굴에는 솔직함이 부족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엘리자베트 가베렐의 장례식은 다음 날 치러졌다. 롤랑드는 무덤까지 힘차게 걸어가, 열린 무덤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관 위에 팔을 뻗은 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은 분명히 누나에게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전하고, 그 기억에 평생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삼촌의 팔을 잡고 떠났다. 삼촌은 루셀랭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판사님, 지폐 한 장도 없습니다. 다만 소중하게 여긴 편지와 문서들뿐이죠. 저는 사법 당국이 그 내용을 담은 회색 천가방을 찾아내길 요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쪽으로 떠나기 전에 곧바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라울 다르베니는 그 대신 연못 주변을 거닐다가, 돌담 위에 앉아 아침 신문을 끝까지 읽었다.

그중 한 명이, 전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듣고 본, 용감하고 능숙한 기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은 분명했다. 그 기자는 구소 형사가 페리시앙 샤를을 심문한 놀라운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아베르니가 불쾌한 투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페리시앙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을 지나 자신이 생각에 잠기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를 쓰지 않았고, 옷차림도 매우 소박했다. 목에는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여인이었다. 그 자리에 서서 다양한 표정으로 뒤섞인,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아픔과 당혹감, 분노, 그리고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5장

말투가 정녕 적대적이었다. 마치 라울 드 아베르니가 시몽 로랑의 불운한 일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양, 그런 어조였다.

라울이 그에게 말했다.

“아마 지금 아침에 『프랑스 에코』 기사를 읽으셨겠군요. 거기서 제 손님인 페리시앵 샤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잖아요.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몰라서, 화풀이 삼아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첫 충격을 받자마자, 그 젊은 여성의 분노가 분출했다. 흐느낌과 공포가 섞인 격한 분노였다. 그녀의 본성이 얼마나 격렬하고 어두웠는지, 때때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분노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지 사흘째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발버둥 치며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미쳐버린 사람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그리고 오늘 아침, 우연히 본 신문에 그의 이름이 실렸어요. 사고를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신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봤을 때, 그는 다쳤고 거의 죽어가
는 상태였어요. 지금쯤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클리닉으로 향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기 전에, 당신을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화가 난 듯, 그러나 위엄 있게 라
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내뱉었다.

“왜요? 그 모든 걸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
말이야! 이 사건 전체가 당신의 작품이야. 이 신문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어. 페리시앙 샤를? 그냥 조연일 뿐이지. 진짜 지휘자는 당신이예요.
이 모든 모험을 꾀한 사람, 바로 당신! 직감이 그래요. 확신할 정도예
요. 신문을 읽자마자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다!’”

“나? 당신이 저를 모릅니다.”

“알고 있어요.”

“저를요? 라울 다브르니를?”

“아니요. 당신을요, 아르센 뤼팡!”

라울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줄은 몰랐고, 자신의 본명이 모욕처럼 던져질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는 그녀를 거칠게 잡아끌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아르센 뤼팽이…….”

“아니,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몽이 자주 당신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숨어 있는 ‘아베르니’라는 이름까지요.”

“저는 심지어 지난주 어느 날 밤,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아르센 뤼팽의 집을 직접 보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경고했잖아요. ‘그를 알아보려 하지 마. 너에게 불행이 닥칠 거야. 그 모험가에게서 무엇을 기대한다는 거지?’라고요.”

그녀는 주먹을 짝 쥐고 라울을 향해 내밀었다. 경멸이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으로 그를 비난했다.

라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대체 이 기묘한 사연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라울은 클리닉에서 시몽 로랑을 만나러 갔다. 그는 시몽 로랑을 알지 못했다. 도대체 시몽 로랑은 왜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 했을까?

그는 어떻게 라울 다베르니가 곧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을까? 어떤 우연한 일들이 겹쳐서 그가 그런 비밀을 손에 넣게 된 것일까?

라울은 이 젊은 여성이 그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알려줄 리가 없다는 생각, 아니 적어도 그녀가 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품었다. 그녀는 완고한 이마와 단호한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곧추 앉아, 움직이지 않는 듯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간 야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았고, 그 자세에서 놀라울 정도로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본능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활용하고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로 된 저고리는 그녀의 곡선을 잘 드러냈고, 어깨의 조화로운 라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라울의 지극한 찬사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몸을 굽혔다. 두 팔을交叉하고 두 손으로 뺨을 감싸 쥐며, 그녀는 자신을 반쯤 숨겼다. 갑자기 힘이 빠져,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모를 거예요. 당신은 제 전부예요. 당신이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분에게 슬픔을 주지 않으려면,

제가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너무 깊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결혼해서 함께 떠날 거였어요. 네, 떠날 거였죠.”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만약 그가 죽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생각은 그녀를 다시 한 번 들끓게 만들었다. 그녀는 몇 초 사이에도 극과 극을 오갔다. 생각과 감정이 뒤섞인 채, 그녀는 제멋대로 요동쳤다.

그녀는 라울에게 몸을 던졌다.

“당신이 저를 죽였군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고향 코르시카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복수할 것입니다. 그가 복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알고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입은 타격은 아르센 뤼팽이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제가 온세상에 외쳐댈 것입니다. 네, 지금 바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인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아르센 뤼팽, 악당, 도둑... 아르센 뤼팽!”

그녀는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미친 사람처럼 고향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그는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아세우고, 억지로 방 안으로 끌어들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녀는 wild하게 저항했다. 그는 두 팔을 휘둘러 그녀를 붙잡아 안락의자에 넘어뜨리고, 꼼짝 못하게 눌러앉혔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품에 안겨, 온몸으로 떨어져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분노와 증오로 몸부림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 키스하려는 듯 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몸을 일으켰다. 어리석은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자 그녀는 격분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당신도 그래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그냥 잡으면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요… 마치 창녀처럼 말이지요. 당연하죠, 뒤편 같은 놈은 무슨 짓이든 다 허용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여자는 자기 것이라 여기고. 아, 연극쟁이 같으니라니, 만약 당신이 내 입술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나는 너를 개처럼 쏘아죽였을 거야.”

라울은 격분한 나머지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이제 그만 하세요! 바보 같은 소리요! 당신이 여기 온 건 나를 고발하거나 죽이러 온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말하세요, 천만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어서 말하라니까요!”

그는 다시 그녀의 두 팔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 정면으로 향하게 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일에 관련한 게 하나도 없어… 시몽 로리앙을 때린 건 내가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맹세해. 그러니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시몽의 생명을 구해 주세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압도된 듯했다.

“알겠소. 그가 나아지면 곧장 사라지게 하겠소. 걱정 마. 그는 감옥에 가지 않을 거요.”

그녀가 몸을 떨었다.

“감옥? 그가요? 하지만 그는 감옥 갈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그는 정직한 사람ियो. 그의 구원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소. 내가 돌봐주어야만 그를 구할 수 있소.”

“그럼?”

“그럼, 나는 그 병원에 입원해 그를 떠나지 않을 거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의 옆을 지킬 거요. 나는 4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소. 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를 돌볼 수 없소. 하지만 오늘 당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왜 처음부터 내게 말하지 않았소? 쓸데없이 나를 무고한 혐의로 비난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래, 합의된 거야?”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금 당장, 그렇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약속했다.

“네, 클리닉 원장을 만나볼 거야. 그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설령 거절하려 해도 내가 막아놓을 테고, 비밀을 지켜달라고도 요청할 거야. 다만, 내가 내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해. 너 이름이 뭐야?”

“파스티나…… 파스티나 코르티나.”

“클리닉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도록 해. 시몽 로랑트와의 관계를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마.”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만약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빨리 가. 그는 재촉하며 작은 정원 쪽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정원은 차고와 이어져 있었고, 운전자는 자리에 없었다. 라울은 캐브리오레의 문을 열고 명령했다.

“빨간 스카프를 벗어. 눈에 띄면 안 돼. 타.”

그녀는 차에 올랐다.

그는 다른 출구를 통해 그 땅을 빠져나와 센 강가로 향했다. 페크에서 강을 건넌 뒤, 차는 가파른 언덕을 힘차게 올랐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만약 함정이라면, 당신 탓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제르맹에 이르러 그는 큰 의류 매장에서 작업복과 간호사 모자를 사들였다.

한 시간 뒤, 그녀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클리닉에 들어섰다. 그리고 부상당한 남자를 전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열병에 시달리고 상처 때문에 지친 시몽 로랑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근육이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단단히 추스르고 있었다. 딱딱한 간호사 제복을 입은 채, 그녀는 주어진 지시를 경청하며 속삭였다.

“내가 널 구할 거야, 내 사랑. 반드시 구해 낼 거야...”

임상병원을 나서던 라울은 로랑드 가베렐을 만났다. 그녀는 제롬 헬마스의 병실로, 죽은 여자의 무덤에서 직접 꺾어 온 꽃다발을 들고 가던 참이었다.

제롬의 건강은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그 소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고, 열도 내려갔다. 내일이 되면 그를 심문할 예정이었다.

라울은 그녀와 함께 길을 걸으며 물었다.

“생각해 봤니?”

“그 생각뿐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만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엘리자베트의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클레마티스 저택에 도착한 그녀는 누나의 일기를 그에게 건넸다. 몇 달 동안 일기에는 오직 사랑의 부드러운 침투가 적혀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빛나며 퍼져 나가는 그 사랑은 때로 병자의 슬픔과 섞이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 중인 소녀와 행복한 약혼자의 기쁨으로 꽃을 피웠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 봐.” 롤랑드가 말했다. “정말 평온하고 걱정 없는 모습이었어. 그들과 다가올 행복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지.”

밖에서는 루셀랭 판사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라울이 다가오자 그는 손짓으로 부른다.

“페리시엔 소년의 상황은 좋지 않군.”

“어떻게 된 셈입니까, 판사님?”

“증거가 하나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드리는 것은 하인 에두아르와 당신의 정원사가 함께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보름 전, 오후 늦게 에두아르가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당신의 정원과 정원사 전용 토지를 가르는 수풀 근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 대화 중 자연스럽게 이 두 자매의 삼촌 이야기가 나왔고, 에두아르는 필리프 가베르 경에 대해 입이 가벼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놈이잖아, 정말 많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인색한 인간이지. 예전에 세무당국과 말썽도 피웠고.’”

“그래서 그 때 이후로, 그 놈이 집에 현금을 숨겨 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게 나중에 그 놈을 망치게 될 거야.”

잠시 후, 그들은 수풀 너머로 작은 불꽃을 보았다. 이어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쪽에서 누군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앉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페리시앵 샤를과 시몽 로리앙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라울이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방금 페리시앵 샤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론은?”

“아, 재판판사의 결론이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 가장 크게 봐도, 그들 중 한 명이 도둑질을 하자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을 저 노파르 테렘이 실행에 옮겼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자주 하는 하급 공범이니까요.”

“그 후엔?”

그 후, 다음 밤에 회색 천 주머니가 도둑맞고, 잃어버리고, 다시 한 사람이 정원에서 찾아냈습니다. 두 친구는 그 주머니를 두고 칼을 들고 다투었습니다.

“제롬 헬마스의 역할은 어땠나요?”

그 이튿날, 라울은 시몽 로리앙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클리닉으로 달려갔습니다.

루셀랭 씨와 구소 형사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스티나 등이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라울은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시몽 로리앙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애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안개가 다시 그를 덮쳤고, 그는 아이처럼 신음하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숨겨둔 곳…… 그 노인이 가방을 찾아냈어.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찾아봤지만, 더 이상 기억이 안 나. 페리시엔……”

그는 몇 번이나 그 이름을 반복했다.

“페리시엔…… 페리시엔. 아주 정교하게 꾸며놓은 수법이었어. 페리시엔……”

그리고는 다시 베개 위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라울은 파스티나의 증오 어린 시선을 마주쳤다. 죽어가는 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방금 언급된 그 이름. 그 사람의 연인을 죽인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는가?

루셀랭 씨는 가소트 형사를 따라 라울 드아베르니를 밖으로 끌고 나가며 말했다.

“아베르니 씨, 죄송합니다. 페리시엔 샤를은 당신의 손님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보호해 주셨죠. 하지만 확실히 정황상 의심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파스티나의 절망에 사로잡힌 라울은 생각했다. 체포한다면 피시앙이 유죄든 무죄든, 어리석은 복수 행위를 저지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판사님, 저는 그분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피시앙은 제 집에서 그가 묵고 있는 별장에 있을 겁니다.”

라울의 권위가 루셀랭을 움직였다. 루셀랭이 이렇게 말했다.

제6장

저녁이 되어 식사를 마친 라울은 직원들의 말을 통해 페르시엔의 체포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페르시엔이 지금까지 살았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간단하게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다. 방은 두 개뿐이었는데, 하나는 작업실로 쓰였고, 다른 하나는 페르시엔의 침실이었다. 침실에는 욕실도 딸려 있었다.

라울은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열어둔 채로 앉았다. 현관문도 마찬가지로 열어두었다.

밤이 깊어갔다. 어둠이 얹혔다가 점점 짙어졌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그는 정문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철문은 평소에는 절대 잠그지 않는 것이었다.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다가왔다. 잔디 위를 밟는 소리. 그다음은 현관 계단을 오르는 소리, 그리고 안방으로 스며드는 소리.

라울은 파스티스를 맞았다. 그녀는 그를 거의 보지 못한 채, 이끌려 가던 의자에 털석 주저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는 어디에?”

“페리시앙?”

“감옥에. 당신도 몰랐나요?”

그녀는 멍하니 되뇌었다.

“감옥에?”

“네. 방금 전에 당신에게서 저토록 적의가 가득한 표정을 봤어요. 그래서 의심했고, 감옥에 보내는 방해를 두지 않았죠. 잘한 일 아니에요?”

그녀는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찾고 있는 거예요. 시몽 로리앙을 때린 사람은 누구일까… 아, 알 수만 있다면!”

“페리시앙을 아시나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를 심문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고, 지친 듯해서 라울은 잘 들리지 않았다. 라울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분명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있군요. 예를 들어 경찰도 신분을 특정하지 못한 바르텔레미라든가, 시몽 로리앙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처를 찾아 헤맸지만 실패했습니다. 몽마르트르의 화가들이 모이는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그의 흔적을 쫓았지만, 도대체 그는 어디서 잤을까요? 그의 서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게다가 페르시엔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가 이 사건에 연루된 걸까요? 시몽의 마지막 말을 들으셨죠? 죽어가는 자의 혼란스러운 말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고발했습니다. ‘은신처…… 노인이 가방을 찾았어…… 내가 찾았어……’

그렇다면 그들은 공범이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범이었죠. 페르시엔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시몽은 도둑이 아니며, 그런 일에 대해 자신에게 말한 적도 없다는 듯했다.

참다 못한 라울이 소리쳤다.

“자, 대체 뭐란 말이야! 시몽 로랑이 나를 쫓아다녔잖아. 내 주변을 배회했던 말이야! 답해 봐, 파스틴!”

하지만 그는 돌벽에 부딪힌 듯했다. 파스틴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절망적인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며, 그녀는 손을 비비며 자신의 고통을 되뇌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어… 그런데 그는 죽었어… 다시는 볼 수 없어… 그는 죽었어. 누가 그를 찔렀지? 복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반드시 복수해야 해… 나는 맹세했어…”

그녀는 온 밤을 울며 보냈다. 멀리 앉아 있던 라울을 깨울 만큼 격렬한 복수 맹세들이 밤새 이어졌다.

아침이 되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례 미사 시간이었다.

“그분에게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제 우리는 그 시간, 클리닉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제 저는 혼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분을 복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겠어요.”

그때 라울은 혼란스러운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때때로 그는 쉼을 간절히 원했다.

영원한 은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젊었고, 모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다. 큰 뜻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 구석구석, 지중해 연안이나 노르망디, 사부아, 파리를 둘러싼 곳 어디든 그는 잠시 숨 돌릴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었다. 손이 닿는 곳에 쉼 곳을 둔 셈이었다.

그 오아시스 중 하나가 바로 베지네의 저택이었다. 그는 다른 소유자들처럼 그곳에도 옛 동료들을 불러들였다. 운전수를 겸하는 하인, 요리사, 그리고 정원사와 경비원을 두었다. 그는 과거의 공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평화로운 은퇴처를 제공했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다시 한 번, 원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치열한 싸움 속으로 내던졌다.

포기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던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움직여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는 어떻게 무고한 인물, 평화로운 베지네의 평범한 시민인 자신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아니 어쩌면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로 꾸며진 사건들과 얽히게 되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운명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답은 반드시 사실들 속에 숨어 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어떻게 그 사실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라울은 클레르로지스 집으로 들어가 일주일 동안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신문들만 꼼꼼히 읽었다. 그곳에서 그는 페리시앙이 최종적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라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었다. 그는 그 해답을 찾아 헤매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다. 온갖 험난한 길과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미로를 헤쳐 나갔지만, 결국 늘 장애물과 막다른 길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늘 같은 질문이 다른 형태로 되돌아왔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두 개의 비극이 서로 얹혀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왜 내가 그중 하나의 주인공이 된 거지? 왜 베지네의 은신처가 방해받았을까? 그리고 누가 방해한 걸까?’

그가 우연히도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날, 그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에게 답해야 했다.

“누구? 바로 페리시앵이잖아.”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치만, 생각해보니 맞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텔라트르 의사의 추천서가 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 그는 어디서 온 사람일까? 부모는 누구였지? 내가 모르는 사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준 건 아닐까?”

그는 주소록을 펼쳐 들었다. ‘텔라트르 의사, 알보니 광장.’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집에 있었다.

몸이 마른 노령의 의사, 텔라트르 박사는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와중에도 즉각 그를 맞았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그럼,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페리시앙 샤를은 대체 누구입니까?”

“페리시앙 샤를?”

“신문을 읽지 않으십니까, 박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페리시앙은 여섯 달 혹은 여덟 달 전, 제가 당신에게 추천해 준 젊은 건축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나요?”

“나? 아니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에게 추천이 왔던 거죠?”

“물론이었죠. 하지만 누구로부터였을까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기억났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하던 하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지만 총명하고 신중해서, 비서 역할도 약간 해줬던 남자였죠. 마지막 명함을 받고 당신의 주소를 적으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이 그 명함을 유심히 살펴보

더군요. 마치 그 글씨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히 맞습니다.”

“아베르니 경은 정말 품격 있는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예전에 그분을 모셨던 부모님을 위해 일했던 젊은 건축가를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일은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직접 타자기로 편지를 쳐서 나에게 서명하게 했다. 이것이 전부의 이야기였다.

라울이 물었다.

“그 하인은 더 이상 없습니까?”

의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내게서 꽤 큰돈을 훔쳤다는 걸 알게 돼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 녀석의 절망이 상상을 초월했어. ‘제발 의사 선생님, 저를 거리로 내쫓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정직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선생님 곁을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시 나쁜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 하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

“바르텔레미였습니다.”

라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바르텔레미에게 가족이 없었나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 다 썩 좋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날 그가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한 아들은 경마장이나 그르넬의 술집
을 배회하는 놈이었어요.”

“아들이 그를 보러 여기로 찾아왔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우연히 그를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
했습니다. 중산층 여성이었지만, 품위가 있고 왕비처럼 아름다운 분이
었죠. 그리고 열여덟 달 전,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반쯤
미친 듯이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부상자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 선생님?”

“별것 아닙니다. 이미 신문에서 다룬 이야기니까요. 화제는 알바르
라는 유명한 조각가의 일입니다. 작년에 살롱 전시에 출품해 화제를 모
았던, 그 유명한 ‘프리네’를 만든 작가 말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수사가 혹시 어두운 의도를 숨기고 있지
는 않길 바랍니다.”

라울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리를 떴다. 드디어 실마리의 끝을 잡은 것이다. 그는 이미 노 장로 바르텔레미, 코르시카 사람, 그리고 페실리앙 세 사람이 어떤 결탁을 맺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결탁이 페실리앙을 베지네로 향하게 만든 것이 분명했다.

조사를 마친 라울은 단 오 분 거리에서 살던 조각가 알바르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명함을 건넸다.

그는 넓은 작업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아직 젊고 외모는 우아했으며, 검은 눈이 아름다웠다. 그는 자신을 프랑스에 있는 예술품을 사러 온 수집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작업실을 어지럽히듯 가득 채운 미완성의 초상, 흉상, 몸통 조각, 윤곽선들 하나하나를 진정으로 식견 있는 전문가처럼 살피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조각가를 끊임없이 관찰했다. 이 조금은 여성스럽지만 세련되고 정교한 남자는 코르시카와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코르시카는 그를 사랑했을까?

그는 두 개의 작은 옥 인형을 매력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흰 천으로 덮인 받침대 위에 놓인 큰 조각상을 가리켰다. 천 아래로 그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팔지 않습니다.” 조각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유명한 프리네상입니까?”

“내가 그걸 볼 수 있겠소?”

알바르가 조각상을 발견했을 때, 라울은 곧장 탄성을 질렀다. 조각가는 그 소리를 경탄의 비명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놀람이, 거의 경악이 담겨 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 여성상은 파스티나 코르티나를 모델로 삼았다. 얼굴의 표정과 형상, 그리고 유연한 옷감에서 풍기는 선들이 모두 그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울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름다운 광경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런 여자는 세상에 없군.”

“이곳에 있습니다.” 알바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해석해낸 여자가 말이야. 사실, 올림푸스의 여신들이나 고대 그리스 창녀들이 지녔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그건 실재해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베껴낸 거죠.”

“뭐? 그 여자가 모델이었다니?”

“그냥 모델이었어요. 의뢰를 받고 촬영비를 받았을 뿐이죠.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미 제 동료 두 명에게도 모델을 맡겼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심하게 질투를 부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면 몰래 오겠다고, 연인을 괴롭히기 싫어서라고 했죠.”

“왜 모델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였죠.”

“연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연인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옷을 입고 있을 때, 연인이 제 작업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저를 때렸죠. 그녀는 근처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다시 만났나요?”

“요즘에야 알게 됐죠. 그녀는 연인을 잃고 상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저에게 돈을 빌렸고요.”

“다시 초상화를 그리게 될까요?”

“머리 부분만 필요할 때쯤이면 그리겠죠.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 강한 여성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라울은 아름다운 프리네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 그녀를 넘겨주지 않겠군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작품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열정과 신념으로 그린 작품은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겁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죠, 라울이 농담조로 말했다.

“저는 그녀를 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헛된 일이었지만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프리네는 제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제7장

몇 년 전만 해도 간판에는 ‘오프 마스트로케’라는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금 현대적인 ‘잔지 바’라는 글씨가 칠해진 페인트 층 아래, 일 부로는 아직도 그 옛 이름이 비친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렌엘의 서민적인 골목 끝자락이다. 공장들이 밀집한 한복판에 자리 잡았지만, 바로 옆으로는 우아한 센 강이 흐른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샹 드 마르까지, 파리의 가장 장엄한 풍경을 지나온 강물이 바로 여기서 만난다.

잔지 바는 이 동네에서 경마로 생계를 잇거나, 혹은 경마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풀장에서 베틱을 즐기는 상습 도박꾼들, 숨어서 도박 중개를 하는 책방, 그리고 예측 정보를 파는 상인들이 모인다.

정오가 되면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때가 가장 북적거린다. 오후 다섯 시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빚을 갚고 계산을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이곳은 사설 도박장으로 변한다. 때로는 싸움도 벌어지고, 대개는 술자리가 이어진다. 바로 그 순간, 토마 르부크가 제역을 부른다. ‘르부크’는 ‘베팅 중개인(Bookmaker)’을 줄인 말이다.

토마 르부크는 단호하게 베팅했고, 항상 이겼다. 술도 독하게 마셨지만, 쉽게 취하지는 않았다. 겉보기는 순해 보였지만 눈빛은 잔인했고, 머리는 차갑고 몸은 건장했다. 주머니는 항상 두둑했고, 신사의 차림새에 절대 벗지 않는 멜론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는 ‘사정을 잘 아는 남자’로 통했다.

무슨 사정일까?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격하고 난 뒤, 사람들이 보내던 존경심은 한 층 더 커졌다.

열한 시쯤 되었을 때, 한 남자가 주정뱅이처럼 굴뚝집 안의 한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풀려 있었다. 그는 최근의 과음으로 몸이 망가진 듯 보였다.

코팅이 벗겨지고 찌든때가 낀 외투였지만, 그 옷감의 질감만은 남달랐다. 고급 재단사의 솜씨를 짐작케 했다. 목에는 때가 탄 가발 칼라가 끼워져 있었다. 비록 더러웠지만, 그래도 가발 칼라였다. 손은 깨끗했고 턱은 면도기가 스친 듯 매끄러웠다.

결국 그는 몰락한 신사의 품모였다.

그가 주문했다.

“쿤멜 한 잔!”

주인은 경계하며 말했다.

“먼저 돈을 내고 마시지.”

남자는 지폐가 끼어 있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십 프랑짜리였다.

토마 르 부크는 망설이지 않았다.

“차액으로 포커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바로 자신을 소개했다.

“토마 르 부크.”

상대편도 같은 예의를 지키며, 약간의 영국식 억양을 섞어 답했다.

“‘신사’라고요? 하지만 저는 주사위 게임은 안 합니다.”

“대신 무엇을 하죠?”

“에카르테요.”

에카르테 결과는, 만약 아스(Poker)로 했더라면 나왔을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신사’는 재전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승부가 오간 끝에, 그는 결국 이백 프랑을 잃었다.

그 사이 그는 계산을 마치고 두 번째 쿠멜 리큐어를 삼켰다. 쿠멜 탕이었을까,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걸까. 그는 투덜거리며 불평했다. 그러더니 기어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발걸음이 자꾸만 비틀거렸다.

토마의 명승부에 박수가 터졌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몰락한 ‘신사’는 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는 분명히 ‘줄’이 있는 사내였다.

그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와, 또다시 이백 프랑을 잃고는 울상을 지으며 자취를 감췄다.

이틀 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심하게 취해 있었다. 카드를 제대로 돌릴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그가 무거워진 것은 은화 때문이 아니었다. 쿠멜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 중 몇 마디는 토마 르부크에게 너무도 기이하게 들렸다. 토마는 그를 위해 쿠멜을 세 잔이나 따라주었다. 자신도 똑같이 세 잔을 들이켰다. 다른 술과 섞으면 입에 대지도 않던 그 술을 말이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에밀 줄라 대로에 있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그대로 잠들었다.

눈이 번쩍 뜨이자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토마 르 부크는 정신이 맑아졌고, 더 뚜렷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팔을 들어 동무의 목을 감싸 안으며, 진지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잘 되고 있잖아, 동지? 그런데 너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서 감옥에 갈 만한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나? 감옥?” 신사가 애써 반박했다.

“그럼 그렇지! 그 카바레에서 자꾸 떠들던 ‘베지네 사건’이 뭐냐고?”

“베지네?”

“당연하지, 베지네. 경찰 사건이야. 신문에서도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어. 너 거기서 지폐를 훔쳤나?”

“대단히 뽀뽀하군.”

“안 훔쳤다는 거야?”

“아니. 누군가 내게 준 거야.”

“어떤 놈이?”

“베지네 출신 놈이?”

“아무튼, 너 베지네에 갔었나?”

“언제?”

“전쟁 전이었지.”

“제발 귀찮게 하지 마. 전쟁 전 지폐가 아니야?”

그들은 스무 분 동안이나 수군거렸고, 논쟁을 거듭한 끝에 신사는 마침내 이렇게 선언했다.

“맞는 말이야, 염소야. 그건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군.”

“열흘, 혹은 열이틀쯤?”

“그럴 수도 있지.”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어?”

“아,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염소야.”

“말해줄 수 없다고?”

“응, 그 남자가 금지했거든.”

“왜 그에게서 돈을 받았지?”

“보상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지.”

“무슨 일?”

“기억이 안 나.”

그들은 끝없는 대화를 나눴다. 두 친구는 아베뉴를 더듬거리며 걸어가 다른 바에 들어섰다. 젠틀맨은 루고가 두 잔의 쿠멜을 마시는 조건으로 또 두 잔을 들이켰다.

그들은 노래하며 다시 출발했고, 그렇게 선착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센 강변 아래쪽 도로로 내려갔다. 그곳은 바지선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젠틀맨은 모래 더미 사이에 쓰러졌다. 토마스는 자신의 얼굴을 씻은 뒤, 젠틀맨의 이마를 적셔주기 위해 손수건을 물에 적셨다.

그제야 젠틀맨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토마스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다. 그는 먼저 이 취한 자의 머릿속에 생각의 불씨를 지피려 했다.

“내가 설명해 주마. 베지네의 빌라에서 작은 회색 천주머니가 도난당했지. 그 주머니는 상당한 가치가 있었어. 주머니는 분실됐고, 그걸 찾아주면 오 장짜리 지폐를 주겠다고 했어?”

“아니, 점박이 넥타이를 맨 키 큰 남자가 아니었어?”

“아니야. 주머니도, 점박이 넥타이도 없었어.”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왜 오백 프랑을 줬다고?”

“오백 프랑을 준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천 장짜리 지폐 다섯 장.”

“오천 프랑!”

토마 르 부크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오천 프랑! 그런데
도 그는 진실을 붙잡지 못했다. 진실은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새어 나
갔다. 그의 술기운은 더 높아졌고, 어리석게도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발적인 고백이라기보
다, 억눌린 불평처럼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들어봐, 친구. 저놈들은 나한테 도둑처럼 굴었어. 바로 바르텔레미
와 시몬이랄까. 그래, 그놈들은 매번 내 계획을 배제하고 혼자서 움직
였지. 내게 말했어. ‘화물차 한 대 빌려서 샤투 다리가 근처에서 기다
려. 일이 끝나면 우리가 너에게로 갈게.’ 그런데 결국 그놈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 더 이상 그话题는 꺼내지 말자.
다른 일이 있어.”

어둠 속에서 신사는 한 손으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
떤 술기운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밤의 희미한 빛 속에서 토마
르 부크의 눈물범벅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다른 일이라고? 무슨 일이지?” 그가 속삭였다. “토마 르 부크, 대체
무슨 다른 일을 말하는 거야?”

“그들이 미리 짜놓은 계책이었어. 아주 치밀한 수였지. 나는 그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건 아니야. 그들이 그 계책을 누구를 상대로 짰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이름과 주소는 아직 모르겠어. 만약 알았더라면, 수백만 프랑을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수백만 프랑이라니. 아,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래……” 신사가 속삭였다. “만약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나를 도와주겠어?”

“물론이지.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사정을 정리해 주는 기관도 있고, 조사 대행사도 있거든.”

“너는 그런 곳을 알아?”

“물론이지. 내가 오천 프랑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야.”

“너는 그걸 한 남자가 시켰다고 하지 않았나?”

“한 기관의 놈이었어. 그러는 거야, ‘신사 쪽에서, 방금 붙잡힌 페리시엔이라는 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신다. 쫓아봐. 알아내면 돈은 또 주마’라고.”

토마 르 부크는 깜짝 놀랐다. 페리시엔이라는 이름이 그의 취기를 건드렸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 페리시엔이라는 자를 처리하라는 거야?”

“그래, 감옥에 있는 그 자야. 그리고 나 그 분을 직접 만나야 해.”

“오천 프랑을 주셨던 그 분?”

“약속이 있나?”

“그 분의 운전기사가 차를 타고 데려가주신대.”

“어디서?”

“콩코르드 광장, 스트라스부르 동상 앞.”

“언제?”

“사흘 뒤다. 목요일 오전 열한 시. 운전수가 신문을 들고 있을 거야.
네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겠지?”

토마 르 부크는 두 주먹으로 머리를 째 쥐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생각을 형태를 갖추게 하며, 이해하고, 확실히 알고 싶어서였다. 페리
시앙?... 오천 프랑을 준 그 남자는?... 바로 그 단서가 맞는 걸까?

그가 물었다.

“그 남자는 어디 사나?”

신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베지네에 산다고 하더군. 응. 베지네에 살고 있어.”

“이름도 알려줬지?”

“응. 사건 보도하면서 신문에 나왔어. 타브니… 아니면 아베르니 같은 이름이었지.”

신사의 목소리는 지친 듯 흐릿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르 부크는 온 힘을 다해 뇌속의 소음을 잠재우고, 뒤섞인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모호했다. 하지만 그가 들은 이야기 속에 있는 모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그는 어둠 속에서 두세 개의 선명한 빛을 발견했다. 그의 생각들은 그 빛들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모여들었다.

르 부크 옆에서 신사는 고개를 가슴에 묻은 채 잠들어 있었다. 무더위와 습기가 섞인 밤공기는 두꺼운 구름 장막 아래에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물 위에는 정박한 뱃불들의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검은 건물들의 줄기가 보였고, 트로카데로 광장의 웅장한 모습과 다리 아치들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광장에는 어느 누구도 지나가지 않았다.

토마 르 부크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신사의 재킷과 조끼 사이로 밀어 넣었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다. 결국 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손끝에 딱딱한 느낌이 닿았다. 지폐를 감싼 단단한 종이였다.

하지만 그 주머니는 영국 핀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열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힘을 주어 지폐를 빼내려 했다. 하지만 핀 끝이 손에 깊게 박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 순간 신사는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는 몸을 오므리며 저항했다. 르 부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모았다. 반면 상대는 빠져나오려는 손을 양 손으로 꼭 잡았다.

토마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항은 훨씬 더 치열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구조를 외치기 시작했다.

염소 할아버지는 겁이 났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상대를 흔들며 바닥으로 끌었다. 갑자기 상대가 지쳐서 손을 놓았다. 하지만 염소 할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술기운이 조금 가시자, 자신이 비밀을 털어놓았음을 깨달았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드디어 손을 떼어 내자, 두 사람은 강가 가장자리에서 격투기 선수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염소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신사를 밀쳤다. 신사는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섰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깜짝 놀라 벌벌 떨었다. 거의 자각도 못 한 채 행동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신사를 훔치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오천 프랑을 주겠다는 남자가 정해 준 만남을 막기 위해서였나?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신사는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하다, 결국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물속에서는 신사가 일 분 동안, 물살을 타고 헤엄쳤다.

‘야 Goat’가 자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그는 물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강변을 빠르게 따라갔다.

그는 그네르 교각 조금 앞에서 강변에 올랐다.

운전원이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옷을 갈아입고, 베지네로 향했다.

제8장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다음 날 라울은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났다. 판사는 평소처럼 매우 좋은 기분이었는데, 이는 로셀랭 판사가 해결을 거부하는 사건을 결국 종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눈치챌 때마다 항상 드러나는 태도였다.

“잘 들어보시오.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는 말하지 않았소. 천만예요. 여전히 매달릴 구석이 있고, 확인해야 할 단서도 남아 있소. 구소또는 매우 자신만만하지만, 나는 탑 꼭대기에 올라서서 기다리는 수녀 안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소.”

“바르텔레미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체에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던 모습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모호한 이미지일 뿐이죠. 게다가 바르텔레미는 어두운 곳만 다녔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죠. 누군가 그의 사진을 보고도, 자신에게 불리해질까 봐 침묵할 겁니다.”

“바르텔레미와 시몽 로랑 사이에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몽 로랑은 가명을 썼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사를 통해 그가 특정 계층과 어울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죠. 심지어 한 신문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모호해. 특히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 저 사람들은 분명히 몸을 숨기며 자주 신분을 바꾸곤 했지.”

“그리고 내 젊은 건축가는?”

“펠리시앙 샤를? 그쪽도 의문투성이야. 서류도 없고, 신분 증명도 없어. 군적부는 정돈되어 있고 신상 정보도 정확하지만, 출생 연도와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오직 ‘무(無)’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

“그런데 그 남자의 대답은 어땠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자신의 과거에 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어.”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습니다.’라고요. 제가 ‘그렇다면 이것과 저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 그는 ‘설명할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그가 편지를 받은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편지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그의 삶과 과거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친구가 그와 그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는 그가 잠시 머무르고 있던 가족형 Pension(펜션)의 주소였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자 그가 찾아왔을 뿐입니다.”

“아베르니 경,” 루셀랭이 결론을 내렸다. “펠리시앙 샤를을 둘러싼 분위기는 늘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라울은 클레마티스 집 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그녀가 정원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정말 그곳에 있었다. 집 앞자리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는, 아직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조금씩 외출을 시작했던 제롬 헬마스가 긴 의자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많이 야위었다. 검은 다크서클이 진 눈과 오목해진 볼은 그의 피로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라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젊은 여성이 많이 변해 있음을 느꼈다. 외모보다 정신적인 변화가 더 컸던 것 같았다. 그녀는 어디론가

몰입한 듯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라울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답하지 않았다.

제롬은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곧 떠날 것이라 밝혔다. 의사들이 여름을 산에서 보내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베제네에서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곳은 그의 고통을 되살리기 일췌였으니까.

어느 쪽으로든 발길을 돌릴 때마다 드아베르니는 같은 장벽에 부딪혔다. 먼저 사건 조사가 정체되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침묵과 불신만 가득했다. 페리시앙 샤를, 파스틴, 롤랑드 가베렐, 제롬 헬마스. 모두 자신들만의 비밀을 품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감정을 털어놓지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 큰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토마 르 부크는 과연 올 것인가?

그는 진심으로 ‘신사’의 정체를 알아차렸을까? 그리고 그가 ‘클레르 로지’로 자신을 이끌려던 그 어정쩡한 태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틀 동안 그의 머리는 더 맑아졌을 텐데. 함정을 간파하지 못했을까?

다베르니는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정해진 시간에 그는 운전사를 보내, 정해진 장소로 보냈다. 토마 르부크는 술주정뱅이의 헛소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 장소에 꼭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이유가 르부크를 움직일 것이었다. 그는 젠틀먼을 죽였다. 그의 죄값으로 피해자 주머니에서 거둬들인 몇 장의 지폐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범죄가 다른 대가를 가져오길 원하지 않을까?

소리가 났다. 라울은 그 엔진음을 알아챘다. 차가 정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라울은 곧장 서재로 들어가 지시를 내리고는 기다렸다. 그가 간절히 바랐고, 그토록 노력해 마련한 만남이 이제 막 시작되려 했다.

아르센 뤼팽을 음모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인물, 토마 르 부크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바르텔레미와 시몽이 꾸며 놓은 계획의 실행을 계속하고 있는 자였다.

라울은 권총을 바지 주머니에서 재킷 주머니로 옮겼다. 손이 닿기 쉬운 곳이었다. 필요한 조치였다. 그 인물은 위험했기 때문이다.

종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라울이 말했다.

문이 열렸다. ‘염소’가 들어왔지만, 이전의 그 ‘염소’는 아니었다. 계층이 한 단계 높은 사내였다. 옷은 깨끗했고, 바지 주름도 또렷했다. 머리에는 상태가 양호한 모자가 쓰여 있었다. 그는 허리를 쭉 펴고, 다리에 힘을 주어 단단히 서서, 가슴을 내민 채 똑바로 섰다.

두 남자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라울은 단번에 확신했다. ‘염소’는 자신을 잔지바의 신사가 아니라, 물에 던져버린 신분을 잃은 자로만 보고 있었지, 클레르로기의 주인 라울 다베르니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라울이 물었다.

“당신이 제가 대리점을 통해 의뢰한, 페리시앙 샤를의 삶을 재구성해 줄 사람 맞습니까?”

“어이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한 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온 거요?”

토마스가 물었다.

“우리 둘만 있는 거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겠지?”

“방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내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들려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요.”

“아르센 뤼팽.”

염소 수염을 가진 남자가 그 두 단어를 큰 소리로 내뱉었다. 마치 그 말 한마디로 상대를 경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듯했다. 이미 그는 적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공격이 시작된 셈이었다. 그의 어조와 태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뤼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자리에서 파스틴이 그와 같은 이름으로 그를 부른 적이 있었고, 파스틴은 시몽 로리앙과 마찬가지로 토마 르 부크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르센 뫼팽을 만나러 왔다면, 딱 맞는 곳에 오셨소. 내가 바로 아르센 뫼팽이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겠죠.”

라울의 예상치 못한 차분함에 토마 르부크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다른 공격 방법을 모색했다.

라울은 종을 불렀다. 운전 기사가 들어왔다.

“저 사람에게서 모자를 벗겨내시오.”

르부크는 그 교훈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하인에게 건넸고, 하인은 그것을 가져갔다. 그리고 곧바로 화가 치밀어 오르며 비꼼으로 외쳤다.

“대귀족 같은 태도군요, 하필? 그래, 아르센 뤼팽… 옛 귀족 가문이지… 항상 주머니 속에 작위 하나쯤은 품고 다니는 법이죠. 다 제 성미에 안 맞습니다. 저는 대귀족도 아니고 작위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단계 내려와 주시죠. 그래야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기침을 하며 땅에 침을 뱉지 않으려 참았다. 그러곤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당황했지? 하긴, 후작이나 공작 같은 귀족들과 상대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녀석을 마주친다면 누가 당황하지 않겠나.”

라울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후작이나 공작을 상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하지만, 돼지 장수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지?”

“뤼팽 식으로.”

라울은 손짓으로 그의 입에서 담배를 튕겨냈다. 그리고 곧장 물었다.

“자, 이제 말해라. 나는 시간이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돈이야.”

“얼마나?”

“십만 프랑.”

라울은 놀란 체하며 말했다.

“십만 프랑? 내게 엄청난 제안을 할 일이 있나 보군.”

“그럼 이건 협박인가?”

“그렇지.”

“즉, 강요라는 뜻이지?”

“바로 그거야.”

“즉, 내가 돈을 안 주면, 나를 해치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문서는?”

“당신을 고발합니다.”

라울이 고개를 저었다.

“잘못 계산했군. 그런 경우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당신은 움직일 거야.”

“안 돼. 그럼 어때?”

“그럼, 형무소에 신고할 거야. 베지네 사건과 범죄에 연루된 라울 다 베르니 씨가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고 밝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뤼팽,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백만 프랑은 받을 수 있는 거야?”

라울이 어깨를 으쓱였다.

“바보 같군. 내가 움직이려면 자유로워야 하고, 내가 나에게 해칠 수 있는 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미 다 정해졌어.”

“뭐?”

“펠리앙.”

“그를 향한 증거가 있어? 그가 절도 사건의 공범이야? 살인의 공범이야? 징역형? 사형?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걸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 사람에게 대해 알아보는 데 오천 프랑을 썼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에게 관심 따위 하나도 없어. 알아?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페리에앙? 바로 나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라울은 그 남자의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낮고 쉼 목소리였다. 그는 살짝 불안해졌다.

“왜 웃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득 떠오른 기억이랄까.”

“어떤 기억?”

라울의 불안은 사그라졌다. 드디어 과거의 어떤 것이 표면으로 떠오를 것 같았다. 그는 이 어둡고 복잡한 일 속에 자신을 끌어들이게 된 이유를 곧 알게 될 것만 같았다.

“어떤 기억이야? 말해 봐.”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텔라트르 박사를 알고 있나?”

“그건 바로, 네 동료가 과거에 납치해 지방의 한 여관으로 보낸 사람 이야. 그곳에서 네가 죽어가자 그가 수술을 해 너를 구한 거잖아, 그렇지?”

“아, 그 옛날 일을 다 알고 있구나.” 라울은 꽤나 놀란 눈으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텔라트르 박사가 젊은 페르시아를 네게 추천한 게 맞지?”

“텔라트르 박사는 그 의뢰인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 그 추천장은 박사의 하인, 바로 오렌지 정원 사건에서 죽은 바르텔레미가 작성했거든.”

“그건 이미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너는 이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 바르텔레미가 페르시아를 네 집에 들여보낸 거야.”

“페르시아와 사전에 의논한 거지?”

“물론이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꾀를 부린 거야?”

“네가 돈을 내게 하려는 거지.”

“그런데 바르텔레미는 죽고, 펠리시엔은 감옥에 갇으니 계획은 실패한 셈이야.”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점이 내 방문의 숨은 뜻이지.”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대체 무슨 일인데?”

“잠시만요. 이야기를 거꾸로 들려주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대략 15년 전부터 바르텔레미는 페르시아의 삶을 멀리서 지켜봤습

니다. 당시 페리시앙은 건축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 전에는 식료품점 점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관청에서 일했고, 그전에는 지방의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바르텔레미가 푸아투 지방의 한 농가에서 페리시앙을 처음 만났던 시절에 닿습니다. 페리시앙은 그곳에서 농장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라울은 이 이야기에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결국 어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페리시앙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겠죠. 조사 과정에서 밝히기를 거부했다고는 하지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텔레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인가?”

“양계부인 덕분이었지. 남편이 막 죽은 직후였는데, 바르텔레미는 곧 그 여자와 친구가 되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비밀리에 이야기해 줬지. 예전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데려와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대겠다며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거야.”

라울 다르베니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건 몇 년 전 일이었나?”

“난 몰라.”

“그 여자에게선 알 수 없었나?”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바르텔레미는 알았잖아!”

“그도 죽었지.”

“하지만 그는 말했어. 네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응, 한 번 이야기해 줬어.”

“그럼 설명해 봐. 그 여자? 아이의 어머니였나?”

“아니, 어머니는 아니었어.”

“어머니가 아니었다니!”

“아니, 그 여자는 아이를 납치한 거야.”

“왜?”

“복수를 위해서라고 했지.”

“그 여자가 어땠느냐?”

“매우 아름다웠다.”

“부유했나?”

“그렇지 싶었다.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라울의 초조함이 더해졌다. 그가 외쳤다.

“제발, 단서라도 주었느냐? 아이 이름이라도? 페르시앙이라고?”

“페르시앙은 농부가 그렇게 부르던 이름이었지. 페르시앙 샤를, 두 개의 이름이었어. 농부는时而 하나,时而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불렀지.”

“하지만 진짜 이름은?”

“농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농부는 다른 것도 알고 있었겠지?” 라울이 다시 소리쳤다.

“아마도…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너 거짓말하고 있군. 분명히 거짓말이야. 농부는 다른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말했지.”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바르텔레미는 그녀와 사귀는 동안 뒤를 쫓았지. 차는 마을을 나온 지 십 킬로미터쯤 갔을 때 고장 났어. 근처 도시에서 그녀는 교체 부품을 기다리며 차를 세웠고, 수리 공방에

서 기계공이 쿠션 밑에 숨겨둔 편지를 발견했지. 그 여자의 이름은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었어.”

다베르니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라고?”

“그 편지는 결국 어떻게 됐지?”

“바르텔레미가 기계공에게서 빼앗았지.”

“네가 직접 봤다는 거야?”

“바르텔레미가 읽어주었어.”

“그래서 기억나?”

“글자 그대로는 아니야.”

“그럼 뭐가?”

“한 명의 이름이지.”

“누구?”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 한 순간도 망설이지 말고.”

“라울.”

라울이 그 남자에게 덤벼들며 어깨를 움켜쥐었다.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맹세합니다.”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거야. 라울,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프랑스에는 백만 명의 라울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울 드 리메지요… 당신처럼 말입니다, 라울 다베르니. 뤼팽스럽기 그지없는 이름이죠.”

라울이 비틀거렸다. 그는 과거에 라울 드 리메지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끄적했던 과거의 한 시절이 고스란히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펠리시앙이?

그는 그런 추측에 격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이군요. 넌 아무거나 억지로 만들어내죠.”

“리메지라는 이름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알려준 거야?”

“바르텔레미가요.”

“바르텔레미는 사기꾼이었어. 난 그를 알지 못해. 그 역시 나를 알지 못했고.”

“설마요.”

“그가 당신의 부하로 일했던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의 옛 동맹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르텔레미?”

“그가 그 이름으로 불린 건 아니야.”

“그럼 대체 무슨 이름이었지?”

제9장

라울은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모험적인 삶이 시작되던 초기, 오귀스트 데일론은 그에게 가장 활약하는 공범 중 한 명이였다. 라울은 그를 의심 없이, 자신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들에까지 참여시켰다. 하지만 내각 총리직 사건 이후로, 그는 데일론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오귀스트 데일론은 바르텔레미가 되어, 옛 상전인 라울을 겨냥해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이었다.

라울의 태도를 보고 토마르 르 부크는 더 큰 용기를 내었다. 승리를 확신한 그는 선언했다.

“이제 이십만 프랑입니다. 단 한 수프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더 친근하면서도 상냥한 어조로 설명했다.

“이해가 가겠지? 네가 직접 돈을 내야 할 때는 거부했잖아. 하지만 아들의 일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만약 네가 30만 프랑을 주

지 않는다면……(나는 정확히 30만 프랑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정도 가치는 분명해)—판사에게 페리시앙의 과거에 대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폭로할 거야. 그리고 a+b처럼 명확하게, 그가 라울 드아베르니의 아들, 다시 말해 아르센 뤼팽의 아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어. 일석이조의 멋진 작전이지? 드아베르니는 곧 뤼팽이고, 페리시앙은 바롱 드 리메지라는 가명으로 미들모아와 결혼했던 뤼팽의 아들이야.”

라울이 고개를 들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입 다물어.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해.”

하지만 라울은 그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클레르 드티그에 대한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연애, 그리고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조제핀 발사모에 대한 광기 어린 열정.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 여인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그는 드디어 클레르 드티그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말은 어땠을까?

다섯 해가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미망인 기록부에 정식으로 ‘장 드 리메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산욕사로 숨진 어머니를 뒤로한 채 아이는 사라졌다.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의 사주들이 아이를 납치해 간 것이다.

그때 그 장 드 리메지가 바로 그 무서운 여인이 푸아투의 농부 아내에게 맡겼던 아이였을까? 가혹한 증오와 복수의 영혼을 지닌 그 여인

이 말이다. 클레르 디티그를 기억하며 그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장이, 바로 그와 결탁해 자신을 배반하려던 어둡고 의심스러운 페리시앙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자신의 아들, 바로 자신의 혈육이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칼리오스트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찌라는 거지? 아이는 죽지 않았어. 페리시앙이니까.”

“증거라도 있는가?”

“법정이 찾아낼 거야.” 르부크가 비웃듯 말했다.

“증거라도 있는가?” 라울이 되물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바르텔레미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았어요. 그老头에게는 평생 한 번 있는 대역전이었던 거죠. 아이를 당신에게 맡긴 이상, 당신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일도, 사실 그는 더 큰 기쁨으로 직접 해보려 했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쫓아냈을 테니까요. ‘파산에서 나를 구해내라. 안 그러면 당신과 아들을 경찰에 넘기겠소.’ 당신과 아들 말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인가?” 라울은 세 번째로 물었다.

“바르텔레미가 그 증거들을 모아둔 봉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년간 이어진 조사 끝에 모은 것들이죠.”

“그 봉투는 어디에 있나?”

“그가 시몽의 애인인 코르시카 여자에게 건넸을 거라고 봐요. 둘은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 여자를 볼 수 있나?”

“보기 어렵소. 그 남자가 죽은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거든. 게다가 경찰이 그 여자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라울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종을 눌러 하인을 불렀다.

“점심 준비는 끝났나?”

“네, 각하.”

“식탁에 접시를 하나 더 놓아라.”

그는 르 부크를 이끌고 식탁으로 들어섰다.

“앉으라.”

당황한 르 부크는 어쩔 수 없이 따라 앉았다. 그는 이미 거래가 성사된 줄로 알았다. 다만 자신이 정하고 싶은 액수, 사십만 프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할지 말지 망설일 뿐이었다. 뜻밖의 공격에 무너져 내린 라울 드 아베르니는 결코 값을 깎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라울은 거의 먹지 않았다. 상대가 예상한 것처럼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매우 불안했다. 문제는 끔찍할 정도로 복잡해 보였고, 그는 특정 해결책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문제를 온갖 각도에서 되새겼다.

사실 문제는 두 가지였고, 따라서 해결책도 두 개였다. 폐실랭과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야 했고, 더 시급하게 토마 르 부크의 매우 심각한 위협에 대처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또 한 시간 반 동안 침묵이 흘렀다. 르 부크는 하바나 담배 상자에서 고른 굵은 시가를 입에 물고 안락의자에 기대어 여유롭게 피우고 있었다. 라울은 손을 등 뒤에 꼬고 생각에 잠겨 안을 오갔다.

마침내 르 부크가 입을 열었다.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오십만 프랑 이상으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소. 이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지. 게다가 내 준비는 완벽해. 만약 당신이 나쁜 짓을 꾀한다면, 고발장은 이미 동료가 우편함에 던져놓았을 테니. 그러니 조용했소. 당신은 함정에 갇혔소. 값짓지 마시오. 오십만 프랑. 그 이하의 돈은 필요 없소.”

라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해 보였고, 전보다 훨씬 덜 초조해 보였다.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어떤 말도 그를 흔들 수 없는 태도였다.

열 분쯤 지나자 그는 책상 위의 작은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전화기 앞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고, 호출 디스크를 돌렸다. 연결이 되자 그는 물었다.

“경찰청입니까? 루셀랭 씨의 사무실로 연결해 주시오.”

그리고 곧이어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여기, 라울 드 아베르니입니다. 검사님,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 집에 바로 옆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베지네에서 벌어진 비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입니다.

아직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처지가 이러니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로! 네, 맞습니다. 검사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주사관 고소트 경감으로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결코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바닥에 엎드려 묶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라울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토마 르 부크는 점점 더 큰 놀람에 휩싸여 듣고 있었다. 그는 창백해져서 알아보기도 힘들 지경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미쳤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자수한다니? 그럼 너도 자수하는 거고, 페실랭도 자수하는 거야.”

라울은 듣는 체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행동을 취했고, 토마 르 부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속 움직였다. 마치 토마 르 부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은 라울 다베르니의 문제지, 토마 르 부크의 문제가 아니었다.

분노한 토마 르 부크는 총을 꺼내 조준했다.

“미친놈은 그냥 쏘버리면 돼.”

하지만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아베르니 백작을 죽인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라울 드 아베르니 백작이 레 부크를 함께 태워 죽이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폭할 리가 없었다.

그것은 블러핑이었거나, 오해였거나, 아니면 실수였다. 어쨌든 상황을 설명할 충분한 시간, 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두 번째 시가를 피워 물며 농담조로 말했다.

“잘했네, 뤼팽. 확실히 넌 네 명성에도, 바르텔레미가 내게 말한 이야기에도 뒤지지 않아. 천하의 명수다, 이 멋진 반격은!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자, 생각해 봐, 뤼팽. 설령 네가 나를 넘기더라도, 네가 넘기는 건 동료를 협박하려다 걸린 한 사내일 뿐이야. 그 대상은 바로 아르센 뤼팽이지. 결국 이 장난의 명예를 지는 건 네가 돼.”

“왜냐하면, 넌 나를 모르잖아! 내가 경찰을 무서워할 리가 없어. 나? 나는 얼음장처럼 깨끗해. 작은 죄정쯤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라울이 물었다. “그럼, 왜 네 얼굴이 초췌한 거지? 왜 시계를 노려보는 거야?”

“나도 너만큼은 아니야, 친구. 내가 정직한 사내라고 말했잖아.”

“그럼 돌아서 봐, 정직한 사내. 이 열쇠를 받아서 서랍장을 열어 봐. 좋아. 그 선반 위에 파일이 하나 보이네? 그걸 내게 줘. 고마워. 나한테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혹은 거의 그런 파일들이 몇 개 있어. 네 파일은 그중 하나에 들어 있어.”

라울은 P, Q, R, S, T..... 이렇게 이니셜을 차례로 열거하며 찾아보았다.

“이제 찾았군. 넌 T 칸에 속해.”

“T 칸?”

“물론이지. 넌 토마스로 분류했어.”

그가 파일을 집어 들고 큰 소리로 읽어 나갔다.

“토마르 르 부크, 즉 토마르 베틱 중개인. 키 1미터 75. 가슴둘레 95. 빗자루 같은 수염. 이마가 벌거숭이. 표정은 저속하고 때로는 야수적이다. 주소는 그르넬의 아르데우 거리 24번지. 거기서 그는 정육점 여자의 애인 노릇을 하며 그 위층에 산다. 좋아하는 향기는 흰 라일락. 서

랍 속에는 하늘색 실크 팬티 두 벌과 같은 재질의 양말 네 켤레가 들어 있다.”

“이제 알겠지, 토마르 르 부크?”

토마르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라울이 말을 이었다.

“토마르 부크는 화가 시몽 로리앙의 형제였다. 두 사람은 모두 ‘오랑제리 절도범’으로 알려진 노년 바르텔레미의 아들이었다.”

토마르 부크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경찰이 곧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네 집이나, 정육점, 아니면 자주 드나드는 잔지 바에서라도 말이다.”

“그리고서 어떻게 할 거야?” 르 부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다. “그게 뭐가 어때서?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至少要 감옥에 보내는 정도는 된다.”

“그럼 너도 같이 가자는 말이냐!”

“아니, 그런 건 내가 법정을 위해 준비한 전과 기록의 일부일 뿐이야. 아주 피상적이고 사소한 부분이지. 그건 가니마르 형사가 올 때까지 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겠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슨 말인가?” 르 부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비밀스러운 삶이야. 내가 저지른 몇몇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내가 경찰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단서들. 나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토마 르 부크는 굳은 손으로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천천히 뒷문, 즉 정원과 차고가 보이는 쪽으로 물러서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거짓말일 뿐이야! 뒤펽식 궤변이지. 진실인 말은 하나도 없어. 증거도 없잖아.”

라울이 그에게 다가가,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브라우닝은 내려놓아. 도망치려 하지 마. 우리는 싸우지 않아. 그냥 이야기할 뿐이야. 아직 열다섯 분이나 남아있지. 들어봐. 사실, 난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어. 하지만 구소와 그 동료들이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 알겠지?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단 사흘뿐이야. 그리고 이걸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지!”

토마 르 부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범죄는 너무 최근의 일이어서, 그는 잊지 못하고 있었다. 라울은 계속 말했다.

“너는 잊지 않았지. ‘신사’라고 불리던 그 착한 청년을. 그가 일하던 기관이 내 부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그 자리에 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가 원해서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대리점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 남자를 본 사람이 사흘째 없다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일요일 밤 이후로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섰죠. 그러다 당신의 본거지인 잔지 바에 다다랐습니다. 일요일 밤, 두 분은 함께 나가셨더군요. 술에 폭 취한 채로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고요.”

“그게 뭐가 증명된다는 거죠?”

“증명됩니다. 당신과 그 남자가 선창가에서 마주친 것을 목격한 증인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두 분이 센 강가를 따라 걷는 모습이 들렸죠. 싸우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이 증인들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염소 수염 남자는 항의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물었다면, 이 보이지 않는 증인들은 왜 개입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는지 따져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숨이 턱 막혀 올 뿐이었다.

“그럼 그렇지, 라울이 숨도 못 쉬게 쫓아붙였다. “이분들께 동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익사했는지 설명해야 할 거야. 분명히 익사했지. 어제 밤 시체가 발견됐거든. 조금 더 떨어진 곳, 시뉴 섬 근처 강가에서 말이야.”

산양수염 남자는 소매 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분명히 그는 살인 직후의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술에 취해 허둥지둥 애를 쓰다가 검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 광경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변명을 시도했다.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본 사람도 없어.”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신사는 이미 본사와 동료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이렇게 말했죠.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토마 르 부크라는 자를 심문하세요. 저는 그자를 의심합니다. 그자는 그네르의 잔지 바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흔적을 찾아냈죠.”

라울은 자신의 적에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저항할 여지는 없었다. 토마 르 부크는 라울의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는 무력 상태에 빠졌고, 라울의 강압적인 의지가 그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제 명령하는 대로 아무 반론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는 범죄자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명령하는 자, 즉 지도자의 앞에 선 한 인간이 겪는 패배감이 더 컸다.

라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강제로 앉혔다. 그리고는 다정하면서도 너그러운 어조로 말했다.

“도망치려 하지 마, 그렇지? 내 하인들이 여기 있어 네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 뒤펅과 맞서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믿어. 하지만 내 말을 듣는다면, 넌 좋은 조건으로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어. 단, 네가 내 지시를 따르고 불평하지 않아야 해. 담대함과 정직함이 필요해. 대답해 봐. 전과가 없지?”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더러운 일은 없지?”

“알려진 전과는 하나도 없어.”

“누구도 너를 의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너를 고발할 수 없지?”

“신체 측정 기록이 신분 증명국에 없지?”

“그걸 맹세하겠어?”

“맹세해.”

“그렇다면, 넌 바로 내 필요에 맞는 사람이야. 몇 분 후, 구소와 그의 동무들이 도착할 거야. 넌 잡히는 대로 잡혀.”

“염소”가 두려움에 떨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버티었다.

“당신이 미쳤어요!”

“경찰에 잡히는 게 뭐가 문제야. 이미 내게 잡혔잖아. 그쪽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지. 그냥 손이 바뀌는 거야. 오히려 네가 내게 은혜를 입는 거라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토마 ‘염소’의 눈이 번뜩였다.

“물론이지. 그리고 이런 큰 은혜는 값비싸게 치러야 해. 정말로. 페리시앵이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그 아이를 직접 심문해야 해. 꼭 봐야 해. 설령 내 아들이라 해도, 내가 그를 감옥에 가둘 리 없잖아.”

“그걸 막을 도리는 없군.”

“있지. 경찰이 가진 건 추측뿐이야.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 네가 잡히고 자백하면, 그들의 혐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자백?”

“바르텔레미 노인이 절도 행각을 벌인 그날 낮, 그리고 네 동생 시몬이 부상을 입은 밤, 넌 뭘 하고 있었니?”

“그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밴을 한 대 렌트해 두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샤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자정이 조금 지나,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한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좋아. 네가 돌아온 시간을 증명할 수 있겠니?”

“네, 렌트한 밴을 차고에 반납했고, 야간 경비원とも交談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한 시가 조금 지난 무렵이었죠.”

“좋아. 그다음은 재판부에게 똑같이 말해라. 샤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자정 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베지네의 오랑제리 쪽을 배회했다고. 그다음 연못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가서 보트를 끌어당겼고, 오랑제리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다고.

바르텔레미 노인과 시몬은 보이지 않았고, 대로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럭으로 돌아왔다고. 그거면 충분해.”

토마 르 부크는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천만하군. 내가 공범이라고 누명을 쓰게 될 거야. 좀 생각해 봐. 오랑제리와 보트 타는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나 다름없잖아.”

“수동적 공모. 징역 6개월. 하지만 네게 가장 중요한 건, 네 형과 제롬 헬마스가 습격을 당했을 때 네가 이미 파리로 돌아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네가 알아서 잘 꾸며주겠지. 하지만 난 2~3년은 더 먹어야 할 거야. 반면 페리시엔은 석방되겠지.”

“그게 바로 핵심이야. 수사가 더 이상 페리시엔이 보트에서 목격된 인물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네가 은행권을 찾으러 오랑제리 주변을 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페리시엔에 대해 이미 모은 그 미약한 혐의들은 무너지게 되거든.”

마지막 망설임 끝에 르부크가 입을 열었다.

“좋아. 다만…….”

“다만?”

“모든 건 가격에 달려 있어.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너는 네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거야.”

“얼마나?”

“펠리시안이 석방되는 날, 십만 프랑. 너의 석방 날에도 십만 프랑. 두 금액을 한꺼번에 타게 되지.”

르부크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백만……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건 정직하게 사는 데 필요한 돈이야. 그 돈이면 지방이나 해외에서 정육점을 장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뤼팽의 약속은 프랑스 은행의 서명과 같은 가치를 지니거든.”

“믿어요. 하지만 어쨌든 complications(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만약 제 과거의 어떤 사실이 밝혀져서 제가 구치소에 보내진다면요?”

“내가 너를 탈출시켜 주마.”

“그건 불가능해요!”

“바보야! 네 아버지가 상원 집행관으로 일할 때 내가 고발했잖아. 내가 직접 날짜를 정해서, 파리를 배경으로 공개적으로 그를 탈출시켰는데.”

“그건 맞지. 하지만 넌 탈출할 돈이 충분해?”

“아이 같아.”

“탈출은 돈이 많이 들어.”

“걱정 마.”

“천만, 억만 원이 필요해. 탈출 비용과 내가 약속한 보너스까지 합치면 엄청난 액수야. 정말 확신해?”

“다시 돌아서 봐. 내 서랍장 깊숙한 곳, 서류철이 놓인 선반에 손을 넣어봐. 됐어?”

토마 르 부크는 말대로 따라했다. 그리고 회색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이게 뭐야?”

“회색 천 주머니예요.”

“봐. 천에 칼집을 내봤어. 지폐 뭉치가 보이니? 이 돈은 온게브레 백작의 것이야. 바르텔레미 노인이 오랑제리에서 찾아낸 거지.”

수염이 굵은 남자, 즉 ‘수염’이 균형을 잃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젠장! 젠장! 저 녀석,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군!”

“살아남으려면 그래야지. 라울이 비웃듯 말했다. ‘동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간단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시몽 로리앙이 정원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가방을 다시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누군가 그걸 되찾으려다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친 곳으로 바로 달

려갔지. 내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어. 가방은 잔디밭 한가운데로 굴러가 있었고,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었지.”

토마 르 부크는 깜짝 놀라 경어체를 쓰며 말했다.

“아, 당신은 정말 수장님이시군요.”

그는 자발적인 제스처로 주먹을 쥔 두 손을 내밀었다.

“경찰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저를 묶어 주세요, 수장님. 당신이 옳아요. 저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지나간 길을 아들도 똑같이 걸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건드린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그건 사실이야. 네 아버지는 예전엔 착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들었지만, 그는 다시 정직한 사람이 되려 불가능한 일도 시도했단다.”

“그래, 하지만 페리시앙 사건이 그를 괴롭혔지. 시몽이 그에게 다시 그 일을 하라고 강요했고, 더군다나 오랑제리 사건을 시도하게도 했어. ‘도둑질은 좋겠군, 알겠어.’ 그가 말했지. ‘협박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테니까. 하지만 살인은 안 돼, 알았지?’”

“그런데도 그는 죽었어. 엘리자베트 가브레를 목 졸라 죽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상사? 음, 그 늙은이는 실수로 죽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쫓았죠. 그녀가 물에 빠졌으니까요. 네, 구하기 위해요. 그 늙은이는 그런 식으로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진주 목걸이를 보고 미쳐버렸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울이 말했다.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라울이 다시 말을 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진짜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마. 총리 시절의 옛날 이야기와 오늘의 사건이 섞이면, 다시 뤼팽의 주목을 받게 돼. 나는 그걸 원치 않아. 내 상황은 이미 충분히 어렵거든. 그러니 신중해. 우리가 정한 설명에서 단 한 줄도 벗어나지 마. 그 밖의 말은 절대 하지 마. 막막할 때는 침묵이 가장 좋은 답이야. 나를 믿어, 친구.”

그는 그에게 다가가 친근한 어조로 덧붙였다.

“한 마디 더. 네가 죽인 ‘신사’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아, 왜요?”

“그 신사는 바로 나였으니까.”

토마 르 부크는 가니마르 형사의 손에 이끌려 마치 환상 속에 빠진 듯했다. 회색 천주머니가 사라진 일, 그리고 뤼팽이 ‘신사’ 역을 얼마나

대담하고 완벽하게演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한 기쁨. 이 모든 것이 그를 환희로 들뜨게 했다.

이런 보호자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는 모든 것을 뒤집으려 클레르로지스에 도착했지만, 이제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 자처럼, 그리고 그 승리를 한층 더 높여 정의의 심판을 장난감 삼고 은혜에 보답할 준비를 마친 자처럼 걸어갔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베르니 님.” 기쁨에 넘친 얼굴로 가니마르 형사가 라울에게 말했다. “그 손님이 우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셈이군요?”

“당연하지! 그는 시몽 로리앙의 형제야.”

“뭐라고? 형제라니! 대체 어떻게 그를 사로잡았단 말인가?”

“아, 그건 별것 아닙니다.” 라울은 겸손하게 말했다. “저에게 큰 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보 같은 놈이 스스로 발각되었으니까요.”

“그가 무엇을 원했지?”

“저를 협박하려 했죠.”

“무슨 일로?”

“페리시앙 샤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페리시앙이 자신의 형제인 시몽 로리앙의 공범이라고, 시몽을 죽이고 회색 천가방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주려면 거금을 주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루셀랭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니마르 형사님, 그 남자를 심문해 보세요. 형사님의 공로와 명성이 될 자백을 반드시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문턱에 서 있던 토마르 부크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돌아섰다. 라울을 향해 분노와 원한을 억지로 드러냈다.

“이건 꼭 갚아 주게, 잘난 척하는 친구!”

“물론이지. 이자도 포함해서.”

라울은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 출발했다.

그는 평소처럼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는 제스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토마르 부크를 감옥에 보내다니, 정말 멋진 성과가 아니던가.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감옥 감방에 갇힌 페리시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을까? 그를 구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애매모호한 ‘아들’이란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바르텔레미와 시몽 로랑티의 사악한 공범자라니.

제10장

덥고 무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일요일이었다. 라울은 베시네와 맞닿은 작은 마을 샤투의 어느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세느강을 따라 이어진 채소밭과 그 거리 사이에 낀, 낡은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방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방을 빌려주고 있었다.

그는 관리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지나쳐 2층으로 올랐다. 반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드디어 5호실 문이 나타났다.

열쇠가 문에 걸려 있었다. 그는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철제 침대와 서랍장, 의자 두 개, 그리고 책상으로 간신히 채워진 좁은 다락방. 그 빈약한 침대 위에 파우스틴이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베지네를 떠나지 않았다. 시몽 로랑이 죽은 그 땅에서, 냉혹한 복수의 의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상 병원은 그녀를 부수간호사로 붙들어 두었지만, 자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녀는 밖에서 방을 구했다. 그녀는 매일 밤 그곳에 가서 잠을 자며, 일요일에는 문단속을 하고 지냈다.

그날 그녀는 재봉질을 하다가 잠이 들어 버린 듯했다. 어깨가 드러난 채였고, 가슴옷은 무릎 위에 놓인 채였다.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낀 채, 바늘에는 실이 꿰인 채였다.

정원의 나무 너머로 창틀 안에는 다정한 강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주변에는 신문들이 무더기로 펼쳐져 있었다. 침대 위, 책상 위, 어디에나 신문이 깔려 있었다. 며칠간의 사건을 그녀가 얼마나 집중해서 지켜보았는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라울은 멀리서도 신문의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

「시몽 로랑의 형 체포. 첫 심문」

「두 형제는 구 바르텔레미의 아들일 가능성」

라울은 다시 파우스티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서도 아름답게 보였지만, 지금의 평온한 표정에서 드러나는 순결한 아름다움은 더 매혹적이었다.

그는 조각가 알바르이 그린 유명한 프리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해가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창문 틈으로 한 줄기 빛을 던졌다. 라울은 그 빛을 놓치지 않고 살며시 다가갔다. 빛이 잠든 얼굴, 감겨 있는 눈꺼풀 위에 닿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그 빛이 닿아 그녀가 불편해하자, 그녀는 길고 굵은 속눈썹에 짓눌린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라울은 이미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감쌌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묶어둔 셈이었다.

“소리 내지 마. 말도 하지 마.”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놓아! 놓아!” 그녀는 격분하며 그의 포위망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다.

라울은 그녀의 얼굴에 손을 덮쳤다.

“잠잠히 해. 나는 적으로 온 게 아니야. 내 말만 듣는다면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다.”

그녀는 격렬하게 몸부림쳤지만, 단단히 입을 막힌 채라 욕설은 계속됐다. 하지만 저항은 서서히 약해졌다. 그는 그녀 위에 몸을 굽혀 다시금 말했다.

“나는 적으로 온 게 아니다. 공격하러 온 것도 아니다. 하지만 네가 내 말을 듣고 대답해야 해. 안 그러면 네가 손해 보는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누른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시몽의 형제, 토마 르 부크를 만났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 그가 페리시앙의 진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나머지는 네가 해줘야 해. 파우스틴, 넌 나를 알아. 나는 물려서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의 얼굴이 야수처럼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 쪽으로 기울었다. 파우스틴의 입술은 다가오는 입술을 피해 피했다.

“말해, 파우스틴. 말해.”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라울의 냉혹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두려워졌다.

“저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패배한 듯 속삭였다.

“너는 말할 거야?”

“지금 바로요? 숨김 없이, 조건 없이?”

“사imon 로랑의 머리를 걸고 맹세해.”

“저는 맹세합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놓아주며 창가로 물러섰다. 등 뒤로 젊은 여성을 둔 채였다.

그녀가 옷매무새를 다잡자, 그는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손에서 빠져나가는 아름다운 먹이처럼 말이다. 그리고 대화는 빠르고 정확하게 시작되었다.

“토마 르 부크는 페리시앵이 제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토마 르 부크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몽 로리앙을 통해, 넌 그의 아버지, 노장 바르텔레미를 알고 있었지?”

“그가 너를 믿었던 말인가?”

“그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 넌 무엇을 알고 있었나?”

“그리고 시몽 로리앙의 삶은? 그의 계획은?”

“그들이 나를 조종하려는 음모에 대해서조차?”

“하지만 그들은 네게, 페리시앵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

“증거 하나도 주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
이랴?”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यो!” 라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
며 말했다. “나는 그가 내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반드시 알아야 해. 그
들이 우연히 입수한 정보들을 이용해 일종의 연극을 벌인 건가, 아니면
나를 협박하며 그 진실을 이용하려던 건가? 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서 살 수 없어…… 살 수 없소.”

그녀는 자신의 억양이 드러낸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하지만 다시 힘주어 말했다.

“모르는 게요.”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알 수도 있고, 적어도 내가 알 수 있게 도와
줄 수도 있어.”

“어떻게요?”

“토마 르 부크가 말했어. 바르텔레미가 너에게 이 일과 관련된 문서
가 들어 있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고.”

“네,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서를 다시 읽은 그는 내 앞에서 불태워 버렸어. 이유
도 말하지 않고.”

그는 단 한 장만 남겼다. 그것을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밀봉한 뒤 나에게 맡겼다.

“무슨 지시라도 있었어?”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야. ‘이건 나중에 봐. 일단 치워 뒤.’”

“그 봉투를 내게 보여줄 수 있겠어?”

그녀는 망설였다.

“왜 안 됩니까?” 그가 재차 고집했다. “바르텔레미는 죽었고, 시몽 로리앙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이는 토마 르부크였으니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히고,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했다. 그러더니 서랍장을 뒤적여, 편지들이 쌓인 흡지(吸紙)를 꺼냈다. 그중에서 봉투 하나를 골라 망설임 없이 뜯어냈다. 봉투 안에서는 반으로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다.

그녀는 먼저 종이에 적힌 짧은 글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알려야 할지 말지 결정하려 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라울에게 건넸다.

두 문장, 아니 한 문장이었다. 누군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독재자의 명령처럼, 강압적으로 적혀 있었다. 필체는 높고 무거웠으며, 먹물이 번져 두꺼워진 듯했다. 글자 전체에 고른 힘이 실려 있었다.

라울은 어떻게 그 필체를 보자마자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그가 과거 ‘지옥의 피조물’이라 부르던 여자의 필체였는데도. 그리고 그녀가 가장 끔찍한 명령을 내릴 때 항상 보여 주던, 야만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그는 끔찍한 글귀를 세 번이나 다시 읽었다.

“아이를 도둑이자 가능한 한 범죄자가 되게 하라. 훗날 아이를 그의 아버지와 대립하게 하라.”

라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창백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되살아난 공포들과, 비극적인 위협이 현재와 뒤섞인 과거의 모든 불안이 그를 옥죄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니 이 순간만큼은 거의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고뇌에 찬 얼굴과,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들이는 격렬한 노력을 말이다.

“증오…… 복수……”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너는 이해하느냐, 파스티느…… 하지만 그 여자는 단순한 증오나 복수가 아니었어. 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필요했고, 그걸로 쾌락을 느꼈던 거야.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한 괴물이었는지!”

“지금도 그 여자의 짓이 눈에 들어. 나를 적으로 삼아 범죄자로 키우는 그 아이 말이지. 세상무쌍한 내가 두려워하는 건 없지. 하지만 그 여자를 생각하면 오한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다시 그 끔찍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파스티느가 그에게 다가가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과거는 반복되지 않을 거야.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은 이미 죽었어.”

라울이 그녀 쪽으로 뛰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가 죽었다니? 어떻게 알았지?”

“죽었어요.”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돼. 너 그녀를 직접 봤나? 그녀를 알고 있나?”

“당신도 그녀를 알고 있었군요! 정말 가능할까요? 너무 기묘합니다. 몇 번씩이나 생각했어요. 당신이 그녀의 사신은 아닌지, 그녀의 파괴 작업을 이어받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저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시다.”

“말해 봐.”

“저는 그때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15년 전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코르시카의 제 고향으로 데려와 작은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는 반쯤 미쳐 있었지만, 온화하고 평온한 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매우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많이 울었습니다. 닳지도 않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병이 그녀를 갇아먹었고, 그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임종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이야?”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 이름을 알려준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게다가?”

“바르텔레미 노인과 시몽 로리앙에게서 들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구석구석 뒤졌고, 결국 그녀의 사직 직전에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죠. 그 몇 주 동안, 시몽과 저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파리로 데려갔죠.”

“그들은 왜 그녀를 찾았지?”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몽과 그의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쁜 짓을 저

질렀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걸 저에게 숨겼지만, 조각조각 나는 단서들을 통해 페리시앙의 사연을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죠.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라울이 물었다.

“바르텔레미가 푸아투의 한 농가에서 그걸 잘 찾아냈다고?”

“칼리오스트로가 숨겨둔 거라고?”

“그건 좀 불확실해. 시몽은 아마도 그 기계공이 찾아낸 편지가 바르텔레미의 아버지가 위조한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

“그럼 네가 가진 그 지시문은? 분명 칼리오스트로의 필체인데,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시몽도 그건 몰랐어.”

“하지만 그 지시문은 농부가 키운 아이, 즉 페리시앙 샤를을 가리키는 게 맞지?”

“여기서도 의문이 남아. 바르텔레미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 시몽과 그는 칼리오스트로의 흔적을 쫓아 코르시카로 건너갔지만, 결국 헛수고였지.”

“그럼 그들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야?”

“바르텔레미의 목적은 늘 동일했어. 오늘에 와서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지. 페르시앙이 네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자료를 네게 건네는 거였어.”

“그리고 결국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 계획에 페르시앙이 연루되었을까? 토마르 부크가 주장하듯, 그들과 공모한 채 내 집으로 끌려온 걸까? 칼리오스트로가 원했던 대로, 그는 결국 사기꾼이자 범죄자가 되고 말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녀가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건 그들의 비밀스러운 삶 일부였으니까. 저는 페르시앙 샤를과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페르시앙뿐이군.” 라울이 말했다. “전체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그를 심문해야 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토마르 부크의 체포는 내가 주도했어. 물론 그와 사전에 합의한 거지. 그는 수사 과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폐실렌에 쌓아 올린 혐의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어. 내가 바라는 대로 그가 석방된다면, 파스틴, 네 복수심에 부딪히지 않을 텐데?”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그가 시몽의 죽음을 부른 원인이 아니라면요. 그 점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수라는 생각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시몽이 죄를 지은 자에게 응징이 내려져야 비로소 죽은 자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났다. 라울이 파스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거절했다.

라울은 클레르로지에 다시 돌아온 뒤에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짧은 산책이라도 할 때만 비로소 바지네나 그 근처를 거닐었을 뿐이다.

그는 여러 차례 제롬 헬마스를 보았다. 헬마스는 산행 계획을 포기한 듯했다. 그는 클레마티스 쪽으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심지어 로랑드 가베렐과 함께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두 젊은이는 거리 한복판에 나란히 걸어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울은 멀리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로랑드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어느 날, 라울은 심판관을 만나게 되었다. 심판관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토마 르 부크가 라울이 정해 준 매우 좁은 방어선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의 진술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루셀랭 씨의 교묘한 추궁에도 결코 걸리지 않았다.

“이건 내가 했어. 저건 내가 했어. 그 밖의 건 난 모르겠어.”

“두 사람의 진술은 모두 일관됩니다. 양의 레부크와 페리시앙 샤를, 즉 루셀랭 씨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남들이 다 쓰는 말투를 되풀이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버티는 태도뿐이죠. 그 사이로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나올 틈은 없습니다. 마치 외워 둔 대사를 읊조리는 것 같죠. 아베르니 씨, 제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페리시앙 샤를 대신 토마 레부크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루셀랭 씨는 라울을 바라보았다. 라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 만만치 않군.’

그리고 루셀랭 씨는 계속 말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페리시앵이 범인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백한 ‘염소’가 연못 위를 밤중에 돌아다녔다고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보트 주인을 불러냈어요. 페리시앵과 염소, 이 둘을 보트 주인과 대면하게 했죠. 주인의 태도가 확실했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는 라울의 눈을 떼지 않았다. 라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하는 체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아베르니 씨, 당신은 상류층에서 각별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 라울이 가볍게 대답했다. “그분들에게 몇 번은 은혜를 베푼 적이 있으니깐요.”

“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제법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몇 가지 난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파우스틴의 역할도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았다. 예전 그녀와 칼리오스트로 사이에는 아주 미약한 인연이 맺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몽 로랑을 사랑하게 된 우연한 사건이 그녀를 프랑스 땅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르텔레미 부자의 계략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연인이었던 남자, 즉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복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한 여인에 불과했다.

한편, 칼리오스트로의 확실한 죽음은 라울을 기쁘게 했다. 그녀가 과거에 서명한 그 끔찍한 명령이 페리시앙에게도 적용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라울을 상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계획은, 이제 칼리오스트로의 지휘 아래가 아니었으니 반드시 실패해야 했다. 바르텔레미와 그의 아들들 같은 하급 자들이 무리하게 추진한들, 결과는 부정적이고 터무니없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을 터였다.

실제로 라울 드아베르니는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한 소년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바르텔레미와 시몽 로랑이 죽은 뒤라, 그는 진실을 알아낼 방법을 전혀 잃고 말았다. 설사 방법이 있다 해도, 그 진실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흘 주가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라울은 페리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11시, 페리에가 전화를 걸어 그날 중으로 자신의 물건을 챙겨러 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라울은 큰 호수 주변을 거닐다가 섬의 벤치에 앉아 있는 롤랑드와 제롬을 발견했다. 8월의 화창한 날씨였지만,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잔잔한 북풍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고 있었다.

라울은 두 젊은이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특히 제롬은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롤랑드는 경청하다가 짧게 답을 하곤 다시 말을 듣는 태도를 취했는데, 손에 든 꽃을 응시하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라울은 서두르지 않고 클레르로지에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갑자기 자신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 낯선 남자를 다

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 남자는 전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라울은 페리시엔에 대해 특별히 좋은 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다. 이제 페리시엔이 라울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 감정은 더 이상 식어 버렸다.

하지만 그는 펠리시안이 단순히 물건을 챙겨 들고, 악수만 하고 끝날 줄로 알지 않았다. 아니, 그는 먼저 펠리시안과 진심을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함께 살며 그를 여유 있게 관찰하고 싶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펠리시안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펠리시안이 스스로를 그의 아들로 내세울 의사가 있는지였다. 한마디로, 펠리시안은 바르텔레미와 시몽 로리앙의 공범이었는가? 그는 음모에 가담했는가?

모든 정황이 그의 유력함을 가리켰다. 결정적인 단서는 오직 젊은이의 행동과 말에서만 찾아낼 수 있었다.

“펠리시안 씨가 도착했소?”

그가 정원사에게 물었다.

“십오 분 전이옵니다, 각하.”

“건강은 괜찮소?”

“페리에 씨가 몹시 초조해 보였더군. 곧장 별장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지.”

“이상하다……” 드아베르니가 중얼거렸다.

그는 별장으로 달려갔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별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페리에의 방 창문을 흔들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유리창 하나를 깨고 창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리고 몸을 날려 안으로 뛰어 들어 커튼을 헤치고 들어섰다.

페리에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가 뻗 손수건을 목에 꼭 눌러 쥐고 있었다.

그 옆 바닥에는 권총이 놓여 있었다.

“다쳤어!” 라울이 외쳤다.

젊은 남자는 대답하려 했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다.

라울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심장을 들었고, 상처를 살폈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올린 뒤, 속으로 생각했다.

“자살하려다 실패했네. 팔이 떨어져 큰일은 아니야.”

그는 상처를 돌보면서도 페리시엔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묻어나올 듯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너는 내 아들이고, 클레르 디티그의 아들이 맞느냐? 너는 도둑이자 범죄자이며, 죽은 두 무리의 공범인가? 불쌍한 자, 왜 자살하려 했던 말인가?’

다섯 분 뒤, 하인들이 부상자를 둘러쌌다.

“이 일은 절대 입 밖으로 새어서는 안 된다.” 라울이 명령했다.

“페리시엔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돌봐 주십시오.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클리닉에는 간호사가 필요하다고만 하세요.”

그는 봉투에 봉인을 하고 운전사를 클리닉으로 보냈다.

차가 파스티나를 태워 돌아왔을 때, 라울은 파빌리온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과 그분은 과거에 만난 적도 없죠?”

“시몽 로리앙이 당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나요?”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던 며칠 동안, 그분이 클리닉을 방문하지도 않았나요?”

“네. 왔어요. 하지만 다른 간호사와 다름없이 저를 그냥 지나쳤을 뿐
이에요.”

“좋아.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절대 누설하지 마라.”

제11장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라울 드 아베르니가 처음부터 직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비극이 얹히고 두 개의 길이 우연히 한 지점에서 만났다.

어느 날 라울 드 아베르니는 지폐 뭉치를 든 사람을 따라 베지네에 도착했다. 그는 지폐를 훔쳐 그 비용과 이동비를 충당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샀다.

이 일련의 행동은 바르텔레미와 그의 아들을 같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라울을 협박할 준비를 하면서도, 오랑제리(온실)에 숨겨둔 지폐 뭉치를 훔쳐내며 연습을 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 지점이 바로 교차로다. 서로 다른 두 줄기가 만나는 곳.

완전히 별개의 드라마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엘리자베트 가브레가 바로 그 오랑제리 앞까지 끌려나왔을 때, 바르텔레미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이 얽히기 시작했다. 끝없이 깊은 신비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속으로. 법정 은 어둠의 숲 한가운데 멈춰 선 듯 꼼짝도 못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단순해. 적어도 내게는.”

두 사건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두 번째 사건, 즉 바르텔레미의 협박 사건은 바르텔레미와 시몬의 죽음, 토마 르 부크의 체포, 파스틴의 자백으로 일단락되었다.

첫 번째 사건, 가베렐 자매 사건은 내게 간접적인 관심사일 뿐이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남은 것은 페리에다. 그의 행위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두 사건 모두에 걸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남은 건 펠리앵이다. 그는 바로 협박의 핵심이자, 그 조직자들을 제거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겉으로는 냉담하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길하고 어두운 인물. 바르텔레미 사건의 요동 속에서 그는 여전히 신비로움에 싸여 있다. 내가 그를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두 자매의 비극을 제대로 풀어내는 것뿐이다.”

“도대체 그는 이 일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그는 라울이 파빌리온 방을 찾을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보았다. 언제든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열은 이미 내려갔다. 파스티나는 더 이상 상처를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폐실랭은 여전히 지쳐 보였다. 무거운 체념에 잠긴 듯했다. 자해 시도의 여파가 아직 그를 괴롭히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작업실에서 자고 있던 파스티나가 라울을 따로 불러냈다.

“어젯밤 누군가 당신을 보러 왔소.”

“모르겠소.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 했거든. 하지만 빗장이 채워져 있었소. 두 사람이 수다를 떨다가도 잠시 멈추곤 했지. 그러다 그 사람이 사라졌어. 나는 아무것도 캐내지 못했소.”

“그럼 단서 하나도 없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깝군.”

다음 날들, 라울은 그 밤의 만남이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펠리앙은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았다. 그는 미소 짓곤 했고, 파스틴과 수다를 떨었다. 심지어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려 했고,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웠다.

라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사흘 뒤, 젊은이가 쉬고 있는 별장 안으로 들어간 그는 그 옆에 앉아 말을 시작했다.

“페리시앙, 네가 다시 건강해져서 기쁘다.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하지만 더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루셀랭 씨의 결정에 따라, 그가 진행 중인 수사 사건과 관련해 너는嫌疑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너와 나,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있다.”

그는 다정한 어조로 물었다.

“페리시앙,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푸아투 지방의 착한 농부 부부에게 길러졌다는 사실을.”

젊은 남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낮게 중얼거렸다.

“-foundling, 즉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법이 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그때까지의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키워주신 養母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죽으셨어요. 다만, 어느 부인으로부터 맡겨받았다는 돈을 건네받았을 뿐입니다. 그 부인은 제 친어머니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최근 몇 년간 농장에 한 남자가 머물렀던 기억은 없나요?”

“네… 친구였어요. 아니면 친척이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나요?”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바르텔레미라고 했어요.” 라울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펠리시엔이 몸을 뒤로 젖혔다.

“바르텔레미?… 그 도둑?… 그 살인범?”

“네, 시몽 로랑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는 당신을 결코 놓치지 않았죠. 당신이 파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주소를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내 친구를 통해 당신을 저에게 추천한 겁니다.”

펠리시앙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라울은 그를 눈앞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동작과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며, 진심인지 위장인지 가려내는 미세한 신호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왜요?” 젊은이가 물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텔레미가 당신을 제 곁에 배치한 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시몽이 당신을 도와달라고 여기로 온 것도, 저를 겨냥한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계획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몽 로리앙이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나요?”

“아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 관해서는, 당신의 목적은 이 집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단 말인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페리시앙이 물었다.

라울은 안도했다. 페리시앙의 말이 맞았다. 그는 검은 협박의 공범자가 아니었다. 설령 그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런 게 또 있어, 페리시앙. 토마 르 부크가 자백했지. 살인과 절도가 있었던 그날 밤, 보트를 타고 있던 남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 자백 때문에 네가 놀랐나?”

“왜 놀랐겠어요. 내가 범인이 아니었으니까.”

페리시앙이 대답했다. “그때는 이미 내가 잠들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엔 어조가 달랐다. 그의 시선은 정직하지 못하게 빗나갔다. 볼기가 붉게 달아올랐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울이 생각했다. ‘이런 중요한 일에서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거짓일 것이다.’

라울은 발구르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젊은이의 이중성은 다시금 뚜렷해졌다. 그는 속임수와 사기꾼이었다. 언젠가는 아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공범들처럼 위협할 것이 분명했다.

참지 못한 라울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페리시앙이 그 앞에 가로막더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믿지 못하겠군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저도 잘 압니다. 저는 여전히 밤중에 나타나 도난 당한 지폐 봉투에 대해 추궁했던 사람, 그리고 아마도 공범인 시몽 로리앙을 다치게 하고 죽인 범인으로 당신 눈에 비치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떠나는 게 낫겠군요.”

“아니요.” 라울이 거칠게 말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이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말입니다.”

“그 진리는 조사 판사가 제시한 방향에 이미 존재합니다.”

라울이 격앙된 어조로 외쳤다.

“루셀랭 판사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내어 돈을 주고 시킨 토마 르 부크의 거짓 증언 때문에 생긴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개인의 역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이 모호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울이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서 솔직함이나 반발심 같은 빛나는 순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빛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밝혀주는 거니까요. 당신은 가장 중대하고 격렬한 행동들조차 그림자 속에 감추고 다녔죠. 예를 들어 자살 시도 같은 것 말입니다.”

라울은 잠시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여기 돌아온 건, 작별 인사를 하러였죠? 그리고 저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풀어놓으려고. 그런데 저는 당신을 총을 손에 쥔 채 죽어가는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대체 왜 그랬습니까?”

펠리시엔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드아베르니의 노여움을 한층 더 부채질했다.

“침묵이군. 늘 침묵뿐이야. 아니면 판사에게 할 때처럼 피상적인 변명이나 늘어놓는 거고. 하지만 대답해라, 저주할 놈의! 우리를 가로막는 건 오직 이 침묵과 경계의 벽뿐이다. 만약 내 신뢰를 얻고 싶다면,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안 그러면 어쩔 거냐? 나는 추측하고, 의심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다. 잘못 오해해서 너를 잘못 몰아세울지도 모른다. 그게 네 바라는 대로야?”

그가 뒤편의 팔을 꼭 잡았다.

“당신 나이라면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하죠. 당신의 시도 당일, 당신의 행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멀리서 로랑드 가베렐과 제롬 헬마스가 나가 호수를 향해 가는 것을 목격했죠. 그들은 섬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 사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친밀함이 있었음을요. 당신은 겉으로는 모른 척 하며 정원사에게 물어보았고, 그들이 매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후, 당신은 권총을 챙겼습니다. 맞습니까?”

얼굴이 굳은 채, 펠리엔은 경청하고 있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로랑드 가베렐이 어떻게든 당신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사흘 전 밤, 당신을 찾아와 살아달라고 간청했고, 당신의 의심이 부당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당신을 충분히 설득해, 그 밤 이후로 당신은 행복해지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는 젊은이가 것처럼 조급한 질문에서 도망칠 수도, 또 도망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그래도 어떻게 답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마침내 말했다.

“선생님, 그 비극이 일어난 날 이후로 저는 로랑드 가베렐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게 찾아온 사람은 그녀가 아닙니다. 로랑드와의 우정 관계라면, 그녀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욱이, 그녀의 하인이 방금 가져다준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녀의 결정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불행이 우리를 Jérôme 헬마스 씨와 함께 묶었습니다. 우리 가없는 엘리자베트를 위해 함께 울어주다 보니, 우리 둘에게 남은 위로는 서로의 소중한 기억을 위해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바로 우리를 가까이하게 하고, 그녀가 가장 행복했고 더 행복하기를 꿈꿨던 그 장소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결혼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해. 내가 많은 걸 염려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두려움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더 이상 나 혼자 나와 마주앉아 있을 힘이 없어.”

“페리시앙, 그녀를 알던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일 클레마티스에서 만나, 그녀가 나를 용납해 주었을 거라고 말해 주게.”

라울은 편지를 중얼거리듯 다시 읽더니, 천천히 말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군.” 그가 비웃듯 말했다. “저 젊은이는 남매의 추억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가보게, 펠리시앙. 그녀를 만나서 네 지지를 보내 주게. 여기서는 공사가 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네가 며칠 쉬는 게 필요해.”

잠시 생각에 잠긴 라울은 젊은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을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 두 약혼자가 서로 통모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펠리시앙은 놀라며 말했다. “그들이 약혼자이니만큼, 서로 통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적은 없었나요?”

“그 정도를 넘어선 적? 언제부터요?”

라울은 이 끔찍한 문장을 음절 하나하나를 분명히 잘라 내며 말했다.

“엘리자베트 가브렐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부터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 말은, 결혼 두 달 전에 엘리자베트 가브렐을 노린 살인 미수 사건이 너무도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펠리시앙은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하며 외쳤다.

“아, 선생님, 그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잘 압니다. 롤랑드가 자매애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요. 아니, 아니요, 그런 비열한 죄목으로 그녀를 비난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질 뿐이죠.”

“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편지 때문이에요, 페리시앙. 이 글에는 너무도 무책임한 기색이 담겨 있거든요…”

“롤랑드는 충성과 고결함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롤랑드는 여자예요… 잊어가고 있는 여자라고요.”

“저는 그녀가 잊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조건이… 그녀에게 불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펠리시앙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선생님. 롤랑드는 모든 의심을 초월한 분입니다.”

라울은 그 편지를 돌려주며 잔디밭 위를 몇 걸음 걸었다. 끈기만 있다면, 격렬하고 반항적인 기질이 숨어 있는 그 음울하고 비밀스러운 성격을 조금씩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밀어붙이려던 참이었다. 그때 안쪽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가니마르 형사네.” 라울이 중얼거렸다. “이 불길한 새가 또 뭐라도 가져왔나?”

형사는 두 사람이 있는 수풀 쪽으로 다가와 라울과 악수했다. 라울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나 보군요, 형사님.”

“아니, 정말입니다.” 구소토가 평소와 달리 장난기 어린 어조로 반박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사법 기관과 마찰을 빚은 사람에게는 그 기관이 여전히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감시할 권리 말인가요?”

“아닙니다. 따뜻한 관심과 주의 깊게 지켜볼 권리죠. 그래서 저는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우리 환자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페리시앙 샤를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페리시앙?”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구소토가 말했다. “이 지역에서 총성 소리가 났고,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일과 관련해 타자기로 친 익명서 한 통도 받았습니다. 요컨대, 저는

단 한 순간도 믿지 않은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죠. 자신의 무죄가 이미 입증된 무고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물론이지요.”

“혹시 무고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요.” 구소트가 비꼬듯 내뱉었다.

“그건 이제 누구도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무슨 소리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경찰의 방식이라곤 하지만 —”

“감옥에서 나온 직후, 당신의 젊은 친구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거든요.”

“제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 조제핀 발사모를 만나러 가겠다는 허락을 구하기 위해 롤랑드 가베렐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여인이 그를 무고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울은 비웃듯 웃었다.

“형사님, 그 ‘추잡한’ 수사 끝에 얻은 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소에게 바리에르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가소는 발을 돌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으나, 순간 다시 적을 마주했다.

“아, 제가 깜빡했군요. 파리 한 역의 수하물 보관소서 시몽 로리앙의 여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쪽 주머니에서 이 명함을 찾았죠.”

가니마르는 명함을 내밀었다. 뒷면에는 연필로 집 한 층의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고, 붉은 잉크로 십자가 표시가 찍혀 있었다.

“이 층이 바로 시몽 로리앙의 아버지, 즉 페리시앙 샤를의 친구가 필리프 가베를의 지폐를 훔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명함은 누구 이름으로 새겨져 있나요?”

“페리시앙 샤를.”

가니마르는 라울과 페리시앙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태도는 한없이 느긋하고, 입가에는 비웃는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두 번째로 얻은 자료입니다. 굳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어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울이 재촉하며 앞서 가는 그를 따라가서, 울타리 근처에서 그를 멈춰 세웠다.

“형사님!”

“무슨 일입니까, 드아베르니 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님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울타리의 두 기둥을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합니다. 이 두 기둥을 잇는 가상의 선을 다시는 넘지 마십시오.”

“제 경찰 권한이…”

“형사님의 권한은 동료들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만 효력을 가집니다. 악의적이고 앙갚음하는 자들이나 하는 짓을 저지른다면 무용지물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라울은 다시 페리시앙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내내 말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았던 페리시앙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롤랑드를 다시 보지 않았다고 단언했죠.”

“그녀는 저를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녀를 위해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젊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라울이 계속했다. “이 명함은요?”

“시몽 로리앙이 누군가에게서 받아왔겠죠. 당신이 오기 전 어느 날에.”

“그리고 오랑제리 계획도는요?”

“그가 직접 그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여전히 경찰의 용의자로 묶어두는데, 당신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군요?”

제12장

라울은 포기했다. 페리시엔에게는 무슨 설명도 통하지 않았다. 위기의식을 드러내도, 아마 겉으로만 보이는 태도였지만 실은 변함없는 저항감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의 입을 열어 비밀을 꺼내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반의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파스틴은 다시 클리닉의 일로 돌아가 있었다. 페리시엔도 이제 함께 먹던 오두막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그는 클레마티트 빌라에서 아침을 먹고, 오후를 그곳에서 보냈다.

다섯째 날, 라울도 정황을 살피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주방에 있던 요리사가 문을 열고 말했다.

“미스씨가 잔디밭에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식탁방을 지나시면 됩니다.”

현관 홀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다. 라울은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정원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는 스튜디오 유리문 앞에 드리운 툴 레이스 커튼 너머로 한눈을 흘렸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방 왼쪽, 밝은 빛이 쏟아지는 곳에는 파스티나가 서 있었다. 어깨는 넓게 벗겨졌고 팔은 맨몸 그대로였다. 그녀는 화가 의자에 앉아 있는 페실렌을 마주 보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라울은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 짜증 속에는 부러움 섞인 불쾌감도 섞여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도 숨기지 않았다.

‘이 여우새끼! 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꼬마 녀석은 대체 무슨 용도로 저기 있는 거야?’

그는 그녀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시선은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잔디밭과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빛이 쏟아지는 그녀의 어깨는 풍만하고 조화로웠고, 약간의 금빛이 도는 하얀 피부는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리고 자주 그를 괴롭히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 조각가가 빚어낸 빛나는 프리네의 모습 말이다.

그는 소리 없이 문을 살짝 열어젖혔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어 하는 호기심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두 약혼녀, 롤랑드와 제롬 헬마스가 창틀에 앉아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때때로 페리시앙 샤를이 그들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라울은 깊은 확신을 품었다. 클레마티스와 오랑제리에서 벌어진 비극, 그중 첫 번째 비극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 안에, 그리고 이 공간에 모여 있는 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었다.

사랑이든, 증오든, 야망이든, 질투든. 모든 감정이 이 좁은 공간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네 사람 모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차분히 집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 범죄와 처벌, 죽음과 생명이 거친 적수처럼 맞서고 있었다.

이 갈등에서 각자가 차지한 몫은 무엇이이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롤랑드를 사랑하던 페리시앙은 두 약혼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파스퇴르 간호사는 어떻게 그 세계에 섞여 들었을까? 그리고 또 왜, 계급이 완전히 다른 롤랑드가 그녀를 그 자리에 받아들였을까? 해답을 찾기 불가능한 질문들이었다.

그때, 정원으로 사라진 두 연인을 뒤로한 채 라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파스퇴르가 시선을 이젤 쪽으로 돌렸을 때, 그녀는 이젤과 페리시앙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당황한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샤들로 몸을 가렸다.

“괜찮아요, 페리시앙.” 라울이 말했다. “하지만, 천만에, 정말 멋진 모델이군요!”

“매우 훌륭하죠. 전 그 아름다움에 전혀 자격이 없어요.” 젊은이가 인정했다.

“그러니 당신에게 야망 같은 건 없군요?”

“그런 아름다움 앞에서는 아무런 야망도 없습니다.”

라울이 비웃듯 웃었다.

“당신은 어때요, 파스틴? 그 옷차림으로 포즈를 취하는 게 클리닉 환자 돌보는 것보다 더 재밌나요?”

“요즘 환자가 별로 없어요. 오후 시간도 자유롭고.”

“저녁도, 밤도 다 그렇죠. 파스틴, 그 젊음을 맘껏 누리요.”

그는 정원으로 나가 두 약혼자를 만났다. 결혼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로란드를 유심히 관찰했다. 확실히 파스틴처럼 눈부시지는 않았고, 연극적인 아름다움도 덜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다. 파스틴처럼

럼, 얼굴과 몸매에서 풍기는 관능적인 매력이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 더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제롬 헬마스는 열렬한 찬탄의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제롬은 하루 종일 파리에서 보내야 했다. 롤랑드와 라울은 그가 나올 수 있는 오랑그리 정원으로 그를 데려다주었다.

그들은 엘리자베트의 추락과 죽음을 초래한, 불길한 계단 자리 옆을 지나쳤다. 계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두 젊은이는 그 자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그곳을 거닐었다. 오히려 그들은 태연하게 발걸음을 멈추고, 연못 반대편, 골목 끝 근처에서 세 명의 남자가 탄 어선을 바라보았다. 그 어선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선을 탄 이들은 구소와 그의 형사 두 명이었다. 그중 한 명은 물속 바닥을 긁어내고 있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군요,” 제롬이 말했다. “저와 시몽 로랑을 때린 그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롤랑드는 오한이 느껴져 속삭였다.

“이 악몽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롬은 작별 인사를 하고, 롤랑드와 라울은 느린 걸음으로 클라마티스 집으로 돌아갔다. 라울은 속마음을 드러내듯 말투를 바꿔 물었다.

“결혼하신 뒤에도 이 빌라에 계속 계실 건가요?”

롤랑드가 대답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필요한 수리도 할 테고요.”

“하지만 분명, 결혼 여행이라도 가시겠죠? 긴 여행 말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울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롤랑드는 모호한 짧은 말로 답하며, 더 이상 이런 심문은 멈추자고 했다.

“현관문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들이 현관 계단에 닿으려는 순간, 싸움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시끄러운 구설수로 커졌다. 하인 에두아르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지 못해!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해!”

롤랑드는 식당을 뛰어 지나갔다. 페시앙과 파스티느는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다.

현관 근처에서 노하인은 한 노신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노신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부디 자제해 주시오. 롤랑드 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방문을 알려 주십시오.”

현관 문턱에 선 로랑드는 새로 온 사람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저는 그분과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선생님...”

말없이 그는 명함을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다 보았다. 그리고는 당황했다.

그는 거절당할까 봐 조마조마한 듯 간곡하게 말했다.

“로랑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만남은 필수적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등이 굽었고, 머리는 온통 하얗게 서리 끼었다. 얼굴은 가늘고 단아했지만, 병석과 극도의 피로를 드러낼 만큼 지나치게 창백했다.

로랑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인에게 명했다.

“에두아르, 나가시오. 네, 나가요. 제가 원합니다.”

에두아르는 화가 난 채 방을 나섰다. 그러자 로랑드는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약혼자가 집에 없어서 유감입니다. 만나 뵈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약혼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로랑드.”

“네, 제롬 헬마스와 약혼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언니와 결혼할 예정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예전에 그녀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롬이 아직 어렸을 때였죠.”

롤랑드는 제3자가 있는 앞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말했다.

“남편님, 제 화장실로 올라가시죠. 거기서라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그를 안내했다. 그는 천천히,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라울은 단 한 번의 시선 교환으로만으로도 페르시엔과 파스티나가 자신만큼이나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방문의 이유를 설명할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침묵을 지키며 기다렸다.

두 시간이 지나서야 그 남자가 롤랑드의 부축을 받아 다시 내려왔다. 그녀의 눈은 빨갭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극도로 동요한 상태였다.

“자, 롤랑드. 네 결혼은…… 언제야?”

그녀는 갑자기 결단한 사람처럼 단호하게 대답했다.

“열흘 뒤예요. 고혼 기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행복해지길 바래, 롤랑드.”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부드럽게 몸을 빼내며 그를 문까지 데려갔다.

“제가 함께 갈 수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기차역이 멀지 않아. 혼자 가는 게 더 좋겠어. 곧 보자, 롤랑드. 내 집에 와주는 게 얼마나 기쁠지 모른다고! 너도 약속했잖아.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롤랑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롤랑드는 시선으로 그를 따라가다 문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라울은 주저 없이 식탁이 있는 방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클레마티트 빌라를 나서, 낯선 남자를 따라가서 어떤 단서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곧 남자를 아베뉴에서 발견했다. 남자는 운전사 복장의 하인을 팔에 끼고 있었다.

국도 근처에는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다. 운전사가 그를 태우고, 그들은 떠났다. 라울은 그 차가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오기 위해 이미 긴 거리를 달려온 것처럼 보였다.

오후 7시쯤, 그는 파스티나를 만났다. 그녀는 병원을 막 나오고 있었다.

“그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겠나? 롤랑드는 아무 말도 안 했나?”

“참으로! 설령 내가 말해 줬다 한들,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야. 알겠어. 혼자서 알아서 해볼게. 이번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밝혀 낸 진실에 또 한 줄기가 더해질 뿐이지. 잘 가고 있어, 파우스티나.”

그가 목소리를 낮추고 날카롭게 물었다.

“하나 더 묻지. 클레마티스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집안 식구처럼 지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너희 네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페리시앵의 마음을 빼앗으려 그토록 매력을 과시하는 건가? 잠깐만, 꼬마야! 안 그러면 그 애를 데려가 버릴 테니, 너는 발만 동동 구를 거야.”

그녀는 화내지 않고 미소 지었다.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나요?”

“음, 아니지!”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좋아하시죠.”

저녁과 다음 날 아침, 라울은 조사를 벌였다. 그는 스무 분 만에 차를 몰고 가르쉬 근처에 있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에 도착했다. 그의 요

청에 따라, 그는 방문객 대기실로 스타니슬라스 신부를 불렀다. 신부는 온몸이 떨리고 구부정한, 정직한 노인이었다. 라울은 그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당신은 베지네 시 출신으로, 그곳에서 사십 년 이상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그중 삼십 년은 같은 주인을 모셨는데, 그 주인은 현재 오랑제리 저택을 소유한 필립 가베르엘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죠?”

라울은 계속했다.

“베지네 시에서 당신을 구호 대상으로 선정했고, 제가 그들에게서 백 프랑 지폐를 전달해 달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섯 분간의 격렬한 논쟁과 한 시간 동안의 수다를 끝내고, 라울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베지네에 대해, 그곳 주민들에 대해, 오랑제리에서 자주 마주친 인물들에 대해, 그리고 그 인물들과 가까운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끝없이 떠들었다.

특히 라울은 엘리자베트와 롤란드의 아버지, 필리프 삼촌의 동생인 알렉상드르 가베르엘 씨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바람기가 많은 남편으로,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질투심도 강했다. 끝내 질투할 만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알렉상드르 가베르엘 씨의 먼 친척이 그 가정에 지나치게 자주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Stanislas가 말했다. “오랑제리 정원
에서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다투던 어느 날, 마들렌 엘리자베트가 셋째
생일을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알렉상드르 씨는 마담의 사촌을 문밖으
로 내쫓았죠. 현관에서 둘이 주먹다짐을 하느라 소동이 일어났고, 제
친구인 하인 에두아르가 주인을 도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
마나 고함을 지르던지! 우리 부엌에서는 마들렌 엘리자베트의 친부가
바로 조르주 뒤그리발 사촌이라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가베렐 부부는 화해했나요?” 라울이 물었다.

“어쨌든 사이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사 년 뒤, 롤랑드라는 딸까
지 낳았죠. 하지만 그는 다시 방탕한 생활을 되찾았고, 결국 파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혈압이 오르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촌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매년, 그가 죽을 때까지 알렉상드르 씨는
여름마다 딸들과 함께 해안가, 카부르에서 보내셨죠. 카부르는 현재
조르주 뒤그리발 씨가 사는 카앙에서 불과 이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
니다. 뒤그리발 씨는 알렉상드르 씨의 사촌이에요. 우리 집 부엌에서
도, 알렉상드르 씨가 카부르 해변에서 뒤그리발 씨를 여러 번 봤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물론 두 번째 딸은 빼고요. 오랑제리 부엌의 하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그가 전 재산을 엘리자베트 씨에게 물
려줄 거야.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와 알렉상드르 씨 사이에서 약속된
거지. 엘리자베트 씨, 정말 큰 결혼 지참금을 받게 될 거야!’”

라울은 이번 조사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더 깊이 생각할수록, 그가 얻어낸 결과의 중요성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가족 간의 숨은 갈등을 중심으로 한 빛의 단서가 하나둘 모여 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수많은 어두운 사건들의 기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와 다음 날, 그는 클레마티스 저택을 다시 찾았다. 비록 따뜻하게 맞았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고독감과 애절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모두 각자의 생각과 목적에 빠져 살았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가끔 로랑드와 제롬이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가끔 페르시아는 파우스티나와 그가 그리는 초상화를 잠시 떠나, 로랑드와 제롬을 바라보곤 했다.

침묵이 흐르자 로랑드가 약혼자에게 물었다.

“제롬, 서류 준비됐어?”

“물론이지.”

“나 것도 다 됐어. 오늘은 화요일 7일이잖아. 결혼식을 토요일 18일로 정하면 어때?”

제롬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그 순간,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는 눈을 감았다.

펠리시앙은 진지하게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라울은 생각했다.

‘9월 18일까지 열흘이 남았다. 그 전에 모든 것이 움직여야 해. 그들의 감정이 먼 곳의 복잡하고도 희미한 진실을 드러내줄 때까지.’

롤랑드가 받은 그 기이한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다. 그 방문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롤랑드가 왜 작별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감격해 보였을까? 그리고 제롬 헬마스는 그 일을 알고 있었을까?

9월 11일 토요일, 롤랑드는 클레마티스 저택으로 라울을 불렀다. 가우소 형사가 오후 3시경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러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롤랑드는 아베르니 씨와 페리시앙 샤를도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길 원했다.

라울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페리시앙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파우스티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우소 형사가 한 통보는 짧고 간결했다. 그는 라울과 페리시앙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오직 롤랑드와 제롬에게만 말을 건넸다.

“저희는 익명 편지를 여러 통 받아 왔습니다. 모두 타자기로 쳤는데, 글씨가 꽤 어설프더군요. 게다가 밤에 베지네 우체통에 넣었죠. 제가 타자기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한 정황이 알려졌나 봅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삼 킬로미터 떨어진 쓰레기 더미에서 낡은 타자기가 발견되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밤까지 그 타자기를 썼고, 그날 저녁에 이 편지가 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들어 주십시오.”

시몽 로랑이 그 유명한 밤에 습격을 받은 대로 옆에는 몇 달째 빈 집이 하나 있다. 낮은 담 위에 철조망이 둘러쳐진 곳이다. 철조망 사이로 들여다보면, 관목 잎사귀 아래에 손수건이 보인다. 이 손수건의 출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경고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가니마르 형사가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이 손수건은 분명히 비와 이슬에 젖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피에 달궈진 칼이 천으로 닦여 남긴 자국은 길고 각이 진 붉은 자국이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깃글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사 온 손수건 대다수가 그렇듯, 글자 F 하나요. 여기에 계신 피엘리앙 샤를 씨, 잠깐만요.”

피엘리앙은 순종했다. 구소가 손수건을 대조해 보았다.

“이 쪽에는 이니셜도 없군. 하지만 보시다시피 천은 똑같이 가는 소재고, 치수도 완전히 일치해. 고마워. 이 증거들은 수사 자료로 제출할 테고, 실험실에서는 갈색 얼룩이 피인지 확인할 거야. 만약 피라면, 시

몽 로리앙을 때린 자, 더구나 먼저 에를마스 씨를 때린 자에겐 아주 무거운 혐의가 되는 거지.”

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두 약혼자에게 인사를 한 뒤 나갔다.

“친애하는 페실리엔, 라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군. 경찰은 더 이상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며칠 안에 루셀랭 씨가 너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이게 될 테고, 그때는…….”

페실리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듯했다. 라울은 그를 싫어했다.

저녁,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정자의 그늘을 지나고 있었다.

도로에서 살며시 피리 소리가 났다. 그는 큰 호수 옆을 걷는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는 클라미티트 저택과는 정반대 방향, 왼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라울은 그 피리 소리가 신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맞았다. 페실리안이 곧 파빌리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열고, 역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라울은 클레르로지스 안쪽 길과 차고 쪽 출구를 이용해 따라갔다.

호수를 따라 난 길가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밤하늘은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는 페실리안과 파우스티나가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알아봤다.

그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 그들을 뒤쫓았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같은 벤치에 앉았다. 뤼팽이 로랑드와 제롬 엘마스를 처음 본 자리였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앉았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스무에서 서른미터쯤 떨어져 그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제13장

그의 본능이 격렬하게 끓어올랐다. 라울은 두 연인을 향해 돌진하고 싶었다. 페실리를 물에 던지고, 파우스티나를 질식사시켜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를 건너려 두세 걸음을 떼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 버렸다.

그가 멈춘 이유는, 나중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가만히 참았다. 격분하거나 무모하게 덤비는 게 적기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는 파우스틴에게 사랑이라곤 조금도 섞이지 않은 욕망만을 느껴왔다. 이제 막바지의 격랑과 결말의 폭풍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할 자존심 어린 광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사실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말이다. 만약 그가 무작정 개입한다면, 그 실마리들이 다시 엉키고 말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칼리오스트로의 여인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부자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맞서 싸우는 모습. 그 죽은 자가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녀가 운명에 맡긴 복수가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질지, 그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예감을 하고 있었다.

라울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문을 닫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장치를 작동시켰다. 대문이 열리면 전기 종소리가 울리도록 만든 장치였다.

반 시간 뒤, 종소리가 울렸다. 페리시앙이 돌아온 것이다. 라울은 그대로 잠들었다.

오전 내내 그는 페리시앵을 원망하며 보냈다. 그는 페리시앵을 점점 더 증오하고 있었다.

모순투성이이고 믿기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그는 롤랑드와 제롬의 공범 관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두 약혼자의 계획은, 애매모호하기만 했던 뒤그리발 가의 상속 문제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카앙으로 향하기로 했다. 조르주 뒤그리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면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밤 조르주 뒤그리발의 집을 방문하여 흥미로운 수색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라울이 자동차로 올라타려던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클레르로기스로 돌아가라는 연락이었다. 제롬 헬마스가 간절히 호소했다. 한 분도 늦추지 말고, 서둘러 와 달라고.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두 분 뒤, 라울이 도착했다. 제롬은 하인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숨이 막힐 듯 떨리는 목소리로 애타게 외쳤다.

“잡혀갔어요!”

“롤란드 말인가? 그 악당에게.”

“그 악당?”

“펠리시앙 샤를.”

“무슨 소리요!” 라울이 반박했다. 그는 방금 전에도 펠리시앙이 파우스틴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롤란드가 자진해서 따라갔다는 말ियो?”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 제롬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제로 납치당한 거예요! 자동차로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생각해보니, 당신 말고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라울은 곧장 자동차 뒷좌석으로 뛰어올랐다.

“어떤 길로 달려야 하오?” 라울이 물었다.

“생제르맹 쪽으로 갔어요. 맞죠, 에두아르? 당신도 봤죠?”

“네. 생제르맹이었습니다.” 하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라울의 자동차는 시동을 걸어 출발하고 있었다.

삼백 미터쯤 가자 그들은 국도 오른쪽으로 꺾어 센 강을 건넜다. 국도 190번선. 그곳은 루앙, 노르망디를 향한 길이었다.

제롬은 분에 겨워 이를 갈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도요. 그 남자가 파리에서 사고나 할 차를 가져왔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정원에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시승을 권했던 거예요. 그녀는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자마자 내려가려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막아섰고, 그녀는 비명을 지른 거죠. 에두아르도 제가 들었던 그 비명을 함께 들었어요. 에두아르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차는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종이 뭐야?”

“카브리올레.”

“특징은?”

“연한 노란색 차체.”

“얼마나 앞서 나갔지?”

“최대 십 분.”

“따라잡을 수 있어. 페리시엔이 운전 실력이 형편없거든.”

라울은 생제르맹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베르사유 쪽으로 향했다.

“직선 도로가 십 이 킬로미터 정도 나온다. 이제 속도를 내자.”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거야?”

“생각이 났거든. 페리시엔은 푸아투에서 자랐어.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오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가 익숙한 지역으로 피신했을 거라고 가정해야 해. 국도 10번이 맞을 거야.”

“만약 틀렸으면?”

“그때문에.”

그들은 베르사유의 아르므 광장을 미친 듯이 질주해 지나쳤고, 생시르와 트랩스를 향해 달렸다.

“이미 노란색 카브리올레를 봐야 해. 페리시앙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어야 해.”

“하지만, 정말 확신하십니까?”

“물론이지. 시속 110킬로로 달리고 있으니까. 이 속도로라면 랑부예에 닿기 전에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어.”

그는 즉각적인 승리에 만족했다. 도저히 패배와 수치심을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페리시앙에 대한 복수였다.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제롬이 반문했다.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지. 봐, 저기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거 아냐?”

“네! 맞아요!” 제롬이 외쳤다.

그는 갑자기 격분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저 비열한 놈! 내가 알았어.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로랑드에 게 스무 번은 말했어.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해 왔어.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녀 주변을 맴돌았지. 심지어 불쌍한 엘리자베스 시절부터 말이야. 그걸 눈치챈 것도 그녀였어. 그는 그녀를 사랑해, 내 말 믿어, monsieur. 아, 저 연극쟁이. 그는 감추려 하지만, 파우스틴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할 뿐이야.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향한 증오를, 잔인한 질투를 느꼈어. 그녀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비록 당당해振振하지만, 분노로 몸이 떨렸지. 그는 그녀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데려가려 해. 아, 만약 그가 도망친다면… 그가 도망쳐서 로랑드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야! 어서 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라울은 속 깊은 곳에서 모호하지만 확실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을 자각하면서도 아예 즐기곤 했다. 정말로, 페리엔은 가끔씩 놀랄 만큼 품위가 있었다.

경찰에 쫓기고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도, 그 녀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파우스틴을 정복하고, 롤랑드를 납치하는 일이었다!

위협에 맞서 방어하거나 조심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전투 한복판에 남아, 심지어는 상황의 결과를 불문하고 공격에 나섰다. 그 도적, 정말 용감하단 말인가!

랑부이에의 길고 구불거리는 포장 도로에서는 두 대의 마차가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샤프트르와 투르로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하나 고르자고.” 라울이 말했다.

제롬은 완전히 당황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겁쟁이! 내가 롤란드에게 경계하라고 했잖아. 속임수를 쓰는 자, 위선자.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래, 그 밖의 모든 것도. 나한테는 오렌지 나무 정원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 아, 만약 내가 그자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는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라울은 그 남자가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하며, 운동 신경이 뛰어난 운동선수 같은 체형이라고 생각했다. 외관상 더 마르고 약해 보이는 페시앙이라면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라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페달을 끝까지 밟아, 자신의 원한이 갚아주기를 바라는 도주자를 반드시 쫓아붙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번 꺾인 도로 너머, 300~400미터 떨어진 곳에 노란색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라울의 차는 마치 경마의 마지막 질주처럼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였다. 이제 어떤 장애물이나 거리도 그 낯치범이 붙잡히지 못하게 막을 수 없었다.

서로 가까워지는 기미조차 없었다. 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갑자기 라울의 차가 다른 차 앞에 끼어들었다. 추돌할 뻔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차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불과 50미터 동안 도로 가장자리에서 꼼짝도 못 하게 멈춰 섰다.

앞도 뒤도 사람 하나 없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제롬 헬마스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페실리안도 곧이어 옆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도로 한가운데, 롤랑드가 비틀거리며 내려섰다.

제롬은 먼저 싸움터로 달려들다가도, 곧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격을 준비하는 권투 선수처럼.

페실리안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젊은 여자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려 했다. 라울 드아베르니가 그녀를 막아섰고, 어깨를 잡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그는 그녀의 팔을 뿌리치려 했다.

“아니, 저자들이 싸우잖아.”

“그리고 나서?”

“싫어. 그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걱정 마. 나는 알고 싶어.”

“끔찍해. 나를 놓아줘.”

“아니, 라울이 말했다. 그가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어.”

롤랑드는 그의 품에서 몸부림쳤지만, 라울은 단단히 붙잡고 피시앙을 집요하게 지켜보았다.

피시앙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오히려 미소 짓고 있었다. 도발적이고 비웃는 듯한, 경멸과 자신감이 가득한 미소였다. 가능할까?

두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롬 헬마스가 멈춰 서서 두 번이나 으르렁거렸다.

“꺼져… 꺼져… 안 그럼…”

상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미소는 더 뚜렷해졌다. 그는 방어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아직 한 발, 그리고 한 발.

자신의 강력한 전신을 다해 Jérôme가 전진하며, 다가오는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Félicien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몸을 피하고, 충동을 모면했다.

Jérôme는 힘에 밀려 날아갔다가 몸을 돌리며 외쳤다.

“움직이지 마, Rolande. 일은 끝났어.”

그리고 격렬하고 치열한 복싱 시합이 시작되었다. Félicien은 다리에 힘을 주어 굳게 버티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첫 교전 후, Jérôme는 이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상대에게 돌진해 팔을 감싸 쥐고 온 힘을 다해 조여 올랐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려 했다.

Félicien은 잠시 버텼다. 그는 뒤로 굽혀져 허리가 거의 부러질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저항을 멈추고 쓰러지며, Jérôme Helmas도 함께 끌어내렸다.

소녀는 여전히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라울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무기를 꺼내면 제가 막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런, 잔인하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해요.”

그리고 곧 그 싸움은 끝이 났다. 두 사나이가 바닥과 먼지 많은 풀밭 위를 구르며 몸부림쳤다. 페실리엔은 기운이 빠진 기색이 역력했고, 결말은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페실리엔이 일어나 손바닥으로 옷의 먼지를 털어내자, 제롬은 신음하며 꼼짝도 하지 못했다.

“호호, 정말 잘했다.” 라울이 비웃듯 말했다.

그는 패배한 자 쪽으로 재빨리 다가가 몸을 숙여 확인했다. 제롬은 팔에 심한 통증이 있을 뿐, 다른 부상은 없었다.

“두 분만 있으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놈과 더 이상 붙잡히지 마십시오.”

펠리시앙은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도, 기쁨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경쟁자를 제압한 적이 없는 듯했다.

그는 롤란드 곁을 지나갔다. 롤란드는 그를 꾸짖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라울의 포위에서 벗어난 롤란드는 불안하고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라울을 보고, 주변을 살폈다.

먼저, 도로 위를 한 대의 자동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랑부예로 돌아가는 빈 택시였다. 그녀는 운전사를 불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차에 올랐다.

일어나 있던 제롬이 손짓을 하며 그녀의 옆자리에 올랐다. 택시는 출발했다.

페실리앙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차에 타려던 참이었다.

라울이 그를 불렀다.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주짓수였군요. 고전적인 기술이긴 했지만, 실행력이 훌륭했습니다. 팔을 비틀어 버리다니요. 어디서 그 기술을 배웠습니까? 권투 선수의 마스터리라니요! 재차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롬이 키와 체중에서 훨씬 우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페실리앙은 무관심한 듯 손짓하며 차 문을 열었다. 그러나 라울이 그를 막아섰다.

“당신은 늘 나를 놀라게 합니다, 페실리앙. 참으로 이상한 성격이군요. 롤랑드를 너무 사랑해서 미쳐 버리고, 그녀를 납치할 정도였는데, 이제서는 그녀를 적에게 내맡기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약혼했어요.”

“아니, 이기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상식이니까.”

페실리앙은 라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이면의 날카로움은 숨기지 않았다.

“저도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아마 이겼을지도요. 만약 당신이 제롬 편을 들지 않았다면.”

그가 고개를 돌려 라울을 향했다.

“당신도 그들을 약혼한 줄 아시죠. 당신 눈에는 제가 그저 쫓겨나는 도둑 같은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운명에 맡길 뿐이죠.”

신비로운 말들이었다. 세 젊은이의 모든 행동이 그랬듯, 롤랑드의 태도도 그랬다. 페실리가 떠난 뒤, 라울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미 그 비밀스러운 의미를 파악했던 사실들에 새로운 사실들이 이어졌다. 새로운 사실들은 기존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추측들이 구체화되어 갔다. 진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더 논리적으로 다가왔다. 안개를 걷어내는 이 순간만큼 고취되는 경험도 없다!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계속 길을 갔다. 그는 상쾌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고, 가끔씩은 웃음을 터뜨리며 작은 소리로 즐겁게 중얼거렸다.

“그래, 뭐라고? 운동선수? 완전한 운동신경을 가진 아가씨?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건축가 같은 외모 뒤에는 근육과 신경, 의지와 용기, 그리고 대담함이 숨어 있다는 거야? 정말 매력적인 젊은이잖아! 유도, 복싱, 그리고 발차기 기술 몇 가지만 가르쳐 주면 충분히 존경할 만한 신사가 될 수 있어. 듣게, 오래된 친구 뤼팽. 아들로선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군. 한번 살펴봐야겠어, 오래된 친구 뤼팽.”

라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세상이 밝게 빛나 보였다. 분명히, 젊은 페르시엔의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

노낭쿠르르... 에브뢰... 리외... 밤 8시쯤, 라울은 카앙의 큰 호텔에 내려와 차 트렁크에 항상 준비해 두었던 가방을 꺼내 들었고, 저녁을 먹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가베렐 씨의 옛 친구이자, 엘리자베트 가베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르주 뒤그리발에 대한 조사였다.

제14장

조르주 뒤그리발은 늘 넉넉한 삶을 살아왔다. 노르망디의 광산과 제철소에 막대한 지분을 가진 그의 재산은, 그가 경마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경주용 말들을 기르는 마구간과 경마장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풍족했다.

그는 하인들만 데리고, 카앙의 고요하고 풍성한 옛 거리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서 살았다. 외벽에는 레지스앙 시대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높은 창문들은 그 시대 특유의 우아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 집은 한적하고 드문 거리와 마주하고 있었다.

라울은 그날 밤, 몇 번이나 그 집을 지나쳤다. 높은 창문 세 개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나는 현관 옆 경비실의 불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1층에 자리 잡은 방들의 것이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곳이 침실임이 분명했다.

라울의 첫 생각은 조르주 뒤그리발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뒤그리발에게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조사를 벌이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간암으로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린 뒤그리발이 지금 막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었다. 그를 만날 기회는 전혀 없었다.

조명이 켜져 있던 방이 바로 그가 머무는 방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밤낮으로 두 명의 경비원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문지기 또한 잠들지 않고, 언제든지 의사를 부르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라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론은 밤에 침입해서 방문하는 수밖에 없군.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까?’

저택은 깊숙이 들어차 있었다. 뒷면은 정원으로 통하는 안뜰을 바라보았고, 그 안뜰은 높은 담장 하나로 나란히 달리는 거리와 분리되어 있었다. 안뜰로 나가는 문은 무겁고 거대한 것이었다. 담장은 무려 5미터나 높았고, 맞은편 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변화한 곳이었다.

이런 조건이니, 계획은 실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라울은 고민 끝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경악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유리창 너머로, 식당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 펠리시앙 샤를과 파스티나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떤 음흉한 꾀를 꾸미고 있는 걸까. 우연히 같은 상황에 처해 동맹을 맺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뤼팽이 그들을 본 순간 느꼈던 친밀감, 즉 사적인 관계가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아침 식사를 주문할까 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들이 어떤 차가운 어조와 악의 가득한 웃음으로 자신을 대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왜 조르주 뒤 그리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걸까.

급하게 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으면서, 그는 층계 소년에게 재치 있게 질문을 던졌다.

부부는 야간 열차로 도착해 방 두 개를 예약했다. 호텔이 거의 만실이라, 부인은 2층에, 남자는 4층에 묵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그 남자는 혼자 집을 나섰다. 여인은 방을 떠나지 않았다.

라울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 몸을 기울인 채, 함께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처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끝내기 전에, 라울은 호텔 근처 공원에 숨어 들었다.

스무 분 뒤, 페리시앙이 나왔다. 그는 혼자였다.

울타리 철새 사이로 라울은 그의 표정이 단호함을 알아챘다. 페리시앙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목적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는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울은 조르주 뒤그리발이 사는 마을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으로 곧장 가는 대신, 평행하게 이어진 거리, 즉 안마당을 끼고 있는 쪽 길로 발길을 돌렸다.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이지?’ 라울은 혼자 중얼거렸다. ‘낮에 벽을 넘을 리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근처 상인들 앞에서 그럴 리가 없어. 내 기억에 그가 주머니에 사다리를 넣고 다닌 적도 없잖아. 더구나 자물쇠를 부수는 건 이런 시간대에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복잡한 일이고, 주의를 끌기 마련이지. 그러다 보면 보통 경찰서로 끌려가게 돼.’

펠리시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지,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디를 택할지 고민할 리가 없었다. 그는 발걸음이 빨랐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해서 눈길을 끌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높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다가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다.

“잘했다.” 라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정말 조심성이 많군.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문을 열 줄 안다. 닫힌 문은 그 문에 맞는 열쇠로 여는 것이니까. 그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다. 누가 그걸 이상하게 여길까?”

사실, 젊은이는 열쇠를 두 번 돌려 잠금을 풀고, 다시 안쪽 잠금을 여는 다른 열쇠를 두 번 돌렸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

라울은 이런 생각을 했다. 페리시앙이 문이 닫힌 줄 알았을 테니까, 아마도 문고리를 돌려 잠그는 것만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이중 잠금 장치가 아닌 자물쇠를 따는 것은 초보자의 영역이었다. 혹과 풍부한 경험만 있으면 충분했다. 라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는 페리시앙이 썼던 의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거리를 건너 혹은 문틈에 끼워 넣고, 손으로 조종했다. 그러자 ‘두 번째 신사’는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의 왼쪽 절반은 층이 없는 증축 건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채 창문에서는 이 지하실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라울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먼저 작은 현관이 나왔다. 한쪽으로는 코트 몇 개가 걸린 옷장 방이 있고, 맞은편으로는 뒤그리발이 혼자 쓰기 위해 마련한 방이 있었다. 뒤그리발은 그곳에 큰 책상과 선반, 서고를 갖다 놓았다. 바닥에는 여기저기 카펫이 깔려 있었다.

구석에 문이 열린 찬장이 있었다. 그 안에 금고가 숨어 있었다. 그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은 펠리시앙이었다.

그는 너무 일에 몰두해 있어, 라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라울은 아예 문턱에 서서, 문틈 사이로 고개만 내밀고 있었다.

페르시아는 금고 앞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세 개의 다이얼을 돌렸다. 마치 조합 숫자를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금고용 열쇠를 사용해, 해당 금고에 딱 맞는 열쇠가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했다.

무거운 강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는 제목조차 보지 않았다. 분명 다른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맨 위의 서류를 치우고, 중간 칸의 서류도 밀어냈다. 손으로 서류 뒤편을 더듬었다. 두 번째 시도 만에, 그는 푸른색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는 제법 컸고, 그가 찾던 물건임이 분명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창문 쪽으로 몸을 약간 돌려 시야를 확보했다. 덕분에 라울은 그의 움직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뚜껑이 들어 올랐다. 푸른 보석함 안에는 반쯤 가득 찬 여섯 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었다. 젊은이는 그것을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다니 차분한 손동작으로 주머니에 하나씩 넣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라울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이 미리 철저히 준비되었고, 정보 수집과 조치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할 수 있었다. 그는 마당이나 집안에서 나는 소리조차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이 시간

에는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라.”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이 내린 명령이었다. 페리시앙이 바로 그 아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명령은 분명히 실행에 옮겨졌다. 페리시앙은 흠뻑고, 침입까지 저질렀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차분하고, 방법론에 따라, 그리고 신중하게. 아르센 뤼팡이 해도 이 정도가 다였을 것이다.

그는 상자를 비운 뒤, 안에 숨겨진 이중 바닥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다음 금고의 아래 칸에 파일들만 들어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을 닫으려 했다.

만남을 피하고 싶었던 라울은 옷장 속으로 숨어들어 옷가지들 뒤에 몸을 숨겼다. 반면 페리시앙에게 그런 걱정은 전혀 없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자리를 떠났다. 자신을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당 끝까지 걸어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열쇠로 자물쇠를 잠그고, 다시 열쇠로 빗장을 채웠다.

라울은 큰 방으로 돌아왔다. 페리시앙의 안전은 그토록 철저해서, 그는 그 안도감을 혼자만 간직하며 편한 안락의자에 앉아 마음껏 사색에 잠겼다.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다.’

칼리오스트로의 의도가 실현되고 있었다. 페리시앵은 도둑질을 했고, 그마저도 아버지의 눈앞에서 저질렀다. 얼마나 끔찍한 복수인가!

‘역시 끔찍하군. 정말 내 아들이라면 말이야. 하지만 내 아들이 도둑일 리가 없잖아. 자, 뤼팽. 너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해. 아무도 듣지 않잖아. 연기할 필요도 없어. 잘 들어. 네 충직한 양심 깊은 곳에서, 단 한 순간이라도 그 평범한 사기꾼이 네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겪지 않았겠어? 맞아, 그렇지? 그런데 페리시앵이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너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지. 그러니 페리시앵은 네 아들이 아니야. 이건 물보다 맑은 진실이고, 누구든 내 주장을 뒤집어 보라고 도전을 받아. 확실히 말하지만, 옛 친구 페리시앵, 네 행적은 다시 한 번 추락했군. 네가 재미삼아 훔쳐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덧붙였다.

“이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군.”

하지만 라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추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 서랍장을 뒤져야 했다.

그는 자물쇠를 깔끔하게 따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했다. 남이 도둑질을 할 때면 분노에 떨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손님을 들일 때는 그런 혐오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을.

당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성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이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졌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비밀 칸에서 그는 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두 다스(24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여성적인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으나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몇 가지 디테일에서 출처가 명확했다.

이 편지들은 엘리자베스와 롤랑드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편지 내용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두 남자 사이의 결별 당시에 가베르 부인은 남편에게 충실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조르주 뒤그리발의 사랑에 빠졌다는 추측은 나중해야 가능했다. 편지 속 은유적인 언급들과, 점점 더 부드럽게 변하는 어조가 그 사실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자매 중 한 명이 조르주 뒤그리발의 딸이라면, 그 사람은 롤란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그것을 단정할 권리가 없었다. 로랑드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른 채로 남아야 했다.

이것은 어머니가 가장 신경 썼던 문제 중 하나였다. 어머니의 지시 중 가장 단호했던 문장은 이랬다.

“그녀가 결코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들어온 길이 막혀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일곱 시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네 계단을 올랐다.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넓은 거실이었다. 커튼이 겹쳐져 있어 방 안은 거의 어둡혔고, 가구와 피아노에는 모두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 뒤로는 현관이 나왔다. 현관에서는 넓은 계단이 시작되었고, 동공창을 통해 문지기 사무실도 내다보였다.

여덟 시쯤, 집안에 급박한 움직임이 일었다. 두 명의 신사가 내려왔다. 그들은 의사를 부르러 갔고, 의사는 두 신사와 몇 마디 나누더니 곧장 계단을 올랐다.

그들은 옷차림이 초라했다. 관리인과 낮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더니, 기다리는 동안 현관 의자에 앉았다.

살롱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그 문 근처에 모여 또 수군거렸다. 라울은 그들의 말을 몇 마디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조르주 뒤그리발의 사촌들이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일주일에서 열흘 안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안뜰 서재에 봉인을 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금고에 담긴 보석 상자 때문이었다. 안에는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었다.

의사는 다시 내려왔다. 문이 열리자, 두 사촌은 옆방에서 모자를 챙겨 의사를 배웅했다. 라울은 집안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거실을 나섰다. 문지기에게서 문을 열어준 의사의 손을 잡고는, 태연히 자리를 떴다.

저녁 10시, 라울은 카앙시를 떠났다.

길에서 돌풍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를 만났다. 그는 리시에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늦게야 생제르맹 언덕 아래 페크 다리를 건넜다.

운전원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 소식이 있나?” 라울이 물었다.

남자가 재빨리 그의 옆에 앉았다.

“네, 사장님. 다른 길로 오실까 봐 걱정했어요!”

“이야기해 봐.”

“고소 형사가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다.”

“우리 집? 클레르로지에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니, 당신 집이 아니라, 별장에서였어.”

“펠리시엔의 집? 그가 있었어?”

“응, 어제 밤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그가 있는 앞에서 뒤졌지.”

“무슨 걸 찾아냈어?”

“나도 몰라.”

“그를 데려갔어?”

“아니야. 하지만 빌라 주변이 완전히 포위됐어. 펠리시엔은 밖으로 나가는 게 금지됐고, 직원들도 밖으로 나가려면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해. 나는 미리 대비해서 먼저 빠져나왔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영장이라도 나왔어?”

“글쎄... 어쨌든 고소 형사가 본부에서 나온 서류를 하나 들고 있었어. 당신을 겨냥한 거였지. 그리고 당신의 귀환을 엿보고 있는 중이야.”

“헛! 잘했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아서. 함정에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나를 체포하다니? 아니, 아니…… 그들은 감히 그러지 못할 거야. 그래도…… 그래도 소규모 수색은 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엔?”

잠시 후,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돌아가. 나는 내일 아침까지 라넬리에 있는 우리 집에서 꼼짝하지 않을 거야. 오후에 전화할 테니.”

“그런데 구소? 형사들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까지 떠났다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럼 알아서 해. 아, 한 마디 더…… 파우스틴은?”

“그들이 그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쯤 클리닉에 들를 예정이 있다고요.”

“오, 오! 상황이 심각해졌군. 얼른 꺼져.”

운전사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라울은 국도와 베시네를 피하기 위해 크루아시쉬르센을 돌아 샤투까지 올라갔다.

우체국에서 그는 클리닉에 전화를 걸었다.

“파스티네 부인, 연결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인지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했다.

“다베르니 씨입니다.”

젊은 여성이 호출되었다.

“파스티네? 나야, 다베르니. 들어봐. 너에게 위험이 닥쳤어. 믿어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호텔 정산을 마치고, 샤투 밖 크루아시 도로에서 나를 만나. 서두르지 않아도 돼. 시간은 충분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십 분 후, 그녀는 손에 가방을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말 없이 그들은 부기발과 말메손을 지나 달렸다. 노이이에서 그가 물었다.

“어디에 내려주면 되지?”

“마요 문 앞이야.”

“주소 치곤 좀 모호하군.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가 비웃듯 말했다.

“바보 같은 짓이군. 우리 모두의 골치거리가 생긴 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네가 어제 카앙에서 내가 먹은 점심, 네가 묵었던 호텔에서 함께한 식사, 그리고 뒤그리발의 집에서 페리시엔이 당한 절도 사건을 막았다고 생각해? 네가 파스틴, 너를 설득해서 내가 평생 원해 온 것을 얻는 것도 막았다고 믿나? 잘 있거라, 사랑스러운 사람아.”

라울은 파리의 은신처인 라네라주로 숨어들었다.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 낮부터 밤까지 내내 잠에 빠졌다.

다음 날, 그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루셀랭 판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전달하게 했다.

그때는 9월 15일, 수요일이었다.

제15장

몇 분의 시간이 지났지만, 법관 심부름꾼이 그를 안내하고 들어섰을 때, 라울은 루셀랭 법관의 놀람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을 알아챘다.

아베르니 공작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올 리가 없지 않은가. 법관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라울이 손을 내밀었다. 당황한 루셀랭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이런 게 ‘강요된 손’이지.” 라울이 웃으며 말했다.

상대가 미소 짓자, 라울은 농담조로 덧붙였다.

“사실 우리 사건 전체의 핵심도 그거야. 이번에도 페리시앙 샤를에게 네 손을 강요하려는 거지. 오늘은 나까지 합쳐서.”

“나에게?” 루셀랭이 입을 열었다.

“그럼 그렇지. 구소프 변호사가 나를 체포할 영장을 품에 숨겨두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최대한 소환장을 보내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나친 처신입니다, 판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친애하는 뤼팽 씨, 당신의 식견이 필요합니다’라고요. 그러면 저는 곧장 달려가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루셀랑 판사는 이 사나이가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지위를 ‘협력자’로 확실히 정립해 버린 데 웃음을 띠었다. 판사는 즉시 서기를 돌려보내며 치안국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요청한 인물을 즉시 보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상쾌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도와달다니? 하하, 당신에게 바라는 건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야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 혼자서 마음껏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두 달이 다 되어가네요, 아베르니 씨.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시더군요. 사건을 조종하고, 페르시앙을 감옥에 보내고, 그 자리에 토마르 부크를 앉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오. 사흘만 더 주십시오.”

“그건 두고 봅시다. 먼저 페르시아 샴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어제 아침, 당신을 소환하러 왔던 구소 형사는 클레르로지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죠. 그 공백을 이용해 페르시아 샴시의 집을 다시 한번 압수 수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구석에서 두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칼과 톱날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그 칼이...”

“판사님,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저는 페르시아 샴시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변호하러 온 거죠?”

“저를요. 네, 바로 저를요. 지금 판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난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비난, 정확히 말해 사실상 기소장과 같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루셀랭 판사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아베르니 자작님, 여전히 자유분방하시군요. 이제 우리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점을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판사님께서 저를 비난하신 그 이유를요.”

“좋습니다.” 루셀랭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모든 전말과 제 조사 과정, 그리고 토마 르 부크의 모든 진술과 누락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그 정도를 정

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당신도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제 추측이 틀린가요?”

“저도 같은 솔직함으로 답합니다. 틀리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토마 르 부크를 체포하고 그의 진술을 조작한 게 맞죠?”

“시인합니다.”

“왜요?”

“페리시앙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그녀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사법부가 도무지 규명
하지 못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자유롭게 행
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 결정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한, 그건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드릴까요?”

“어제 일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당신이 간호사로 파견한 파스티나라는 여자가, 시몽 로랑을 돌본 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몽 로랑의 애인이라는 주장이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날 낮, 구소가 그 여자를 취재하러 클리닉에 갔죠. 그런데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드아베르니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구소는 그녀가 사는 펜션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오 반쯤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난 뒤였죠. 아마도 그분 차였겠죠?”

“내 차였지.”

그때, 루셀랭 판사의 집무실 문이 두드려졌다. 판사가 “들어오라” 하고 대답했다.

강인한 체격의 허락이 들어섰다.

“판사님, 부르셨습니까?”

“네, 간단한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먼저 소개를 하지요. ‘모레온 형사국 책임자입니다.’ 드아베르니 씨, 모레온 형사를 아시죠?”

“물론이지. 마를레온 지사는 ‘방위 채권 사건’ 당시 저명한 아르센 뤼팽의 가장 치열한 적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 마를레온.” 루셀랭이 다시 물었다. “다브르니 씨를 아십니까?”

마를레온은 멍하니 서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은 라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더듬듯 중얼거렸다.

“아... 네, 맞아요... 크레블뤼, 크레블뤼, 하지만 이건...”

지배 심문이 그를 막아섰다. 팔을 잡아끌어 한쪽으로 데려간 뒤, 두 사람은 한두 분 동안 격렬한 수군거림을 나눴다.

그리고 루셀랭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마를레온. 동료 몇 명 불러와서 함께 있으라고 하시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알겠소?”

그가 다시 돌아와서는 짧고 굵은 다리를 힘차게 내딛기 시작했다. 배는 퐁퐁 튀었고, 평온해 보이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라울은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끝이군. 내가 누구인지 알아챈 거야. 솔직히 그는 홍보 따위에는 관심 없어 보이지만, 뤼팽을 체포한다면 그야말로 큰 영광이 될 텐데.’

하지만 감히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점이 관건이다. 만약 그가 직접 행동에 나서서 영장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 세상에 그 누구도!

루셀랭 씨는 갑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문구용 칼로 테이블을 툭 치며 쉼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럼 대가로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대가로요?”

“수사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죠.”

라울은 이 거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루셀랭 씨가 다시 한번 질문을 되풀이하자, 라울은 아랑곳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제안하는 것? 엘리자베트 가베르를 살해하게 만든, 계단을 받치던 두 기둥을 잘라낸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의 이름과, 시몽 로랑을 때려 죽인 자의 이름을 말입니다.”

“팬지와 종이를 드리죠. 이름을 적으세요.”

“사흘 뒤입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그때쯤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제가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요.”

“두 용의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누구라고요? 당신에게 침묵할 권리는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범인은 페리시앵 샤를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제롬과 롤랑드 부부일 수도 있죠.”

루셀랭 씨가 헐떡이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사건을 두고 그러시는 거죠?”

“토요일 아침에 있을 결혼식 말입니다.”

“그 결혼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요. 상관있죠. 제가 보기엔 그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범인이 페리시앵이라면요.”

“왜요?”

“페리시앵이 롤랑드를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두 번이나 죄를 지었고, 이미 납치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 남자가 자신이 이미 때린 남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건이 있던 그 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죠?”

“돈입니다. 롤랑드는 곧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사촌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녀의 아버지죠. 그리고 페리시앵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결혼을 받아들인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잘못 본 셈이군. 범인은 살해의 이득을 본 자들이다. 롤랑드와 제롬이지.”

“파스티나呢?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도 잘 모릅니다. 라울이 시인했다. 하지만 파스티나는 연인 시몽 로랑의 복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안다. 그녀가 페르시앵, 롤랑드, 제롬이라는 삼인조 주변을 맴도는 건,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그들을 향하게 했기 때문이다. 페르시앵, 롤랑드, 제롬…… 더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오!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그것들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야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만약 사법 기관이 개입한다면, 모든 것은 끝장이다.”

“왜요? 우리가 따라갈 그 단서가……”

“이 추로는 아무런 확신도 안 줍니다. 진제는 제 두뇌 안에 있죠. 문제의 모든 단서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없으면, 두 달째 그렇게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게 될 테니까요.”

루셀랑 판사는 망설였다. 라울이 그에게 다가가,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판사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루셀랑 판사는 즉시 반발했다.

“판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선생님.”

“그렇죠.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라는 겁니까?”

라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루셀랑 씨는 매우 초조해졌다. 그는 다시 작고 경쾌한 걸음걸이를 되찾았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양심이 가리키는 그 길을 혼자 따라가기에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던 루셀랑 씨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라울은 몰롱 주임이 몇몇 동료들과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루셀랭 씨는 안심했다. 감시가 철저히 되어 있었으니까…… 그는 밖으로 나갔다.

라울 드아베르니는 홀로 남았다.

잠시 후 라울은 문을 살짝 벌렸다. 몰롱 주임이 재빨리 다가왔다. 라울은 손으로 다정한 제스처를 취한 뒤, 주임의 코앞에서 문을 다시 닫았다.

열 분이나 지났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

루셀랭 씨가 막 고문상에게 자문을 구한 터였다. 그 상위의 지시였음에 틀림없었다. 루셀랭 씨가 사무실로 돌아올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을 열었다.

“결론은…”

“결론은요, 토요일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페리시앙 샤를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가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움직이려 들면, 발과 손을 묶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열한 시까지 저에게서 전화 한 통 없으면, 결혼식이 치러진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

“그 경우?”

“내일 오전 열한 시쯤 클레르 로지스까지 잠깐 들러 주시오. 일요일 이니까 쉬는 날이죠. 함께 수도도 나누고요. 만약 점심도 함께 드시려 거든…”

루셀랭은 어깨를 으쓱하며 투덜거렸다.

“구소와 그 일행도 데려가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울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항상 물건을 단단히 포장하고 단단히 묶어서 건네주니까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구소에게 잠시 베지네에서 모든 작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몇 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그 곳이 아주 조용하기를 바랍니다.”

압도당한 루셀랭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필요 없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이미 편지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에 있는 종이요.”

이제야 루셀랭 씨의 불만이 싹 사라졌다. 그는 큰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서명하는 대신, 구소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 그는 라울 드아 베르니를 복도 끝까지 배웅했다. 라울은 모를론과 경찰들을 지나쳤는데, 다리를 디딜 때마다 고요하게 몸이 흔들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친절한 인사를 건넸다.

목요일과 금요일 내내 라울과 페리시앙은 클레르로지의 울타리를 넘어 나가지 않았다. 철조망이 올라간 담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이 참여하거나 알 필요 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하지만 오로지 시설 설치와 장식 작업을 위해 만날 뿐이었다. 어제의 일이나 내일의 일을 암시하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압수수색, 새로운 혐의, 경찰의 위협적인 포위망,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유로워진 그들의 행동. 롤랑드와 제롬의 결혼까지.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라울은 사실 그다지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들이 가진 잔혹함이나 신비로움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문제는 오직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제기되었다. 만약 그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애썼다면, 그것은 드라마의 세 주인공들이 여전히 그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미지의 존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 달 동안 페리시앙의 삶 대부분을 지켜봤다. 하지만 페리시앙의 깊은 생각과 본능을 알 수 없었기에, 그가 숨긴 행동을 짐작해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롤랑드와 제롬의 진짜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먼 곳의 인물들 같았다. 안개 속을 떠도는 유령처럼 희미하게 사라져 갔다.

라울은 항상 망설일 때 내세우던 그 확신 어린 어조로 루셀랭 씨에게 말했다. 루셀랭 씨는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이들이 그러하듯, 그 확신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속으로 그는 단 한 가지만 단정할 수 있었다. 논리적 추리와 직관이 섞인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이랬다. 제롬과 롤랑드의 결혼은 그 자체로 이미 해결책이었다. 페리시앙, 제롬, 롤랑드 세 사람이 그 해결책에 설명을 더할 뿐이었다.

그런데 페리시앙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심한 척했다. 물론 납치 미수로 클레마티스 저택 문은 닫혔고, 시청이나 교회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시청에서 서명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얼굴 근육 하나도 굳지 않았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뒤였다. 롤랑드는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성을 달고 있었다. 손가락에는 혼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페리시앙은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자신의 신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사랑을 억누르고 있었던 걸까?

라울은 그를 열렬히 지켜보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포착하지 못했다. 젊은 남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했고, 인테리어 계획도 세웠다. 마치 그의 삶에 심각한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그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오후 내내 그렇게 흘러갔다. 9월의 아름다운 하루처럼 평화로웠고, 몇 장의 낙엽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녁 내내 라울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야? 지금 일어나게 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어째서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를 납치했던 거지?”

그때 그림자가 찾아왔다.

밤이 깊어졌다. 캄캄하고 무더웠으며, 신비로움이 가득한 밤이었다. 라울은 몰래 클레르 로지스를 빠져나왔다. 차고 쪽 출구를 통해 나온 그는 소유지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게이트 근처 어둠 속에 숨어 들었다.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페시앙이 카앙에서 조르주 뒤그리발의 집에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페시앙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푸른 보석함에서 보석들을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다.

또 그는 로랑드가 “그가 저를 죽일 거예요”라고 더듬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페시앙과 제롬 헬마스의 결투 장면도 그려냈다.

그는 파스틴의 기묘한 행적도 기억해냈다. 파스틴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드라마의 네 등장인물 중 한 명인 파스틴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맡은 역할을 저버릴 여성이 아닐까?

어딘가에서 시계가 열 시를 알렸다.

가사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롤랑드의 삼촌 필립 가브렐이 결혼식을 위해 남부에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다. 페리시앙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가족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클레마티스’ 저택에는 부부 둘만 남았다.

페리시앙은 이제 포기할까? 적을 향해 나서고, 롤랑드의 남편을 제거할 생각은 없을까?

다시 열다섯 분.

그리고 반시계가 울렸다.

아베뉴에 숨어 있던 라울은 자갈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다가왔다. 울문이 가볍게 열렸다 닫혔다.

누군가 앞으로 나섰다. 바로 페리시앙 샤를의 그림자였다.

라울은 나무 너머로 살짝 몸을 숨긴 틈을 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페르시아는 그 모습을 볼 새도 없이, 라울이 덤벼들어 그를 껴안고 쓰러뜨렸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페르시아는 저항할 틈도 주지 못했다. 천 조각이 그의 머리를 덮었고, 끈이 그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라울은 그를 안아 클레르로지까지 옮겼다. 현관 기둥에 다른 끈으로 그를 묶어 고정하고, 커튼으로 그를 감싸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다. 그는 그곳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

그리고 라울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그곳을 떠났다.

제16장

라울은 언젠가 밤중에 어떤 집에 침입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럴 경우를 위해 그는 아주 일찍부터 준비를 해두었다.

그 덕분에 그는 오랑제리 정원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채소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클레마티트 빌라의 옆면 벽에 붙어 있는 등나무 덩굴을 받쳐주는 못들의 위치도 미리 적어두었다.

그는 다시 채소밭으로 들어갔다. 오랑제리 앞 연못을 따라 걸으며 불빛이 모두 꺼진 건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 쪽으로 다다랐다.

식당과 그 위의 방은 어두웠다. 반면 스튜디오는 환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롤랑드와 그의 부인은 위층 방에 있을 터였다. 불빛이 보이는 그곳은 롤랑드가 알다시피, 젊은이의 작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계단 칸 너

며 신혼부부로 꾸며진 큰 방이었다. 그 방 뒤로는 엘리자베스의 옛 아파트가 이어졌다.

그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다. 옆면 철제 격자창에 고정된 철제 발판이 손에 닿았다. 그는 무리 없이 그 발판을 디디며 위를 올랐다. 목적은 모서리 방, 즉 욕실.

벽돌 장식선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욕실 쪽으로 통하는 발코니가 나왔다. 그곳에는 작은 서재도 연결되어 있었다. 서재의 창문 달이는 닫혀 있었지만 완전히 밀폐된 것은 아니었다. 창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롤랑드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은 그의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식을 치르던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나이트드레스를 입은 뒤, 어깨를 가리는 무스린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제롬은 실내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안을 오가며 서성였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드디어 막이 올랐구나.’

라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격동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열렬하고 거의 고통스러운 정도로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없었다. 방금 시작될 장면들과 첫마디들이 그 부부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들의 심정

은 어떤지, 서로의 정은 어떤지, 나아가 그들의 삶이 숨기고 있는 비밀
까지도 즉각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이제 곧 그것을 알게 될 참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롬은 롤랑드 앞에 서서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지내?”

“조금 나아졌어.”

“그럼, 롤랑드…?”

“무슨 뜻이야?”

“왜 방금 전에 우리 방으로 먼저 가지 않았어?”

“조금만 기다려 줘.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채 그
녀를凝視하며 말했다.

“정말 이상하군요.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는데도, 아직 제가 무슨 일
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 얘기야. 모든 게 너무 기이한 상황 속에서 벌어졌잖아.
나는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변해 있었

어. 그리고 내가 고백했을 때, 네가 거절할 거라고 확신해서 몸이 떨릴 지경이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내 사랑을 바쳤을 때의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의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이건 고백이 아니야. 그냥 솔직히 털어놓는 거야. 나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는 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 하려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였다.

“내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소음 같은 게……”

“말도 안 돼. 하인들은 다른 쪽 날개, 맨 꼭대기 층에 자리 가.”

“그런데…… 잠깐, 들어 봐.”

그가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그를 앞서 나갔다. 자기 방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문을 닫고 열쇠를 채기며 말했다.

“아무도 없어. 더구나 누가 거기에 있겠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너는 내가 네 방에 들어가는 걸 항상 반대했잖아.”

“응. 난 처녀방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지친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주 부드럽게, 미묘한 동작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드러난 팔 쪽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입술이 그 팔에 닿으려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안 돼, 안 돼…… 내가 금지했잖아.”

그들은 마주 섰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제롬은 도망치듯 피하는 그 영혼의 깊이를 보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했다.

“화내지 마요, 로랑드 자네. 오늘 아침부터 자네는 평정을 잃었소. 자네가 아는 그 일 때문에 말이오. 하지만 이건 우리 사이에서 이미 정해진 일이었소. 어머니의 뜻과 의사를 자네에게도 전달했잖소. 기억나시죠? 어머니는 부유하지 않으셨소. 자네에게 물려주신 것은 약혼 반지 하나뿐이었소. 어머니는 그 반지를 절대 팔지 않으셨지. 늘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 결혼하면, 네 아버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아내와 행

동해라. 교회에서 돌아올 때만 그 반지를 아내에게 주라. 그전에는 절대 주지 마. 결혼 반지 위에 겹쳐 끼워주도록 해.”

“자네도 알고 있었잖소. 우리 의견이 일치했었지. 그런데… 그런 데… 내가 자네에게 그 반지를 건넸을 때, 자네는 기절하듯 쓰러졌소.”

로랑드는 입을 열었다.

“단순한 우연이죠. 감정이 격해져서… 피곤해서…”

“하지만… 자네는 그 반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한 손가락에는 신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금발톱으로 고정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다.

“반지와 반지 둘 다 있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고른 반지와, 어머니가 고르셔서 내게 주신 반지. 그러니까 롤란드, 이 손은 내 거야. 내가 청혼했을 때 네가 그 손 나를 넣었잖아.”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네 손을 내게 넣지 않았다고?”

“아니요. 당신은 그냥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언젠가 제게 결혼해 주시겠어요?’라고요.”

“그리고 너는 ‘네’라고 답했지.”

“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그에게 넣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제롬이 속삭였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 너는 가끔씩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어.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더더욱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 자, 좀 명확하게 해줘. 롤랑드, 너의 손을 내게 다오.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손을. 내가 잡을 권리가 있어.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것도 내 권리야.”

“무슨 말씀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 손을 입으로 맞춘 적이 있어? 내 입술이나 뺨, 이마, 머리카락까지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있어?”

“물론 아니지. 물론 아니라고.”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감돌았다.

“하지만 네가 그 이유를 말해 줬잖아. 엘리자베트 때문이야. 우리 곁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녀를 기억해서, 네가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으로 인해…… 내 스킨십을 거부했던 거지. 나는 그걸 이해했어. 오히려 네 선택을 칭찬하기도 했지.”

그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지?”

“자, 롤랑드. 너는 내 아내야.”

“그래서?”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면 너도 원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살았던 곳, 당신이 그녀를 사랑했던 곳에서요?”

그가 격분했다.

“그럼 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가자!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너는 내 아내야. 영원히 내 아내일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는 갑자기 두 팔을 들어 그녀의 목을 감싸 안고 입술을 찾았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를 밀어내며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애정 같은 건 필요 없어… 아무것도…”

그는 다시 그녀를 억누르려 했지만, 그녀에게 그런 저항의 힘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당황하며 이내 손을 놓았다. 그녀가 결코 굴복하지 않을 사람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도 많아요. 하지만 그중 한 가지만 알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제 연인이 아닌 이유는, 그가 저를 존중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어,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 도발이자 모욕에 가까웠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 롤랑드가…….”

“제발 들어요, 제롬. 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입 다물어! 입 다물어!”

그가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주먹을 들어 올렸다.

“입 다물어…… 거짓말이야.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네 말에 내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 너, 롤랑드가!”

그는 발을 구르고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러곤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를 알아.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반지를 벗어 던졌다.

그녀를 재촉하듯 그가 말했다.

“미친 짓이야! 대체 뭐하는 거야? 결혼 반지까지 던지려고 해? 네가 받아들인 반지, 내가 너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까지?”

“다른 사람이 내 손가락에 끼워준 거야. 이 반지는 네 것이 아니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우리 이름이 둘 다 새겨져 있어. 롤랑드와 제롬.”

“새겨져 있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다른 반지야. 이름도 달라.”

“거짓말!”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어… 롤랑드와 페리시앙.”

그가 그녀에게 돌진해 손목을 짝 쥐고, 금반지를 억지로 벗겨냈다.
그리고 황홀한 눈으로 그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롤랑드’… ‘페리시앙’…” 그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몸부림쳤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현실은 사방에서 그를 조여왔다. 도망칠 길이 없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미친 짓이로군… 왜 나를 결혼 상대자로 택했는지 알 수 없군… 하지만 너는 내 아내야.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 너는 내 아내… 나는 너에게 권리가 있어… 오늘 밤은 우리 신혼之夜야… 그리고 나는 내 집, 내 집에서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거야…”

그녀는 차분하지만 완고한 태도로 맞섰다.

“당신은 내 집에 있지 않아요. 오늘 밤은 우리 신혼之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낯선 이고, 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이 오가면, 당신은 떠날 거예요.”

“내가? 떠난다니, 넌 미쳤구나!” 그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당신은 자리를 비켜야 해요. 내 주인, 그리고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인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그가 오라오!” 제롬이 소리쳤다. “그가 오라고 해라!”

“저도 이미 왔어요, 제롬. 엘리자베스가 죽은 바로 그날 밤,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죠.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고, 너무도 비참해서 그에게 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후로 두 번이나 다시 찾아왔고요. 지금도 저기 있어요, 제롬. 제 방, 곧 그의 방이 될 그곳에. 방금 들린 소리도 바로 그의 것이었죠. 그는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의 신부행렬은 그의 것이니까요.”

그녀는 문으로 돌진했다. 문을 열려다,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려다.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롤랑드.”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열어드리죠. 하지만 그전에, 물러서세요. 열 걸음쯤 뒤로 물러서요.”

그는 따르지 않았다. 망설였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발코니 자리, 반쯤 닫힌 창문 뒤에 숨어 있던 라울 드아베르니는 이 비극적인 광경에 당황했다. 그 순간의 충격이 너무 컸고, 젊은 여자의 거친 기세와 억눌린 분노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라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녀가 페리시앙이 이 방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지? 그는 있을 수 없어. 내가 클레르로지에서 그를 포장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모든 추론이 무의미해진다. 논리 밖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라울은 숨을 죽인 채, 제롬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젊은 남자가 로랑드를 붙잡아 열쇠를 빼앗고, 페리시앙을 무자비하게 공격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로랑드는 작은 권총을 겨누며 다시 말했다.

“물러서. 열 걸음 뒤로 물러서.”

그는 물러섰다.

그러자 롤랑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무기로 그를 위협하는 동시에 문을 활짝 열었다.

페리시앙이 나타났다. 라울이 ‘포장’해 둔 채 클레르로지스에 남겨둔 바로 그 페리시앙이었다.

페리시앙은 방에서 나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기 쓸 데 없어요, 롤랑드. 방 안용 정장 차림인 제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싸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페리시앙의 태도는 평소보다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라울은 그의 표정이 한층 솔직해졌다고 느꼈다. 눈빛이 빛나고, 롤랑드처럼 평온하면서도 진지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어떻게 탈출한 거지?’

라울은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

페리시앙이 고개를 숙여 카펫 위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신비로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롤랑드, 이 반지를 절대 떼지 마. 당신이 그것을 차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죠.”

그리고 페리시앙은 제롬에게 말했다.

“롤랑드가 이 만남을 원했어. 내가 동의한 이유는 그녀가 항상 옳기 때문이고, 우리 셋 사이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우리 넷이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엘리자베트도 우리와 함께해요. 그녀가 죽은 이후로 엘리자베트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구했죠. 제롬,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야 조금이라도 깨달으셨나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표정은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상처를 주려 한 거라면, 롤랑드, 당신은 성공했어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은 단지 끔찍한 합정일 뿐이었어요.”

“네, 함정이야. 진실을 직감한 첫 순간부터, 네가 걸었던 함정과 맞먹는, 그것도 치명적인 함정을 생각해냈지. 이해가 되니? 알겠지?”

그녀는 몸을 약간 숙였다.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의지로는 몸을 붙잡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증오로 온몸이 들썩였다.

“아니, 난 이해 못 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벽난로 위에 놓인 여동생의 사진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거친 동작으로 그를 향해 던졌다.

“저 사진 좀 봐! 저 사진 좀 봐!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어. 네가 그녀를 사랑했고, 너는 그 여자를 죽였지. 오, 불쌍한…”

라울 드 아베르니는 로랑드와 제롬의 불화를 눈치챈 순간부터 이 비난을 예상해 왔다. 하지만 그가 놀란 것은, 과거 자신의 의심 속에서 로랑드와 제롬을 분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특정 정황들이 그를 밝혀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이 죄인이 되었을 때 로랑드가 무고할 수 있다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토록 날카로운 관찰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은, 로랑드의 연기가 얼마나 탁월하게 연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어떻게 제롬이 가장 먼저, 사랑의 맹목 속에서도 그 연기에 속았을까?

그러나 젊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가. 특히 지금 이 순간, 네가 왜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지.”

그가 말했다.

“네 동생을 가늠하게 여기는 심정, 알겠어. 네게는 희생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나를 지목한 거지.”

그는 잠시 멈추고 한 마디 덧붙였다.

“로랑드, 잠깐만. 기억나지? 우리 둘이 직접 눈으로 본 그 장면 말이야. 네 동생이 살해당하는 순간, 그 살인자인 노파르테레미의 손에 갇혀 있던 모습.”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네가 잘 아는 그 바르텔레미 말이야. 바로 그 녀석을, 네 동생을 가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총으로 처리했잖아?”

그녀도 어깨를 으쓱하며 맞받아쳤다.

“변명이나 핑계는 하지 마. 네 과거를 조사하고 너를 지켜보며 조금씩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정확해. 고백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그녀가 서랍에서 한 권의 노트를 꺼내 들며 덧붙였다.

“여기에 엘리자베트의 일기 뒤에 이어 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모두 기록해 뒀어. 이 것이 법정에 알려지면, 너는 내게나 법정에 나 유일한 죄인이 될 거야.”

“아!”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는 무슨打算이 있는 거지?”

“일단 네 죄목 목록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나를 심판할 셈이지?”

그가 비웃듯 말했다.

“나는 이미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거야.”

“아니, 너는 엘리자베트 앞에 서 있는 거야. 들어라.”

제롬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선을 페리시앙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두 상대가 제대로 무장하고 있다면, 저항해 봤자 개처럼 내팽개쳐질 것이라는 걸.

그는 주저 없이 자리에 앉았다. 다리를 편하게 꼬았다. 지루한 설교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사람처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제17장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격앙되거나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발장이 아니었다. 그저 한 모험의 요약을 들려줄 뿐이었다. 그녀는 제롬 헬마스의 본성에 대한 심리적 추측이나 어떤 해설도 덧붙이지 않았다.

“네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네 어머니였지. 변명하지 마. 너도 거의 시인했잖아. 너의 잘못으로 그녀는 죽었다. 너의 잘못은 주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위조 서명, 무보증 수표, 부정한 일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파산할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게 좋겠군.”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허구라면, 시간 낭비일 걸.”

그녀는 계속했다.

그 후 몇 년간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나도 모른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생활했을 테니까. 하지만 운명처럼 엘리자베트와 다시 마주친 뒤, 너는 베지네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클레마티스 카페를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 그때부터 너는 이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속셈이냐?”

“엘리자베트와 결혼하겠다는 거였다. 당시에는 아직 흐릿한 생각이었다. 엘리자베트가 가져온 혼수가 네野심을 채우기엔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엘리자베트가 실수처럼 털어놓은 한 가지 비밀을 계기로, 그 생각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굳어졌다.”

“정말?”

“그래. 그녀가 너에게 고백했지. 언젠가 큰돈이 들어올 거라고. 우리 어머니의 사촌이 그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돈이 있다는 거였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엘리자베트의 일기장을 네게 보여준 적이 없어. 본능적인 거리 두기 때문이었지. 다른 이들에게는 공개했으니까. 그 일기장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래서 돈 문제는 안심했고, 사촌이 아프다는 사실도 알았지. 그러자 너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엘리자베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녀가 네 청혼을 받아

들인 거야. 엘리자베트는 행복해졌어. 너도 그랬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 하지만 그 사이, 너는 다른 일을 알아냈어.”

“무엇을?”

“그 사촌이 유산을 남긴 이유를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뒤지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는 거지. 아니라고 하지 마, 이미 여러 번 들었어. 옛날 수군거림을 주워 모아 보니, 우리 아버지와 그 사촌 사이엔 다툼이 있었고, 소동도 있었던군. 그때 악담을 퍼부은 자들은 엘리자베스가 조르주 뒤그리발의 딸이라고 떠들었지. 그 이름을 꺼내는 건, 끔찍한 거짓말이기 때문이야.”

“물론 거짓말이지.”

“어쨌든, 내가 알고 싶어 하니까. 조르주 뒤그리발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지. 엘리자베스가 여기에서 앓고 누워 있는 동안, 너는 카앙으로 가서 조사를 했지. 어느 날 밤, 어떻게든 뒤그리발의 방에 숨어들어가 유리창을 열었고, 거기서 십 년 전에 작성된 유서를 읽었던 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사람이며, 유산의 수혜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미 심판 받은 셈이 된 거야.”

제롬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네 이야기가 진실인 단 한 줄이라도 있다면, 왜 엘리자베스는 심판받았던 말인가? 내가 관계를 끊기만 했어도 될 일 아니었나.”

“네가 그녀와 결별했으면, 내가 너와 결혼했겠니? 네가 먼저 관계를 끊는 건 배신이나 다름없었고, 그럼 모든 희망은 사라졌을 거야. 네게는 상속권도 없었지. 그러니 너는 우왕좌왕했어. 날이 갈수록, 너는 끔찍한 계획을 마음속에 파고들게 했지. 비겁하고 위선적인 계획 말이야. 살인은 끔찍하고 위험한 해결책이었어. 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정말로 죽어야 했니? 아니, 너는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이야. 교묘하고,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결혼을 방해하고 싶었지.

이미 병약하고 폐 상태가 좋지 않은 엘리자베스가 심한 재발로 위독해지면 어떨까? 결혼은 무산되고, 불가능해져. 그리고 너는 천천히 자유를 되찾게 되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곧은 너는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게 돼. 결별도, 살인도 없이는 말이야. 아마도 죽음일 거야. 하지만 너의 책임이 아닌, 우연한 사고로 죽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림자 속에서 일했어. 아마도 끝까지 가지 않고 운에 맡기려 했겠지만, 그래도 너는 일했지. 일을 앞당겼어. 기둥을 파고들었고, 엘리자베스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오던 계단 단계를 약화시켰지.”

롤랑드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까 말까할 정도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對面에 있는 제롬은, 자신이 억지로 견뎌내야만 했던 이 일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듯,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며 무심한 체했다.

펠리시엔은 그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 놓치지 않고 감시했다.

서터 너머, 라울 다르베르니는 숨을 죽이고 열정적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기소는 냉혹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어둠 속에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 롤랑드는 자신이 조르주 뒤그리발의 잠재적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령 그녀가 그 이유를 미리 눈치챘다 해도, 그 것을 모른 채하며 행동하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롤랑드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책임 아래 저질러진 그 살인은 당신을 순간적으로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놀람과 절망에 빠졌겠죠.”

“하지만 바르텔레미의 시체 근처에서 회색 천주머니를 발견한 것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오가던 한가운데서, 너는 가방을 집어 어딘가에 숨기는데 성공했다. 아마 스튜디오 안이었겠지. 하지만 누군가 너가 가방을 주워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클레마티드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며, 밖에서 너를 감시하고 있던 시몽 로랑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저녁이 되어 너를 쫓아왔고, 결국 너에게 덤벼들었다.

너와 그는 아침에 그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곳에서 싸웠다. 그는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너도 부상을 입어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살인이었다.

“이제 세 번째군요.” 제롬이 농담조로 말했다.

“너는 그걸 금방 준비할 거야. 의심을 피해야 해.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어디로? 운명이 너를 도와주고 있어. 페리시앙이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 내 곁에 찾아와 나를 위로했지. 그는 두 시간이나 내 곁에 머물렀어. 그리고 그가 다시 떠나 배에 오를 때, 누군가가 골목에서 그를 보고 알아봤어.

그때가 대략 네가 ‘클레마티스’를 나와 시몽 로랑의 추적을 피하는 시간과 겹쳐. 네가 그 일에 대해 질문받게 되지. 뭐라고 대답해? ‘나를 공격한 자가 골목에서 나타났다’고.

그러면 조사가 페리시앙을 향하게 돼. 그는 변명하지도, 변명할 생각도 없어. 연못 근처에 있던 이유를 오직 내 방에 초대했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었거든. 그는 이를 부인하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해. 결국 그는 체포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네 앞의 장애물은 모두 치워지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시작하겠어……”

그녀는 다시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문장마다 숨이 가빠져 왔다.

“네, 저는 생각 중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했어요. 매 순간이 집착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묘지에서, 관 위에 손을 얹은 채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페리시앙을 희생시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라고 아베르니 씨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이라니요? 저를 둘러싼 것은 페리시앙과 당신뿐입니다. 페리시앙이 죄가 없고, 엘리자베스를 죽일 동기도 없다면, 저는 당신, 제물을 의심해야 하나요?

엘리자베스의 일기를 꼼꼼히 읽으며 제 주의를 끌었던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같이 산책하러 갈 배를 찾으러 나가는 그 시간, 당신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한심한 기색이었습니다. 당신은 직장이 없다며 불평했고, 앞날을 걱정하며 제 가없는 언니에게 유산의 희망으로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모두를 경계합니다. 아베르니 씨조차도요. 그가 이미 나무 계단의 이전 철거 사실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몽 로랑과 바르텔레미의 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복기에 접어들어 클리닉에서 제 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당신

을 질문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시다. 당신에 대한 직감도, 숨은 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롤랑드가 잠깐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제롬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하루는 우리 둘이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나려 할 때, 오후 5시였죠. 당신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당신이 제 손을 잡은 채, 두 세 초간 더 오래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정의 표시도, 엘리자베트를 추억하며 슬픔을 나누는 제스처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알려지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남자의 압력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거의 자백이자 동시에 호소였어요. 제롬,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알아요? 그런 행동을 시도하려면 최소 일 년, 길면 이 년은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 주변, 제 가장 가까운 곳에 범인이 있다면, 엘리자베트의 약혼자로서 그녀의 사후 단 한 달 만에 그녀의 자매에게 마음을 돌린 남자는 오직 당신뿐이었거든요.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였지만, 그 열쇠는 당신 안에 있었어요. 당신의 영혼 깊숙한 비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속에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당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당신과 엘리자베트, 그리고 우리 둘에게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마치 당신이 범인인 것처럼 바라봐야 했을 뿐이죠.

저는 더 나아가기도 했어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동시에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신이 저에게 보이는 사랑을 받아주었죠. 당신은 제가 그 사랑을 실제로 느끼는 줄 믿게 되었고, 결국 당신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당신은 모든 이성을 잃고 말았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네, 알아요. 비록 내 삶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지만, 나는 매일매일 커지는 확신 덕분에 조금씩 힘을 얻어갔어요. 이제 나는 엘리자베스의 복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신이 서 있었죠. 하지만 내 비밀이 들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비밀은 내 안에 보물처럼 꼭꼭 감춰뒀죠.”

“페실랑이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찾았을 때, 처음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배신했고 엘리자베스도 배신한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나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밤중에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 후, 파스틴이 내게 자신의 증오와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연인을 죽인 남자에 대한 나의 의심을 이야기했죠. 의심? 아니, 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파스틴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tangible한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당신은 피해자의 집 안에 살았고, 당신의 연인이 무너뜨린 계단 앞에서 산책도 했죠. 그리고 몇 주 전 파스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나를, 그녀의 자매인 나를 유혹했잖아요. 오, 연극쟁이여,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말인가...”

로랑드가 다시 한번 폭발 직전까지 몰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네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동맹을 눈치챈 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precautions를 취했으니까.

네는 페리시앙을 몹시 질투했다. 첫날부터 그가 내게 다가가려 한다는 걸 눈치챈 터였다. 페리시앙과 파스티나는 이제 떨어질 날이 없었다. 네의 불안감도 잠들었고, 너는 페리시앙을 향한 악행을 계속했다. 익명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그 편지는 네가 직접 작성하고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네가 시몽 로리앙을 때린 근처에 피 묻은 손수건을 던진 것도 네였다. 페리시앙이 쓰는 것과 같은 종류의 손수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운명이 내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어느 날 조르주 뒤그리발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날, 운 좋게도 너는 클레마티스 집에 없었다.

제롬이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당혹감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네, 맞아요.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녀가 그 만남을 거절했다. 예전에 그녀의 아버지와 그 남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중대한 사정이 있다며 끝내 설득했다.

그녀는 이 방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과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는 각별한 우정과 존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이 방문의 진정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롤랑드, 요즘 내가 몸이 더 안 좋아지자, 침실의 유리장이 깨졌어. 내 유산의 일부를 네게 물려준다는 유서도 열렸고, 보석 상자에 담긴 가족의 보물, 즉 보석과 반지, 귀걸이 중에서도 다른 하나와 짝을 이루던 한 쌍의 반지 중 하나가 도난당했지.”

“며칠 뒤, 내 소식을 잘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는 베지네에서 네 결혼 소식을 알리는 편지가 도착했어. 그리고 네 약혼자, 제롬 헬마스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정보도 함께 말이지.”

“그래서 롤랑드, 나는 너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제롬 씨, 이 대화에 대해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저는 저택의 상속인이 될 이유가 없었기에, 제롬에게 유언장을 찢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네준 보석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제롬이 카랑에 있는 자신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페실리엔이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롬의 병세가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르주 뒤그리발은 페실리엔이 집 안으로 숨어들어 가시함의 가죽 상자를 꺼낼 수 있도록 필요한 열쇠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페실리엔이 가시함을 열었고, 상자는 지금 이 서랍 속에 있습니다. 안에는 도난당한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날 저에게 주겠다고 했던 반지가 이 상자의 반지와 똑같다면, 당신은 저에게 혼례 선물을 주기 위해 그 반지를 훔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엘리자베스와 시몽 로리앙을 살해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신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페실리엔은 이에 반대했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제 이름에 당신의 성이 붙는다는 생각에 그는 격분해 저를 납치했죠.

하지만 그건 헛수고였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은 그 반지를 저에게 바쳤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확신과 증오가 가득한 제게서조차, 그 반지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사실ைய요. 두 반지는 장식이 다르고 다이아몬드도 똑같았으니까요. 당신의 죄행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을 때, 저는 그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더러운 것아? 이해하죠?...

롤랑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경멸과 증오가 그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소녀의 온몸이 위협과 모욕으로 가득 찼다.

그런 위협과 욕설이 무슨 소용이랴? 제롬이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가 문득 깨달았다.

그는 땅만 응시하며 흐릿한 눈빛을 흘리고 있었다. 비난의 촌촌한 그물에 갇힌 채, 사건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자신도 정체가 드러난 현실에 당황해 방어할 의지를 완전히 잃은 듯했다.

그가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리고?”

“그래, 네 의도는 뭐야? 나를 비난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를 고발할 생각은 없지?”

“글쎄, 편지는 이미 썼어.”

“보냈어?”

“언제 보낼 거라고?”

“오후에.”

“오후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외국으로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군.”

잠시 후, 그가 반박했다.

“왜 나를 고발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 삶에서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네가 충분히 복수당한 줄로 알았는데. 설마 내 절망을 더 깊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든 게 헛수고였단 말이나?”

“펠리시앙이 의심받고 쫓기고 있잖아. 범인이 고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고한 그를 구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나한테도 보장이 필요해. 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래서 그 편지는 법정에 넘겨질 거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 편지를 넘기기는커녕…… 만약……”

“만약 뭐?”

제롬이 물었다.

“이 책상 위엔 쓸 말이 충분하군.” 로랑드가 말했다.

“아아. 네가 유일한 범인이라고 적어라. 엘리자베스에게, 시몽 로랑에게,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한 페르시아 샬에게 저지른 죄를.”

그리고 서명하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른 감정이 없었다. 오직 고통과 끝없는 절망만 가득했다. 그가 속삭였다.

“왜 싸우려 하죠? 저는 이미 너무 지쳤어요. 로랑드, 당신이 맞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에리자베트가 제 탓으로 죽은 것은 아니라고, 시몽 로리앙을 친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정말 비겁한 인간이죠. 하지만 아시죠, 당신을 사랑할수록 제가 한 일에 대해 더 두려워졌어요…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이 저를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만합시다. 다 과거의 일이니까요.”

그는 식탁에 앉아 펜을 집어 들었다.

로랑드가 그의 어깨 너머로 글을 읽었다.

그가 서명했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된 거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랑드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작별 인사?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말?

롤랑드와 페실리엔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때 마지막 순간, 그가 분노에 휩싸이며 저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그가 자기 방, 즉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짐을 챙기러 간 것일 터였다. 몇 분 후,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고, 그는 사라져 갔다.

두 젊은이가 혼자 남았을 때, 그들의 손이 서로 맞닿았고 눈시울은 젖어갔다.

페실리엔은 롤랑드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가장 존경받는 신부를 대하듯 정중하게.

롤랑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신혼밤이군요, 페실리엔? 우리는 약혼자로서 보내야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저는 이 집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네, 롤란드. 첫째, 내가 최소 한두 시간 너 곁에 머물면서 저 남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

“두 번째 조건은?”

“약혼한 사이라면, 이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키스를 나눌 권리가 있잖아.”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자신의 방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래로 내려가요. 내가 처음 음악을 배경으로 고백했던 그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예스테르가 서명한 종이를 보석함에 넣고, 둘은 계단을 내려갔다.

거의 즉시, 라울 드아베르니가 방으로 들어와 보석함에서 종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새벽 세 시, 페리시앙이 별장에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던 라울은 안락의자 구석에서 잠들어 있던 그를 깨우며 손을 내밀었다.

“페리시앙,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monsieur?” 페리시앙이 물었다.

“방금 당신을 공격하고 묶어놓은 일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던 거였소.”

“어떤 바보 같은 짓이요, monsieur?”

“음… 그 결혼 첫날밤 때문에…”

페리시앙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monsieur이시라는 건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으니, 저도 사과드립니다.”

“무슨 일로?”

“제가 묶인 채에서 벗어난 일요.”

“혼자서?”

“누가 도와주었소?”

“파스티나입니다.”

“그렇군, 예상했소.” 라울이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서 파스티나가 그 밤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군. 그녀가 발각되지 않길 바라요!”

그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페리시앙, 너는 지금 바로 롤랑드 가 베렐에게 전화해서 안심시켜 줘. 지롱이 서명한 그 종이를 찾으려 할지도 모르니까.”

“판사가 오늘 아침 아홉 시 반에 나를 만나러 온다. 너와 롤랑드, 그리고 나에게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 종이를 보석 상자에서 꺼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페리시앙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당신이 그걸…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18장

루셀랭 씨는 약속 장소에 정확히 나타났다.

아침 아홉 시 반, 라울이 아직 아침 식사를 끝내던 참이었다. 루셀랭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법관 복장이 아니었다. 낚시꾼 차림이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크루아시 쪽에서 아블레트라는 작은 물고기를 낚으러 온 셈이었다.

머리에는 낡은 짚모자를 쓰고, 바지는 노란색 격자무늬, 발에는 에스파드리유를 신은 채였다.

“법관님, 멋진 차림새입니다!” 라울이 외쳤다.

“날씨가 정말 좋겠군요. 우리 지긋지긋한 사건도 잠시 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 오늘 밤에 있을 결말을 보러 오라고 불렀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필요해 손을 놔둔 그 물건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 가져오죠.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라우은 그를 주시했다.

“판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루셀랭 판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아베르니 백작님.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의 약속과는 달리, 제가 먼저 알려드리기로 하지요.”

루셀랭 판사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한 시간 반 전, 샤투 경찰서장이 파리를 향해 전화해 왔습니다. 베지네에 있는 제롬 헬마스의 집에 청소부가 들어갔더니, 현관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을 강타하는 총상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는 막 집에 들어선 참이었고, 집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구소 형사가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기차에서 내려서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했다.

“판사님, 이는 이 사건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범인이 스스로 형벌을 받은 셈이죠.”

“불행히도,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롬 헬마스는 자신이 유죄임을 시사하는 편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시다. 자살은 자백이 아니죠. 게다가 젊은 신부인 제롬 헬마스가 왜 부부의 집을 떠나 옛 집으로 가서 자살했는지,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롤란드 가브레와, 페리에상 샤를, 그리고 저 앞에서 의 자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두 자백이었습니까?”

“서면 자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울은 제롬 헬마스가 서명한 종이를 판사에게 건넸다.

“이번엔 문제 해결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루셀랭씨가 만족스러운 듯 외쳤다. “완전히 종결하고, 의문의 여지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당신, 아베르니 씨, 몇 가지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면 일부 자백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꺼이 응합니다.” 라울이 가볍게 말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재판의 대표자로서 검사관 루셀랭 경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낚시꾼 루셀랭 씨와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후자는 너그러운 성품으로 심리학적인 통찰력과 인간애를 갖춘 친절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자리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겠지만, 후자의 자리라면 저는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함께 상의하여 무엇이 공개되어야 하고, 무엇이 어느 정도 어둠 속에 남아야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베르니 경?”

“이런 일도 있군요. 페리시앙 샤를과 롤란드 가베를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전, 그 밤 페리시앙이 배를 탔다면, 그것은 롤란드를 만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뒤집어 쓰며 고발당한 것도, 그녀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이런 비밀이 어둠 속에 묻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씨가 따뜻한 루셀랭 씨는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외쳤다.

“바로 이분이 낚시꾼이십니다, 아베르니 씨. 거리낌 없이 말씀하세요. 이미 경찰청에서 당신이 우리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큰 도움을 주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비록 과거가……”

“약간 복잡한 과거 말입니다, 맞죠?”

“맞아요. 법적인 규정을 몇 번이나 어기셨음에도, 그곳에서는 당신을 환영하는 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베르니 씨!”

루셀랭 씨는 호기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라울 드 아베르니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덕분에 루셀랭 씨는 낚시 이야기를 잊어버렸고, 클레르로지에서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오후 세 시까지 그는 라울 드 아베르니의 이야기와 아르센 뤼팽의 몇 가지 비밀스러운 고백을 그저 경청하기만 했다.

떠나는 순간, 그는 아직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베르니 경,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전모를 다각도로 파악했고, 당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비록 범죄와 물질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결국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아름다운 증오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크레블뢰! 우리 아름다운 폴랑드가 어떻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에너지는! 그 감정의 격렬함은!”

“판사님, 더 이상 질문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작은 추가 정보를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입니다. 페리시앙을 어떻게 대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설령 내 아들이라 해도,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알 수 없는 부모를 둔 고아라고 믿는 게 낫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말이죠.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지.” 루셀랭 씨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입니다. 파스티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녀를 꼭 찾고 싶습니까?”

“왜요?”

“그녀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네의 동상 같은 그녀의 모습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루셀랭 씨는 고개를 숙였다. 감정과 욕망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태도였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셋째로, 아베르니 씨, 이 모든 사건들이 뒤엉킨 속에서 회색 천주머니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수백 장의 지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지 않으셨나요? 결국 그 부는 아무도 얻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 이득을 봤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한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시몽 로리앙과 그의 공격자 사

이에 격투가 벌어진 정확한 장소를 뒤졌을 테죠. 두 사내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니, 주머니는 풀잎 위로 굴러가 도랑 근처로 떨어졌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영리한 자 말시오.” 루셀랭이 라울의 말을 되풀이하며 말했다. “나로서는 그토록 영리한 인간이 누구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소.”

“하지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아베르니가 중얼거렸다. 그는 탁자에서 담배 한 개비를 집어 들고, 몽롱한 눈빛으로 불을 붙였다.

사실 루셀랭은 별다른 속셈 없이 그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라울의 태도만 보아도 그는 이미 답을 얻은 셈이었다. 라울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듯, 필리프 가베르의 쓸모없는 보물을 손에 넣은 것이 분명했다. 땅에 떨어진 것은 누구의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참으로 묘한 사람이군.” 루셀랭 판사가 라울을 보며 내비치는 눈빛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섬세한 마음씨를 가졌으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변치 않는 도둑질의 기질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다.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갑을 털어갈 유혹을 이기지 못할 사람. 갈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을까?

라울은 그 망설임에 답하듯 웃으며 말했다.

“판사님, 제 생각에는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마 그는 완벽한 정직한 사람일 테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필립 가베르라는 나쁜 납세자의 행태가 그의 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는 여전히 경쾌한 어조로 덧붙였다.

“어쨌든 판사님, 저는 이것이 제 마지막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더 고귀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을 위해 너무 많이 일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신을 위해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음… 아시죠?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저를 두고 ‘어쨌든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 나쁜 놈이었을 수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라고 말하길 바라는 거예요.”

루셀랭 씨는 떠나는 길에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롤랑드 누나, 페리시앙, 이만 작별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저는 떠납니다. 세계 일주, 혹은 그 정도 되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전 세계에 친구들이 많고, 저를 부르는 곳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롤랑드, 제가 몇 가지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그간 제가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어요. 검사에게 필요한 ‘자백서’ 한 장을, 롤랑드 님의 보석함에서 몰래 빼낸 건 매너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롤랑드, 저는 당신의 신부 밤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발코니석, 즉 가장 좋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 페리시앙, 당신이 카앙의 조르주 뒤그리발 저택에서 금고를 털었을 때, 저는 바로 그 서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적나라하거나, 혹은 더 은밀한 일들이 많았죠.”

“다만,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건 여러분의 탓입니다.

처음 롤랑드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이 찾아왔죠. 여러분은 자신을 내어준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안녕, 라울.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리고 당신, 페르시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애썼는지 아시오? 하지만 안 되었군요. 선생님은 연못에서 작은 유람을 즐기셨을 뿐, 솔직하게 ‘자, 내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 출항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체포당하는 편을 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일할 때 항상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자주 실수를

저질렀죠. 어떤 때는 루셀랭 씨와 함께 일했고, 어떤 때는 그와 대립했습니다. 결국 페리시앙이 무죄라고 믿으면서도, 롤랑드와 제롬을 공범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롤랑드, 당신이 모든 행동을 증오에서 비롯했다고는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증오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토록 강렬한 증오는 이상한 현상이며, 반드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롤랑드, 당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이 정말 많았네요.

“자, 롤란드. 라울은 그 곁에 앉아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 생각해 봐. 결혼까지 간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

“잊지 말아야 해. 당신은 이미 결혼했어. 제롬 헬마스의 이름을 달고 있고, 마담 헬마스가 되었지. 진정한 신혼 밤을 얻으려면, 수개월 동안의 무의미한 노력과 쓸데없는 번거로움이 필요해.”

“하지만 절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야. 만약 네가 내 우정을 인정해 줬다면, 네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까. 시장에게 가는 수고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열 가지 방법이 있었어. 예를 들어, 연인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페리시엔, 내 창문 밑까지 항해하고 발코니까지 올랐던 네가, 제롬 씨 댁에 침입해 그가 훔친 반지를 살짝 가져오는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일이 해결되었을 텐데.”

“게다가 롤랑드, 그건 네가 제롬을 경찰에 넘겨 단두대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네 진짜 의도는 그를 폭로하고 쫓아내는 데 있었을 뿐이지. 솔직히 말해봐, 라울 다베르니에게 맡겼다면 훨씬 더 잘되었을 거야.”

그녀가 답하려 했다. 미소는 이미 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자백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작은 연설을 하러 왔고, 해결책을 가져오러 왔으며,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롤란드, 페르시앙과 결혼하게 되어 기뻐요. 저는 그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사랑할 줄 아는 소년입니다. 그는 용감하고 끈기 있는 아이예요. 제 우정을 피하려 했기에 저는 그에게 원망을 품었지만, 그는 제게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의 일을 간섭한 것은 모두 그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당신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말입니다.”

“이제 신혼 선물입니다. 받아주실 거죠? 제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선물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클레르로기의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을 맡기고 싶어요, 페리시엔. 니스 위에 있는 오래된 저택과 넓은 올리브 밭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당신 취향에 맞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보름쯤 지나면, 루셀랭 씨를 만나고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니스로 가세요. 두 분이 함께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쉬어야 합니다. 기다리느라 지치셨죠?”

“롤란드, 안아도 될까요?”

그는 젊은 소녀를 다정하게 안았다. 그 다정함은 오히려 그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이어 그는 페실랭을 안았고, 그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몇 초 동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페실랭,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더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봅시다. 신들이 저를 도와준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도와줄 겁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는 페실랭을 다시 한 번 안았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떠났다. 두 사람은 놀랍고, 어느 모로든 감동한 표정이었다.

라울은 일 년이 넘는 시간을 여행했다. 그는 두 젊은이와 긴밀한 서신 왕조를 이어갔다. 페실랭은 그에게 설계도를 보내고 조언을 구했으며, 점차 더 편하고 신뢰를 담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울은 그들 사이에 더 밀접한 유대가 생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클레르 디티그의 아들이자,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하겠는가? 설령 확실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는 기뻐했다. 칼리오스트로가 복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실패로 끝났고, 라울은 가끔씩 조제핀 발사모를 향해 비꼬는 말을 던졌다.

“당신은 실패했어, 조제핀 발사모. 아이, 만약 그가 페리에이든, 도둑이나 범죄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둘은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당신, 실패했어, 조제핀.”

르팡의 예상대로 ‘클레마티스’와 ‘오랑제리’ 사건은 결국 종결되었다. 불운하게도 토마 르 부크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진범이 밝혀졌다면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어야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수사 과정에서 그를 향한 중대한 혐의들이 드러났다. 만약 독한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곧바로 형무소로 직행했을 터였다.

열다섯 달 후, 라울은 프랑스에 돌아와 코트 다쥐르의 멋진 별장에 정착했다. 그는 거대한 꽃 재배 사업까지 확장하며 그 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몬테카를로 카지노의 한 게임 룸에서 그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우 우아했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여러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라울은 그녀 뒤로 슬쩍 자리를 옮겨, 속삭이듯 이름을 불렀다.

“파스티나……”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당신이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바로 나요. 당신을 여기저기,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다녔던 사람이요.”

그들은 밖으로 나와 경치 좋은 풍광을 배경으로 산책했다. 라울은 최근의 일을 들려주며, 자신이 그녀를 벤치에서, 페리시앙을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 밤에 대해 물었다.

“제가 안고 있던 게 아니라,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가 울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었던 말인가요?”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제롬 헬마스를 질투했고, 그 결혼식에 대해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주 실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어느 날 밤 제가 그를 따뜻하게 달래주었던 거죠.”

라울은 이제 그녀에게 신부의 밤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그 세부 사항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라울이 물었다.

“당신이군요, 맞죠? 파우스티나?”

“나? 제가요?”

“당신은 제롬이 범인이라고 단정했죠. 로랑드가 그를 쫓아낼 것임을 알고 있었고, 고발이 두려워 도망치기 전에 먼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했군요.”

“그리고?”

“그리고 당신은 그의 문 앞에 숨어 기다렸죠. 문이 열리자 총을 쏘고요. 맞습니까? 어쨌든 제롬은 자살할 성미의 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이어지는 지평선을 가리켰다.

“저기요.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코르시카요.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도 그 윤곽이 보일 때가 있죠. 그곳에서는 모욕당한 사람이 복수를 이루기 전까진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파우스틴?”

“매우 행복해요. 과거와 그 결말 때문에, 그리고 현재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부유한 영주가 제게 그의 마음과 제네바의 분홍 대리석 궁전을 바쳤으니까요.”

“결혼하신 거죠?”

“당신을 사랑하나요?”

“그는 칠십오 살이에요. 그리고 당신, 라울, 당신도 행복하시나요?”

“무언가 빠진다면, 저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무엇이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가 붉어졌다. 그가 속삭였다.

“저는 잊지 않았어요… 없었던 것들을.”

“없었던 것들은, 아마도 될 수도 있었던 것들보다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녀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다.

“저는 잊지 않았어요,” 그가 되뇌었다.

잠시 후, 그녀가 대답하게 받아쳤다.

“그걸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라고요?”

“증거를 대주시오. 당신이 그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아까워한다는 증거를.”

“그건 단순한 아까움이 아닙니다, 파스티나.”

“증거를 대주시오.”

“하루만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이곳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까지 따라나섰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한 시간쯤을 달려, 니스를 내려다보는 언덕길로 향했다. 아스프르몽 마을 근처였다.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녀는 양쪽 기둥에 새겨진 빌라 이름을 읽어 보았다.

“‘파스티나 빌라’라니요.”

깊은 감동을 받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기억의 증거일 뿐, 아까움의 증거는 아니에요.”

“이건 희망의 증거죠.” 그가 말했다. “언젠가 당신이 이 빌라에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믿는 희망이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같은 남자, 라울. 기둥 두 개에 새겨진 이름 따위보다 더 나은 것을 저에게 줄 수 있어야 하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요.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전에 한 마디 하죠, 파우스틴. 처음부터 왜 저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나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원한과 분노가 섞여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맞아요, 라울. 저는 당신을 증오했어요.”

“왜요?”

“제가 당신을 충분히 증오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그녀의 팔을 열정적으로 잡았다.

두 사람은 계단식 테라스를 따라 오르는 길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거친 산맥과 알프스의 눈 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침내 그들은 꼭대기 테라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포도 덩굴이 감긴 이중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중앙에는 신전의 전성기를 누리는 여신처럼 빛나는, 프리네의 동상이 서 있었다.